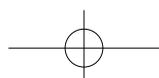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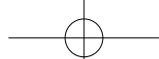
하늘나라

제 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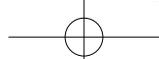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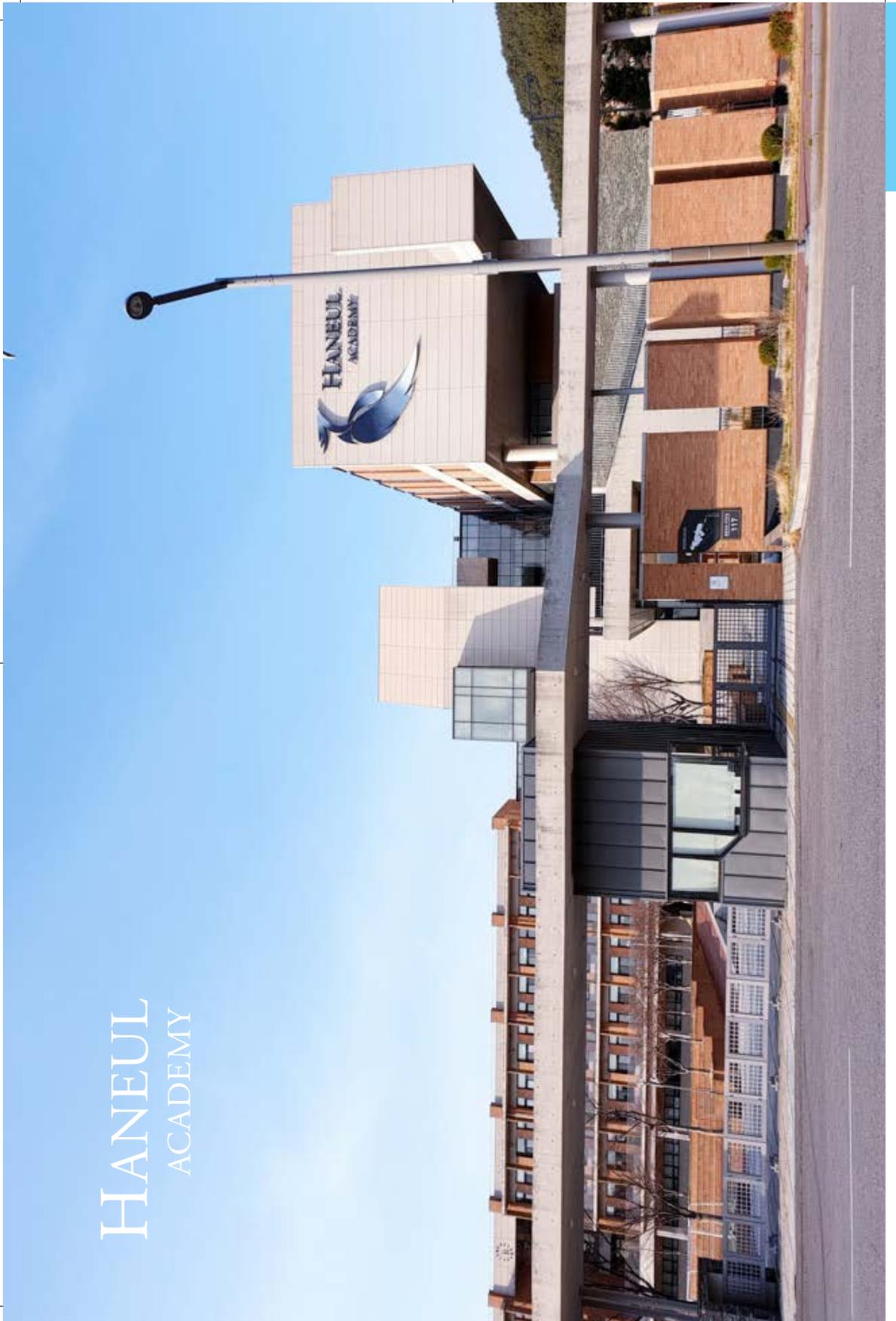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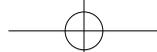
HANEUL
ACADEMY





HANEUL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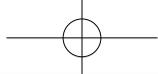


Contents



4 / 교장선생님 인사말	80 / 심, 우리들의 쉼터
6 / 교지 편집부	86 / BACK TO THE HANEUL
10 / 하늘고 10주년 축하말	94 / 합격 선배가 알려주는 공부법
12 / 항공교육	102 / 개인사진
14 / 세계시민교육	106 / 하늘 마블
16 /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110 / 하늘 라디오
18 / 논리학 평화통일교육	114 / 하늘밸런스 게임
20 / 탐구프로젝트	116 / 하늘고를 담다
22 / IIP	124 / 광고
24 / 11대 학생회	126 / 온라인 수학 여행
32 / 하늘고 동아리	128 / 하늘 Twins
44 / 체육대회	134 / 신조어테스트
48 / SH컵	136 / 하늘스튜던츠파이터
50 / 놀피언스리그	138 / 개인사진
54 / 하늘농촌	142 / 1학년 학급별 콘텐츠
59 / 라떼는 말이야	158 / 2학년 학급별 콘텐츠
64 / 텔레비전에 놀고가 나왔으면	190 / 3학년 학급별 콘텐츠
72 / 광고	206/ 잉클링
74 / 개인사진	248/ 개인사진
78 / 매점 꿀 조합	210/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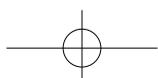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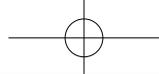
꿈, 그리고 열정



**백절불굴(百折不屈),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2019년 호주 오픈에서 4강의 신화를 이뤄낸 정현 선수를 보면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는 발바닥이 만신창이가 되어, 걷기조차 힘들 정도의 고통을 이겨내고 한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올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나타난 천재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실력을 연마해온 지독한 연습벌레입니다. 테니스가 비인기 종목인 한국에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여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자신이 속한 팀이 해체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받쳐주던 팀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오던 것을 묵묵히 계속해 나갑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그는 한층 더 강인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롤모델로 삼아오던 조코비치 선수를 이기고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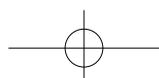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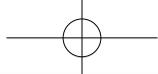
우리 학교의 지난 10년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때도 있었겠지만, 분명 어려운 순간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것을 묵묵히 해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며 한층 더 강인해졌습니다. 불과 10년만에 우리 학교의 위상이 현재와 같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백절불굴'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세상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세계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범지구적인 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의 진입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노동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인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갖는 무게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말처럼,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가족, 이웃,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의 지난 10여 년의 역사가 보증하는 자랑스러운 하늘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DNA에는 이미 우리 학교의 '꿈 그리고 열정'이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이미 세상의 온갖 풍파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인천하늘고에서 보낸 하루, 하루를 자양분 삼아 값진 변화를 일구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꿈을 좇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천하늘고에서 지핀 열정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할 것입니다. 지난 10년도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10년, 20년도 인천하늘고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꿈을 그리면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 김 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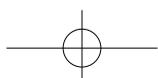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하늘과 바람과 꿀과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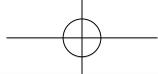
학교에 있으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하늘을 보거나 바람을 느끼다가 간혹 꿀을 따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교지를 만들어 가는 편집부원 학생들과 어떻게 교지를 만들어 갈지 회의하고 소통하면서 페이지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오롯이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결실의 장들을 읽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만났던 추억이 현실 속에서 되살아날 것입니다.

글 · 김승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10대 학생회장 윤소울입니다.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던 학교생활으로 우리는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등 함께 만들고자 했던 추억들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늘고등학교에서의 뜻깊은 추억들과 기억을 만들어주고자 다짐했던 마음은 제게, 학생회장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된 후 저 혼자 아니라, 친구들, 후배들, 선생님들, 바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뽑아주신 만큼 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습니다. 2021년 반짝이던 우리의 한 해를 기록한 하늘나래가 발간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간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Love Myself'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문장이 있듯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었든 자기 자신만큼은 토닥여주고 믿어주며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 될 우리 빛나는 하늘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하늘고등학교에서의 뜻깊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꿈을 향해 앞으로 비상할 수 있는 마중물을 길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글 · 윤소울 학생회장





교지편집부장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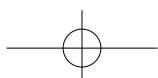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장 박인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교 활동의 여러 제약이 많아 그만큼의 실망감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지를 제작할 때 이러한 아쉬움을 교지를 통해 하나의 즐거움으로 바꿔 담아내려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추억과 시간을 담아 누군가에겐 추억으로, 누군가에겐 반가움으로, 누군가에겐 새로운 설렘으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1년 동안 교지편집부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완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하늘나래를 제작한 별하, 수현, 성호, 주한, 수연, 세영, 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승우 선생님, 천도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래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기자분들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늘나래'라는 책이 바쁜 일상 속에서 '쉼'으로 여러분들의 곁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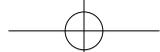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글 · 박인애

교지편집부 한 마디

교지편집부 부원들이 시험 기간이든 평화로운 일요일이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만든 10주년 기념 교지입니다. 교지를 읽는 동안 여러분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제작하였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고 교지 곳곳에 숨어있는 10주년 기념 메달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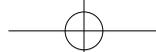
글 · 교지편집부





교지 편집부를 소개합니다!





박성호 능력치

게으름(스택 4) , 사진실력(3) , 기획력(2) 예술 감각(2) 노잠편(5)

대표스킬 : 정문일침

한줄 소개 : 쌍욕 뜯으면 5초간 일의 효율이 올라감. 대신 다음 2초 동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

이주한 능력치

실행력(4), 집중(2), 그림실력(5), 시력(0), 진화력(5)

대표스킬 : 나이키 착용

한줄 소개 : 디자이너너라는 꿈을 향해 러쉬중이다.

스킬 사용시 나이키 신발을 신어 속력이 2.7배 빨라진다.

고별하 능력치

포토샵(5), 수면력(4), 감성(5), 식욕(3), 완벽추구(5)

대표스킬 : 메디컬 손

한줄 소개 : 교편 포토샵 담당. 망한 사진도 살려내는 스킬. 완벽을 추구해 거듭된 수정 탓에 수정버전만 대략 10개가 넘어간다던...

박인애 능력치

기획력(5) 스트레스(5) 책임감(5) 단호함(5) 결정력(5) or 답정너(5)

대표스킬: 일시키기

한줄 소개: 교편 할 일을 항상 정리해서 보내주지만,,벼락치기 특성이 있어 모든 일이 한번에 주어진다.

임수현 능력치

아이디어(5) 지각(4) 소속감(1) 감성(1) 스트레스(5)

대표스킬 : 연락두절

한줄 소개 : 분명 노트북과 함께이지만 늘 연락을 보지 않아 지각이 빈번함. 그림에도 늦게올 때면 컨텐 츠 아이디어를 하나씩 들고와 퇴부당하지는 않았다는 후문이...

성수연 능력치

스피드(1) 성실함(2) 멀티플레이(5) 눈에잘보이기(5) 잠자기(5)

최세영 능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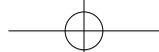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잼민력(5) 귀척력(5) 매력(5) 기억력(2) 성실함(3)

유빈 능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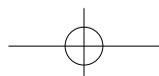
급발진(3) 실행력(5) 아이디어(4) 도촬 즐기기(0) 커뮤니케이션(2)

대표스킬: 무기력

한줄 소개: 오랜시간 교편 일을 하고 이동할 때면 무기력에 휩싸여 매점에 들러 모든 입에 넣고 봐야 한 다. 무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늘고,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류대곤 선생님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백 번도 훨씬 넘게 왔다 갔다 했고~~ 영종도에 뿌리 박고 살으리라고는 꿈 속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살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젊지 않다고 생각했던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곳을 향해 용기를 냈던 도전은 아름다웠기에 지금 생각해도 그 때의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모두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1기 선생님들과 만나 워크숍을 하면서 함께 만들었던 교훈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늘고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앞만 보고 10년을 달려왔네요. 저는 저와 만난 모든 학생들에게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인성이 최고인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하늘고 10년에 즈음하여 이렇게 교지편집부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에 다시 한 번 이 글을 읽는 인천하늘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인간미 따듯한 사람으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주길 부탁하며,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하늘고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희정 선생님

학생들의 작은 꿈도 하늘고와 함께할 때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인천하늘고의 개교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교 10주년을 축하하며, 1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도약을 기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세웠고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꿈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양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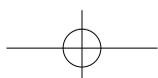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항공 교육

2학기에 진행되는 하늘고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수업, 항공기 일반은 한서대학교 최연철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문과 학생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수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딱딱한 이론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역학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항공의 역사, 항공사, 항공기의 구조, 항공기의 비행 원리 등을 알려주시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수업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동향과 문제점 등을 자주 언급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해주셨던 것이 기업에 남습니다. 단순히 항공 관련 지식을 전달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현 위치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항공기 일반을 들을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항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듣기 쉽게 들을 수 있고, 항공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누군가 항공기 일반을 들을지 말지 묻는다면 전 자신 있게 들으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글 ·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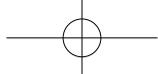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하늘고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있고,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설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항공기 일반은 오직 하늘고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특별한 과목이다. 오랜 기간 파일럿으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한서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최한철 교수님은 평소에 항공 분야에 관심이 적었던 학생이라도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강의를 해주신다.

미래 항공운송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며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자동차까지 버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강의를 하러 달려오신 교수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교수님은 항공기 발전의 역사, 항공 용어들의 정의, 항공기 유형별 비행 방법과 그 원리, 항공 산업 구조 등을 잘 정리된 ppt를 통해 강의해 주시고, 항공 관련 주제를 조별로 하나씩 정해 이를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해주셨다.

특히 세계 항공 산업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설명해 주시으로써, 미래에 우리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해 바람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다. 우리의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많은 배움을 얻고, 이를 펼칠 토대도 마련할 수 있는 항공 교육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글 · 함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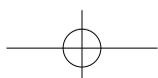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교양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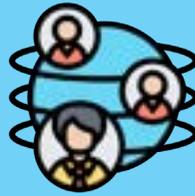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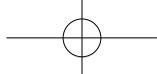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 위한 교육으로서 국제개발 협력과 개발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빈곤, 상호의존성, 평화, 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세계시민의 정의이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은 어떠한 요소들을 갖춘 사람들을 칭하는 말일까? 바로 '지구촌 공동체에 거주하면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 빈곤, 평화와 같은 세계의 많은 이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칭한다. 다음으로는 전세계적인 문제인 '빈곤'과 관련지어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본 뒤, 기후변화와 관련된 SDGs 목표 13번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전직 '조창법' 대사님과과의 만남을 가져 심화된 내용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뒤에는 매시간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에 관한 심화된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파악하며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기존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빈곤'이라는 세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었고 이 교육을 받은 뒤,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UN 국제협력기구에서 현재 각국들이 협력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글 · 이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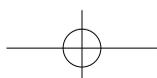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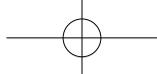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세계 시민은 특정 나라나 장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지구'라는 하나의 마을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어느 도시의 시민, 대한민국의 시민에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했던 많은 활동 중에서도 '그린라이트 만들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남수단 친구들이 어두운 밤길을 밝히며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린라이트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적고, zoom으로 우리가 만든 그린라이트가 남수단으로 보내지는 '희망나눔 컨테이너 발송식'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KOICA, 미래희망기구에서 여러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 뜻깊은 강의를 해주셨고, 유엔협회세계연맹 부회장 조창범님, 유엔 직원 김용재님의 특강은 이 교양수업이 아니었다면 접하기 어려웠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학생,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싶은 학생 모두에게 이 교양수업을 추천합니다. 12기 학생들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10차시의 수업이 끝난 후 자신만의 언어로 '세계시민'을 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김서윤





교양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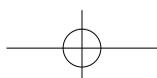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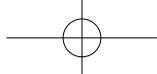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은 인문교양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등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탐구를 바탕으로 강의 및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2학년 교양과목을 선택할 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러 분야의 관점을 가지고 발전시키고자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1학기에 ‘하는 것과 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라는 공통된 주제로 노래 가사 개사 활동, 2분 스피치, 인문학 칼럼 작성, 사회과학 포스터 제작,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조를 꾸려서 하나의 주제를 저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결과를 피드백해주는 수업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 또한 얕은 수준이 아니라 주어진 형식에 맞추어 진행하다 보니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각 조별로 자유주제를 정하여, 1학기와 마찬가지로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은 조별로 자유로운 활동 진행과, 다양한 분야로의 사고 확장, 교수님의 피드백과 질 높은 강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생각하기 표현하기 수업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글 · 손현우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수업에서는 수업 이름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닌 대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기 때는 '보는 것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업 때 ppt로 포스터를 만들거나 칼럼을 작성하면, 그다음 시간에 학생들과 교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또한 앞에 말한 발표는 2인 1조나 3인 1조로 활동한다면, 2분 스피치라는 활동에서는 혼자서 스피치 대본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는 평소 생각하지 못해보았던 주제를 여러 분야에서 탐구해보고 싶은 학생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을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 수업이라 생각하고, 교수님의 말씀도 정말 좋으셔서 얻어갈 점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으신 말씀은 내가 먼저 답변을 생각해보고 발표자의 답변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

글 · 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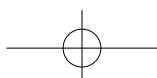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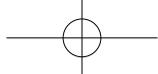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교양 수업

논리학

논리학은 바른 사고의 형식 및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책 <세계의 리더들이 논리학을 배우는 이유>에서는 세계의 리더들은 논리학을 통해 '최선의 선택, 올바른 결정, 이성적인 방법'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치밀함으로 세상과 교류하며 관계를 설정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말한다. 또한, 철학과 교수님께서 "현대의 특징은 자기 주도성으로, 박제된 지식과 경험으로는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없으며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정체성 확립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논리학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감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남다르면서도 체계적인 사람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논리학 수업에서는 논리학의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토론 수업,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등에 접하고 실제로 수강생들이 상호작용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필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레드윙 작전과 관련하여 진행한 토론으로부터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도덕적 딜레마에서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복잡한 상호 관계, 생명의 가치, 미국의 세계 지배, 전쟁의 의미 등의 사회적 논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고, 자신만의 의견과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사례들을 공부함으로써 자기 주도성은 물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글 · 김도은





평화통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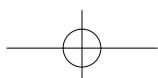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평화통일교육을 들으며 배운 것들이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전개, 북한의 교육과 같이 단순한 내용들을 들으며 북한주민의 삶을 점차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 한국이라는 나라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평화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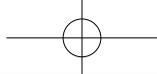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하며 느낀 점은 수업에서 '통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평화'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사님들께서 북한의 삶의 양식을 이야기로 풀어주시며 북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저희 학생들은 통일의 가치를 다시 판단해보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까지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개개인의 학생의 판단을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이 생각의 뿌리가 되어 평화통일에 대해 수많은 가지들을 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냉전시대에 돌입한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냉전의 장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을 외치는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으며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도를 쌓은 학생을 우리 사회는 필요로 합니다. 그 인간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판이 평화통일교육일 것을 확신합니다.

글 · 이서진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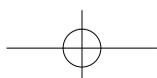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교과기반 심화탐구 프로젝트

올해 교과기반 심화탐구 프로젝트는 ‘거북선 복원 사업,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앞서, 비용 편익 분석 강의를 들으며 연구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거북선은 ‘노’가 아니라 ‘도’를 저은 것이다.’ 라는 논제로 CCED 방식 논술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문학팀은 김훈의 <칼의 노래>에 대한 수용 문화를 분석했습니다. 독서팀은 <명량>의 수용 문화를, 역사팀은 이순신 위인전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정치팀은 ‘거북선 졸속 복원 기사를 통해 본 거북선 구조 해체모니 경쟁’을 탐구했으며, 수학팀은 거북선 복원 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예상 연간 유지비를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하였으며, 내부 공사비, 토지 매매비, 선착장 보강비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B/C법, NPV법을 활용하여 입장료, 주차비, 식비를 포함한 사회적 편익과 CVM으로 매월 지불의사 가격을 이용한 편익도 구했습니다.

교수님께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더욱 발전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거북선 상상 재현은 금지해야 한다.’ 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문과 팀과 이과 팀이 함께 벽보를 만들어 대자보 기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가시적인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글 · 김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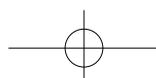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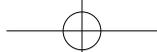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

미디어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편익 비용 분석이라는 낯선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매체를 통해 접하다보니 친근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친근한 주제를 거북선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님의 생애처럼 친근하게 접하는 것이 아닌 거북선 복원 사업 편익 비용 분석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편익 비용 분석이라는 분야를 고등학생이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설명과 도움을 통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NPV 법이나 B/C법과 같이 관련 지식을 이용해 거북선 복원 시 우리가 얻게 될 편익과 잃게 될 비용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객관화된 찬성팀과 반대팀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대자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글 · 서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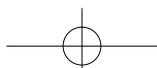


학술

IIIP - 자율주행자동차반

공학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무한상상과정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특히 무한상상과정 중 자율주행차반은 3년간의 무한상상과정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으며 교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자율주행차반의 목표는 기존에 학습했던 라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실제 소형 자율주행차 모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6차시 동안 기본적인 코딩 및 하드웨어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뒤, 팀을 나누어 자율주행 코딩을 시작합니다. 주어지는 자동차가 트랙을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팀별로 알고리즘을 고안하고 서로의 코딩을 공유해가며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또, 직접 주행을 시켜보며 코딩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가고 완벽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교내 대회를 통해서 1등 팀을 선정하면 이 팀은 현대 모비스가 주최하는 자율주행차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 대회에서 각종 학교의 알고리즘을 접해볼 수 있으며 '청년공학' 학술지에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과정 도중, 프로젝트에 실패해서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자동차반은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공학에 대한 열정을 프로젝트에 쏟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글 · 최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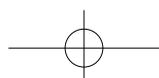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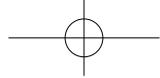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IIP - 심화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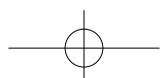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올해 무한상상과정 심화반에서는 작년에 조립했던 로봇 자동차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초반에는 전년도에 조립했던 자동차를 일부 분해하여 자율 주행에 편리한 방식으로 로봇을 재조립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기본 파이썬 지식 및 짜여진 코드의 매커니즘을 배우고, 로봇의 주행에 관련된 부분을 팀별로 재코딩하여 각자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됩니다. 교내대회를 위해 바퀴의 최대 속도를 제한해 두었지만 대회의 평가 기준에 속도를 둔 만큼, 짜여진 트랙의 선을 적게 밟으며 빠르게 회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처음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에는 회전속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선을 밟지 않게 코딩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회전속도와 주行的 정확성 모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코딩을 성공해냈을 때에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OS 운영체제인 '리눅스 우분투'를 사용하며 알고리즘 개발 뿐만 아닌, PC의 운영체제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한상상과정 심화반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지만, 차체 조립과 코딩을 직접 해봄으로써 충분히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글 · 박지민





11대 학생회!





[문화체육부]

신이 [문화체육부]를 만들 때!

투지 1스푼...



열정도 1스푼...



뜯끼 0.5...



아무것도 하지마.

리그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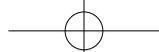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하를 파티까지

우리가 다 떠먹여줄게.

만능 하늘인들을 위해

만능들이 준비했다!

그냥, 즐겨v



[학교홍보부]

신이 [학교홍보부]를 만들 때!

애교 5스푼?
5컵.ㅋ



유머 2스푼...



귀찮음 조금만



포브스 선정!!

재학생

누구보다

하늘고에 진실인

학교홍보부!

다음 홍보부 부원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생활동지원부]

신이 [학생활동지원부]를 만들 때!

힐링력 1스푼...



관중력 77스푼?

탈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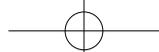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결정장애 조그

아아아아



**학활지는 우리 뿐이야
셋이 될 수 없어!
광야를 떠도는 늘고생이
KOSMO에 닿을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 간다!**

**Oh my gosh! Don't
you know
we're a 학활지?
학활지는 우리 뿐이야
셋이 될 수 없어!
광야를 떠도는 늘고생이
KOSMO에 닿을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 간다!**



[기획재정부]

신이 [기획재정부]를 만들 때!

간지 1스푼...



꼼꼼함 5스푼?

탈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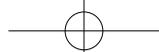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열정 한 컵

아아아아



**지금까지
이런 부서는
없었다!
이것은
빅데이터인가,
기재부인가!**



[학습봉사부]

신이 [학습봉사부]를 만들 때!

열정 듬뿍...



학생들을 향한
관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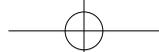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팔팔카사오아르



**열정 듬뿍 넣고
학생들 마음 읽는
관심법도**

**한 스푼 두 스푼아 나 아아어!
너무 많이 넣었다..**



[학교안전부]

신이 [학교안전부]를 만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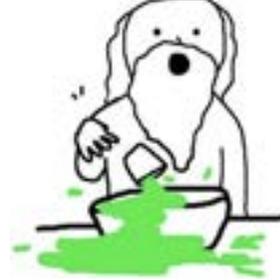
책임감 1스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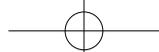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섬세함 5스푼?
탈탈...



안전의식 왕창 ㅏ
ㅏ ㅏ ㅏ



뭐라고?
마스크를 안 썼다고?
그럴 때 나타는 사람들이
바로
학교 안전부!
학생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



[동아리연합부]

신이 [동아리연합부]를 만들 때!

면학 시간?
필요 없어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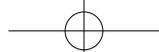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친화력은
이미 충분하군.



일 복 실수한 척
털어놓자. 탈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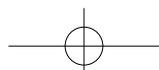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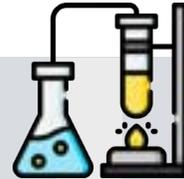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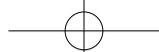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동아리연합부는
정은, 현서, 지원,
지연, 채민, 윤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io-Farm

동아리 시간마다 새롭고 싱싱한 실험들로 가득한 바이오팜. 하늘고 유일 최강 생명 동아리. 갓 잡아 탱글탱글한 실험들로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실험과 최고의 동아리 부원들. 하늘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농작물로 요리를 한다고.. 동아리 부원들의 취향에 따라! 주문 즉시 진로에 적합한 여러 실험들을 진행합니다! 특 쓰는 와사비처럼 색다른 맛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동아리, 오직 동아리 부원들만을 생각하는 동아리. 배달 포장 가능합니다. 갓동의민족 앱 사용시 생기부 빵빵 보장권 지급 서비스~!





CiPiE

일식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그 세트메뉴! 문과의 입맛에만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피가 2022년을 맞이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이과와 문과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변화할 예정이라고!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던지 씨피에 꼭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GAEA

사르륵 삼종초밥세트는 천문초밥, 환경보건초밥, 생태동물...초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의 신 가이아가 만들어낸 육지의 온기와 해양의 한기 그리고 우주의 광대함까지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지구최고의 삼종 초밥세트입니다.



매니아층이 적지만.. 양은 두꺼운
천문초밥! 파고들수록 심오하고
흥미로운 매력에 한 번 빠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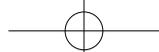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환경보건초밥은 토양과 대기와 해수의
기운이 느껴지며 신선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푸르름을 느껴보세요.

달콤한 선후배관계! 감칠맛 나는 실험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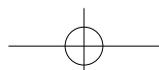
둘 다 맛볼 수 있는 생태동물부서로 어서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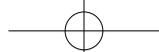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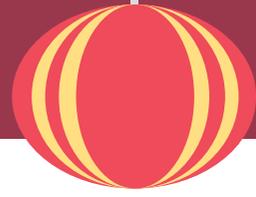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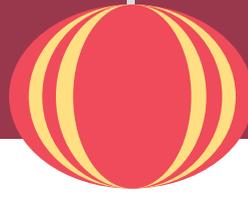
GLON

모든 학문의 교집합에는 수학이 있다. 그리고 인천하늘고등학교 동아리의 중심에는 GLON이 있다는데...?! 교내 유일 정규 수학 동아리 GLON이 그 이름을 내걸고 파는 메뉴 “GLON”! 학생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암호변환함수로 숨겨진 ‘HGVS’의 비밀을 풀면 기장이 직접 배달해 주는 이벤트까지 진행 중! 문과생부터 이과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GLON의 야심찬 신작 메뉴, 매진 전에 어서 즐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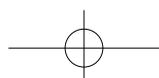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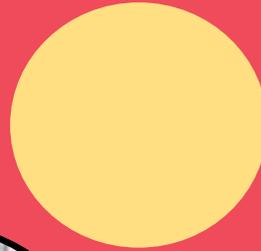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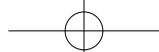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H.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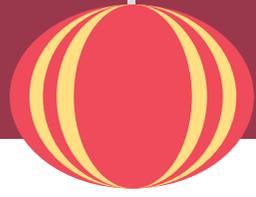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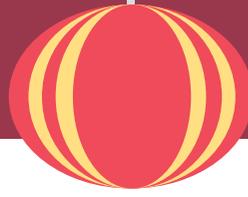


하늘고 학생 모두가 줄 서서 기다리는 HIM은 코스요리가 대표메뉴라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코스A는 순수하게 하나의 재료만으로 요리하는 '순수물리', 맛보면 찜찜하고 짜릿한 '전기전자', 각종 산해진미를 융합한 '융합물리' 코스로 진행됩니다. 특별하고 인상 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HIM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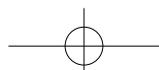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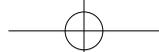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INK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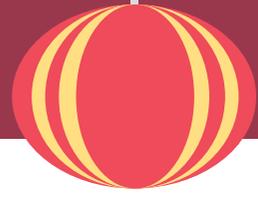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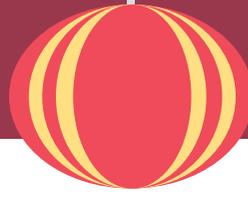


전교에 단 하나뿐인 대맛집 영자신문동아리, INKling이 10기, 11기와 함께 월간지, 월드카페, 하늘나래 기사, 파이널매거진 등의 재료들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세계 다양한 이슈를 자신의 꿈과 열정으로 곁들여 맛볼 수 있고 특히 영어 3대 천왕에 참가하는 페스타도 재료에 포함됩니다! 존 카워 음식 평론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잉클링의 맛에 빠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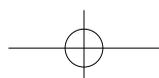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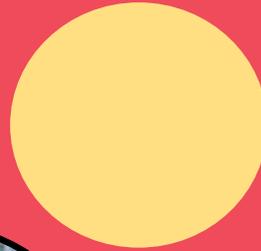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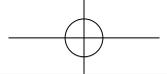


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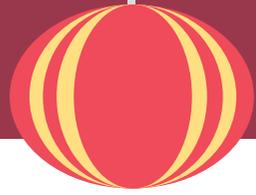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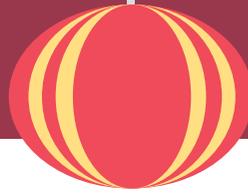


우리 동아리의 세트 메뉴는 각기다른 세가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턴의 사과처럼 달콤한 수학물리 맛, 탄소 화합물의 끝판왕으로 보고만 있어도 아밀레이스가 들끓는 화학생명 맛, 한 입 베어 먹으면 주식 가격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인문사회 맛을 모두 I-COM으로 즐겨보세요!





HAM



10년 전통 골목 맛집 HAM에서 선보이는 올해의 메뉴 4선!

그 대망의 첫 번째! N년 경력의 5성 주방장의 가성비 갑 파이썬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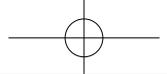
두 번째, 전부 볶았다! 부원들이 정한 메뉴 아래 화끈한 세부적인 팀별 프로젝트

진행! 세 번째, 내 음식, 내가 해먹는다! 자신이 하고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 잘 만들면 간식까지? 네 번째, 개인별로 탐구하고싶은 컴퓨터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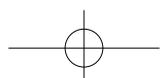
련 주제로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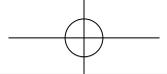




A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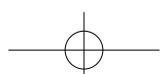
우리 에어로 메뉴를 맛보기 위해 하늘고 식당에 들어오는 학생까지 있을 정도의 인기! 에어로엔 '모두가 훈훈한 부원들'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늘고 유일의 항공 동아리라는 한정 메뉴라는 장점, 그리고 여러분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동아리실까지!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붙여 줄 에어로, 꼭 맛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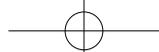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Alche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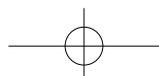
하늘고 유일 화학 동아리 알케미스트에서 특별식을 출시하다! 실험하다가 별안간 세트메뉴를 내버린 화학갓동; 게다가 옆 일식집 바팜과 매년 콜라보 메뉴도 낸다고 하니 별떨..^^ 주방장이 매일 잠도 안자고 실험 연구만 한다니 다른 동아리는 어쩔티비 ㅠㅠ 100:1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최정예 요리사도 배치됐으니 일단 1지망은 알케로 가자!!





ARCHI

자연산 공간구문론을 곁들인 푸짐한 도시 구조설계 프로젝트부터 라이싱지로
 정성스럽게 우려낸 뜨끈한 건물 모형 제작 활동까지! 이공계열 매-니아층을 사
 로잡은 TED 활동과 직접 담근 논문도 증명!? 아아 든든하구나! 빵빵한 생기
 부, 다양한 활동, 다정한 선배들과 함께라면... 맛있는 한상 차림을 즐기려면?
 ARCHI 세트를 선택할 것!



B.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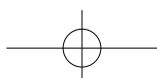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Based On Statistics, for Society, 이름만 들어도 간지작살인 B.O.S.S.는 사회 이슈들을 우리 집의 비법 소스인 빅데이터를 곁들이고 비벼서 탐구해 보는 동아리!!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논문에다가 코딩까지?? 끝없는 메뉴들의 향연에 빠져봐~~!!! 본인의 취향대로 메뉴들을 골라서 한번 씹까지 싸먹어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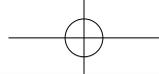




1학년 체육대회!

이강봉 선생님의 특별요청으로 진행된 1학년들만의 2학기 체육대회가 학생들을 설레게 하였다. 줄다리기, 계주, 줄넘기, 축구, 피구, 농구 그리고 새로 추가된 플래그 풋볼과 같은 다양한 종목으로 학급 친구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1학기에 진행된 미니 체육대회와는 다르게 반티가 허용되어 학생들이 각 반의 개성과 단합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라 만족도가 높았고, 여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플래그 풋볼이라는 종목을 추가했던 점 또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올해 넷플릭스에서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우리나라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이강봉게임'도 진행되었다. 이강봉 선생님, 그리고 배성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한 살 떨리는 딱지치기는 이번 체육대회의 꽃이었다. 체육대회는 SH컵(Sky High Cup)과 함께 이틀동안 진행되어 체력이 많이 소비되었지만 학생들은 승부욕으로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매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임하며 시험기간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를 맘껏 풀 수 있었던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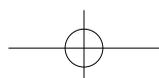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체육대회는 Dream과 Passion,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긴 팀에게는 매점 이용권이 지급되는 혜택이 있었다. 1학기 체육대회와는 다르게 이번 체육대회의 승리한 팀은 Passion팀이었다. 두 팀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점수차는 약 두 배 가량 벌어진 Passion팀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코로나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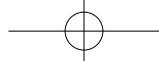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경기에 안전을 준수하며 질서를 잘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해준 MC들과 선생님들의 몫이 매우 컸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도록 지시하였고, 학생들 모두가 마스크를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건강하고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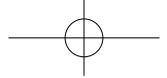
글 · 이준민





1학년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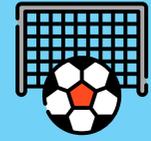




SH컵

SH컵이 막을 내렸다. 2학기가 시작되고 열심히 달려오던 하늘고 학생들에게 10월 중간 고사가 마무리된 후 찾아온 SH컵은 가뭄의 단비와 같이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새로움 힘과 활력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SH컵이 시작됨으로써 반이 하나가 되고 학년이 하나가 되고 참여한 모든 학생이 스포츠란 이름 아래 서로 하나가 되어 축구를 즐길 수 있었다. 수많은 학생이 목 터져라 외치는 환호성 아래에 진행되었던 SH컵. 선생님들, 1학년, 2학년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웃고,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며 즐길 수 있었던 SH컵. 골이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경기, 잔잔한 호수에 큰 파동을 불러일으키듯 팽팽한 경기 가운데 침묵을 깨고 찾아온 극장골, 폭죽처럼 시원시원하게 골이 펄펄 터졌던 경기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열광을 불러왔다. 경기에 앞서 현영쌤과 경기에 뛰는 친구들이 모여서 전략을 짤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나가다 보니 2학년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머쥌 수 있었다. 이번에 SH컵을 하고 나서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다. SH컵이라는 하늘고의 문화는 결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 하늘고 모든 학생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이다. 하늘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진행할 수 있었고 서로가 원하기에 우리 하늘고의 SH컵이 더욱더 활기차고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SH컵은 내가 아닌 우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SH컵의 참가 조건이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딱히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합에 앞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반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과 서로의 소중함





을 깨달았다는 것 아닐까. 웃으며 준비하고 웃으며 경기하고 웃으며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경기를 마무리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고 학생들에게 SH컵이 다가오는 의미가 우리 하늘고의 SH컵이라는 문화가 기쁨이 되고 더욱더 알차고 풍족하도록 발전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친다.

글 · 장부경



늘피언스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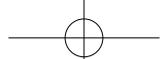
INTRODUCE

늘피언스리그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리그이다. 팀을 만들어 리그를 진행하여 프리시즌과 정규시즌 10~15 경기를 6개월간 진행된다. 우승팀에게는 트로피, 시즌 MVP(늘롱도르)에게는 최고 등급의 축구화가 주어진다.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축구를 좋아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한다. 축구를 잘하지 못해서 신청하기 망설여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축구를 진정 사랑하고, 즐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

2022 SEASON INFORMATION

총 6개 팀으로 리그가 구성된다. 1학년 학생들은 입학 후 신청을 받고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와 훈련을 진행한 뒤에 드래프트를 통해 각 팀에 입단하게 된다. 2022시즌은 전년도와 다르게 늘피언스리그만 있는 것이 아닌 늘피언스 리저브리그인 늘로파리그가 새로 개설된다. 이는 많아진 선수의 인원으로 인한 것이고, 각 팀의 2군 선수들이 늘로파리그에서 활약하게 된다. 쉽게 늘피언스리그는 1부 리그, 늘로파리그가 2부 리그의 개념이다. 1, 2군의 구분은 각 팀의 감독, 주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학년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당부한다.) 경기의 선발인원은 9명으로 키퍼 1명과 필드 8명으로 구성된다.





NSG (나리쌤제르망)

2021시즌의 우승팀! 최다 득점, 최소 실점으로 명실상부 늘피언스리그의 최강팀이다. 풍부한 자금력(현실 money와 영입포인트 모두)과 어벤져스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2022시즌도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 (2021시즌 우승 후 영국 왕실 소금, 트러플 소금과 함께 최고등급 소고기 파티를 개최함. 인삼라면 정도는 언급할 필요도 없음) 강한 승부욕과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다면 NSG는 당신의 하늘고 life에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기고 싶다면 합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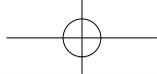
※구단주 나리쌤의 전폭적 지원(사실 나리쌤은 지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과 축구에 진심인 감독 승호쌤의 열정, 그리고 최고의 선수들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팀이다.



FC HOT SAUCE (구 FC아구창)

21시즌 우승후보 팀 중 하나로 리그 초반 1위를 달렸었다. 하지만 선수간의 호흡문제로 리그 1위에서 3위로 추락했다. 공격진이 리그 정상급이며 22시즌을 위해 이적시장에서 리그 정상급 수비수들을 영입과 임시키피의 수비 복귀로 수비까지 압도적인 팀으로 탈바꿈했다. 유니폼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붉은색 흰색의 유니폼을 채택했고, 기존 아구창이란 이름을 버리고 붉은 유니폼과 맞게 강력하다는 의미의 '핫-소스'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2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이다. “당신이 멋과 실력을 모두 갖추었다면 hot sauce를 선택할거라 믿습니다” - 선수단 일동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이현영 선생님이 감독이며, 11기 최고 에이스가 주장인 팀이다. 2021시즌 초반 가장 강한 우승후보였던 만큼 알찬 영입을 한다면 2022시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늘피언스리스



야천 FC

이름과 로고부터 구단주인 최상규 선생님께서 야구와 LG트윈스의 극성팬임을 알 수 있다. 꼴별이 연상되는 노란색 유니폼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그들. 21시즌 마지막 까지 중위권 팀으로 시즌을 보냈지만 리그 후반기에 다크호스로 부상하며 반등을 위한 저력을 보여주었고,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학업과 운동까지 잘하는 에이스와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간지를 보여주는 주장이 팀을 이끌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속해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관계를 넓히고 싶다면 노란색 옷을 입는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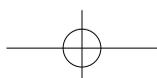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늘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팀이다. 패스&런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팀으로 모든 포지션 선수들이 가장 많은 성장을 한 2021 시즌이었다. 로고의 그 팀처럼 신바람을 한번 타면 그 어느 팀도 막기 힘든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 2022시즌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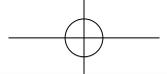


모레알 마드리드

프리시즌 많은 승리를 쟁취하며 리그 우승후보로 꼽혔다. 특히 공병지FC의 수비수이신 이주호 선생님께서 구단주 겸 선수로 계셔 우승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리그 시작 후 연속된 부진과 에이스선수들의 이적으로 결국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팀의 분위기는 가장 좋으며 이주호 선생님의 전문적인 훈련과 개인에 맞는 코치를 해주시므로 축구적인 성장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팀이다. 만약 축구에 대해 발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면 이 팀에 입단하는걸 추천한다.

※당장의 실력보다 성장 가능성과 축구 철학에 맞춰 선수단이 구성되고 있어 늘피언스리그 완성년인 2022시즌 큰 성장의 가능성이 보이는 팀이다. 이주호 선생님의 지도력과 적절한 에이스의 영입을 통해 강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해본다.





신생아 FC

프리시즌에는 없었지만 21시즌 직전에 만들어진 구단이다. 기존 팀에서 2명씩 뽑아 강하진 않지만 약하지도 않은 준수한 공격력과 경기 전개로 경기를 진행하는 팀이다. 매 경기 다른 팀에서는 쉽게 보지 못하는 골을 터트리고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며 항상 환호성이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비록 승리와 골이 다른 팀에 비해 적지만 신생아만의 경기로 매 경기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22시즌에 1학년 영입 후 어떤 모습으로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가장 큰 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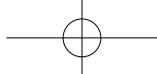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늘피언스리그에서 가장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팀이다. 롱볼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하는 팀 컬러를 보이고 있다. 감독이 없음에도 선수들을 중심으로 잘 뭉쳐져 있는 팀으로 좋은 감독까지 보유한다면 내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BIG DEAL (신생팀)

22시즌 새로 선보이는 팀이다. 10경기 9골, NSG의 전 주장이자 21시즌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늘롱도르의 첫 수상자인 스트라이커 김준영이 창단한 팀이다. 각팀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들을 선정해 멤버를 구성하여 선수단이 절대 약하지 않은 팀이다. 친선경기에서 전 우승팀에 패배를 했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어 22시즌이 많은 기대가 되는 팀이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실래요? 저희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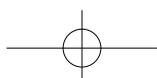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시즌이 끝나고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하여 전체적인 완성도는 보장된 팀이다. 다만 아직 팀 색깔이 명확하지 않고 강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장의 강한 승부욕과 NSG에서 함께한 워닝멘탈리티를 바탕으로 좋은 팀을 만들 것이라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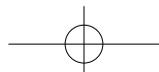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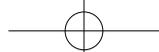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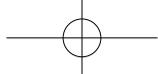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하늘 농촌 양봉프로젝트

개교 10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양봉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행복하고 보람찬 1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벌에 대한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선생님들의 수고와 저희의 열정으로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꿀벌과 양봉에 대해 배운 후 각자의 벌통을 배정받았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수만 마리의 벌을 보살피는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각자가 부여받은 벌통에 수시로 찾아가 벌통의 온습도를 확인하고 벌들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생명의 신비함과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아카시아 꿀을 따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탄 꿀을 팔고 그 수익을 기부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 활동과 더불어 직접 연구주제를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팀은 ‘꽃잎의 자외선 방출 원리와 휘발성 화합물을 이용한 친환경 Bee road’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실험 방법을 고민하고 보고서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진행된다면 친구들에게 ‘고민보다 Go!’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글 · 김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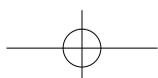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하늘 농촌

텃밭·토끼 봉사

안녕하시오! 하늘고의 텃밭 농부 김호준이라 하오.

하하. 지금부터 내가 소소한 이야기를 하나 할 터이니 잘 들어 주길 바라오. 내가 활동한 텃밭은 토끼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관 텃밭이오. 1학기에는 감자, 토마토, 딸기, 깻잎, 상추, 당근 등 일반적인 작물을 심어 키웠다네. 여기서 난 좀 특이하게 도라지를 심어보기로 했고 30cm정도 땅을 파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왜 이걸 택했냐며 욕먹으며 결국에는 심었던 말일세. 아 참! 혹시 한 번씩 지나가며 도라지꽃을 본적 있소?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이오. 하하하 그리고 텃밭 작물들은 대체로 잘 자랐소. 그거 아시오? 식물들에게 많은 관심은 독이 될 수 있소! 하루하루 관찰하였는데 2주 동안 아무리 봐도 자란 것 같은 느낌이 없었고 시들어갔소. 그래서 관심을 덜 주기로 마음먹고 가는 빈도수를 줄여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매주 일요일에 관찰 했더니 많은 변화가 있었소. 놀랍게도 평균 3cm이상 자란 것이었소. 그리고 죽어가던 작물들이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네. 잡초도 아주 장난 아니었소. 텃밭이 정글이 되었었소. 벌레도 아주 그냥 좋다고 나에게 속삭이던 것이 아니오. 결국 딸기 같은 경우 수확하지 못하고 벌레에게 넘겨주게 되었소. 마음이 아프오. 나도 먹고 싶었는데. 치사하게 지들만 먹는 거 아니오! 그래도 텃밭 덕에 하늘고에서 바쁜 생활에 작은 힐링과 함께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소. 다만 일요일에도 일찍 일어나야하오. 그래야 누릴 수 있소. 솔직히 일어나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일어났소. 만약 내년에도 한다면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하오. 재밌을 것이오.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소! 즐거운 시간이었소!

글 · 김호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년 토끼 자치 봉사활동 장을 맡고 있는 소위 토끼 짱인 김유빈입니다. 한 해 동안 토끼를 관리하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세 차례의 토끼 대란 및 토끼 배지 판매, 물청소 및 삼질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생활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던 사업을 올해 토끼 봉사에 참여한 우리 10기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자치권을 얻어와 보다 토끼한테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다가가고 토끼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덕에 토끼 복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토끼 배지를 판매해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올해 토끼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무래도 토끼봉사단들이 토끼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야외에 토끼집이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토끼를 잘 안 보러 와주시는 거 같은데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해서도! 토끼 관리에 저희가 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10기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11기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사업 이어받아 정말 하늘고의 마스코트가 토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파이팅해봅시다! 하늘고 마스코트가 토끼가 될 그 날까지! 저희 토끼 자치 봉사단은 달리겠습니다~~!! 토끼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용~! 이상 토끼 짱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끼에 많관부~~!!

글 · 김유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그 시절의 너는 빛이 났다





라떼는 말이야~



shinae_01

커플끼리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땀 강당에서도 남녀 분리 해서 앉았다... 같이 앉았다고 혼내시던 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함.

u...yeon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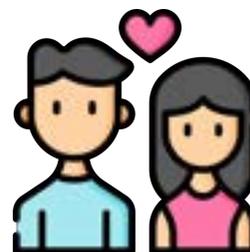
제가 졸업한 직후 하늘고에서 연애가 합법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Latte는 커플들 동아리실에서 몰래 만나느라 힘들었다던데, 이젠 교내를 손 잡고 확보한다는 이야기 듣고 뒷목이 당기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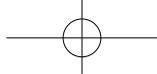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soonghjii_

“체육복 등교가 불가능했던 시절.. 아침 조회 시간에 체육복을 입고 있다가 학년 부장 선생님께 걸리면 생활관으로 달려가서 정복 or 쥐색 생활복 바지로 갈아입고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입고 있었던 체육복 바지는 교무실 앞에 놓인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서 제출했구요..”

din_rh14

"완전 연애금지 시절...남녀 둘이 붙어만 있어도 오해를 하고 의심받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사실 할 애들은 다 했고 커플들 많기도 했었음ㅎㅎ 그래도 우리 기수 때는 학교 단체로 수학여행이나 롯데월드 갈 때 커플들 같이 있는거 보면 사진 찍어서 제보하면 상점도 주고 신고당한 커플들은 불려가고 그랬었는데, 서로 간식거리 하나 전달해줄 때도 엄청나게 계산하며 눈치 보고ㅋㅋㅋ 자유롭게 맘편히 연애 할 수 있는거 보면 뭔가 신기... 아 하지만 졸업 후 헤어졌음ㅋㅋㅋ 다들 연애 조심히 아름답고 신중하게 하시길 히히♥ (생각해보면 공부를 좀 더 해서 친한 친구랑 같은 대학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ㅠ 하늘고에서 만난 친구는 정말 대학에서 좋은친구 사귀어도 느낌이 또 달라서 더 애뜻하고 끝까지 남아서 모두들 소중한 관계 가져옴♥♥)연애보다 이게 더 좋아. ㅎㅎ





라떼는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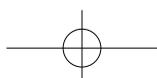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졸업생 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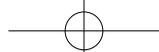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V_seungyeon

별관 살 때 일인데요! 별관에 그린비가 생기면서 12시가 되면 복도 전기를 끊었어요. 옆에 있던 정수기도 전기가 같이 끊겨서 12시부터 뜨거운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때 룸메들이 밤마다 파티하던 멤버였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사라지니까 라면도 못 먹고 다들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정수기를 넷이서 방으로 들고가서 코드 꽂고 결국 뜨거운 물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느라 고생한 건 덤이고요 :) 몇 번 하고 너무 무거워서 관렸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sb_rain99

고3 추석 때, 수능 100일 안 남아서 잔류해서 있느라 추석음식 못 먹고 있었는데, 룸메 어머니께서 전이랑 LA갈비, 과일 등 추석 음식을 경비실에 맡겨주셔서 면학 끝나고 방에서 먹기로 했음. 근데 추석이기도 하고 늘 집에서 차례지내던 기억들도 있어서 먹는 김에 조상님께 우리 수능 대박을 빌어달라고 부탁하자고 차례지내는거를 제안해서 면학 쉬는 시간에 semi-차례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함. 미리 노트북에 지방 사진을 다운 받고, 향초 대신 사용할 건전지 촛불??? 차례 시 필요한 술 대신 음료(피크닉 사과맛), 육포, 사리곰탕, 과자 등을 준비함. 룸메 4명끼리 파트를 나누어 음식들은 냄새 안 나도록 담요에 칭칭 감고, 노트북이랑 컵라면은 가방에 숨겨서 방으로 몰래 가져옴. 가져온 거 빨래바구니 두 개랑 가지고있던 박스 위에 얹고, 나를 흥동백서 맞춰서 가져온 음식 배열하고, 조상님이 들어오기 위한 베란다 문 살짝 연 채로 달님 보면서 차례지냄. 약간 분위기 엄근진. 찐으로 수능 잘보면 좋겠어서 하임인 애들도 절은 안해도 기도함. 피크닉 음료도 컵에 따라서 향초 대신하는 디퓨저에 3번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함. 알코올 하나도 없는 피크닉으로 음복 시능하며 크으소리까지 다 냄.ㅋㅋㅋㅋ 신성한 행위이기 때문에 웃으면 바로 눈초리. 이 와중에 태블릿으로 사진찍고 영상찍고 다 했음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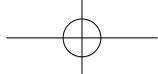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ㅋㅋ 나름 우리 추억 남기자고.. 아직도 그거 보면 어이가 없음...여튼! 점호가 있기 때문에 호다닥 마치고 음식 흡입함.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미치고 또라이같은데 수능 기도가기때문에 당시엔 엄청 진지했음. 근데 조상님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았음.. 수능 망했기 때문.....ㅋㅋㅋ 수능 100일도 안남았을때 조상님께 기댈 것이 아니라 수특.완성을 더 봐야함....ㅋㅋㅋㅋ

여튼 이런 행동한거 하늘고 여태껏 통들어서 5기 319호 우리방밖에 없었을거같음....이거 말고도 생활관 1층에서 최연소 킹갓밀리언셀러 짱시티드림 앨범강하고 포카 주고받은거랑 애들 추잉껌, 마칩, 위영, 무적, 체리밤 등 컴백 무대본다고 애들이랑 급식실 티비앞에서 종치고도 존버하다 쌤한테 걸려서 면학실 들어간거 등등 엄청 많은데.. 와 이렇게 보니까 매일 놀기만 한듯... 진짜 하늘고 일주일 식사체험 너무 하고 싶음ㅜ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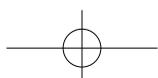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라떼는 말이야~ 졸업생 썰!

g.xxyu..v

때는 2017년... 고3이라 힘들게 도서관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던 형규와 구성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도서관에서 마주 보고 앉아 공부하던 중 형규는 평소 잠이 많던 구성이가 앞에서 또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면학 시간에 항상 잠을 무한으로 자서 면학 2타임이 끝나는 11시 반에도 매일같이 자고 있어서 주변 친구들이 단합하여 이 친구를 깨우지 않고 기숙사로 들어가 새벽같이 면학실(자면서) 지키는 면학실 지킴이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서 머리를 헤드뱅잉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형규는 공부하던 샤프를 들고 친구를 깨우기 위해 샤프로 머리를 쿡!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일인걸 공부할 때 앞에 박혀있던 샤프심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친구의 머리를 살펴보니.... 친구의 머리에 굵은 샤프심 한 가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딱 꽂힌지는 모르겠는데 친구 머리카락 자라나는 모공에 딱 박혀있더군요 ㅋㅋ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손톱으로 뽑아보려고 했는데 어찌나 딱 박혀있던지 절대 빠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두고 지금까지 자랐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친구가 심각해 보이길래 너무 웃겼지만 열심히 뽑았습니다... 결국 거의 1시간가량 사투를 벌이다가 뽑았습니다...ㅎ 덕분에 면학 한 타임을 모두 날렸지만 너무 웃겼던 경험이라 공유해봅니다 ㅎㅎ 대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에도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기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늘고 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나중에 가면 가장 그리워지는 시절입니다:) 공부하느라 힘들더라도 학교 안에서 재미있는 추억 많이 쌓으면서 원하는 꿈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하늘고 후배님들 파이팅!





u...yeon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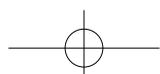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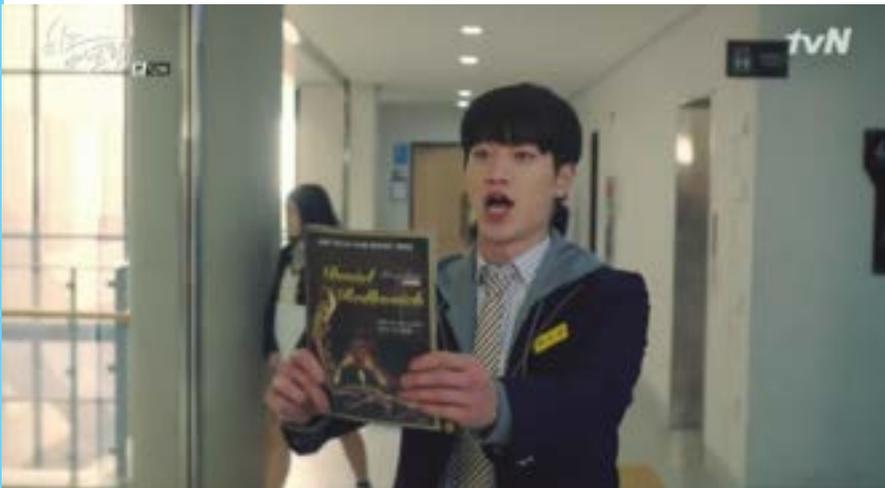
때는 2018년 여름이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연장 면학이 유난히 하기 싫은 날이었다. 나와 룸메는 잔피를 부려 아프다는 핑계로(100% 거짓말은 아니고 허리가 살짝 아프긴 했음) 조기 입실에 성공했다. 호실 문을 열자마자 입실 성공의 기쁨에 젖어있는 우리를 반겨 준 것은 다름 아닌 방바닥에 출렁이는 물살이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침수된 방을 구하기 위해 효진쌤을 호출하여 나, 룸메, 효진쌤 셋이서 쓰레받기로 물을 쓸어 담아 대야 3개 반을 채우고, 남은 물기를 걸레로 닦고 있을 때 연장 면학이 끝난 나머지 룸메들이 들어왔다. 사건 현장 정리 후, 진짜로 조기 입실을 해야 할 만큼의 요통을 느끼며 우리는 잠이 들었다. 당시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된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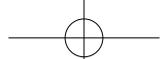
g.hxxin

원래 친했던 6기 졸업생 친구랑 어몽어스 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서로 친구 데려오기로 함. 대충 대학 친구들이라고 예상하고 기다리는데 단톡방에 초대되는 익숙한 6기 친구들의 이름..(심지어 초대된 친구도 본인 친구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데려온 친구도 하늘고6기) 그러면서 서로 안녕하세요 몇살 누구입니다 인사하는데 다 같은 하늘고 6기 출신ㅋㅋㅋㅋㅋ큐모르는 친구들이었지만 모르는 친구가 아닌... 결국 거의 하늘고 멤버로만 구성된 사람들끼리 어몽어스팸 만들고 어몽어스 하면서 밤새며 그룹 콜하며 하늘고 시절 얘기 하고 서로 친해지게 됨. 학교 다닐때는 문과 이과 나뉘어서 더욱 접점이 없어 생각도 못한 친구들을 졸업 후 2년뒤 친해지게 된 아이러니.



텔레비전에 늘고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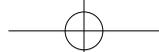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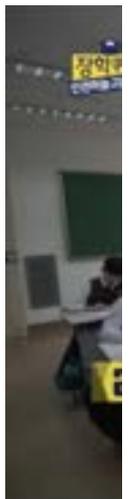
치즈인더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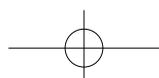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급식실 #음악실 #꿈 그리고 열정 #판자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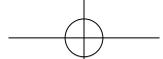


텔레비전에 높고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명문 #학교 뽐 #전국 자사고 #백운산 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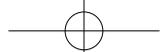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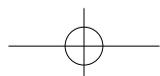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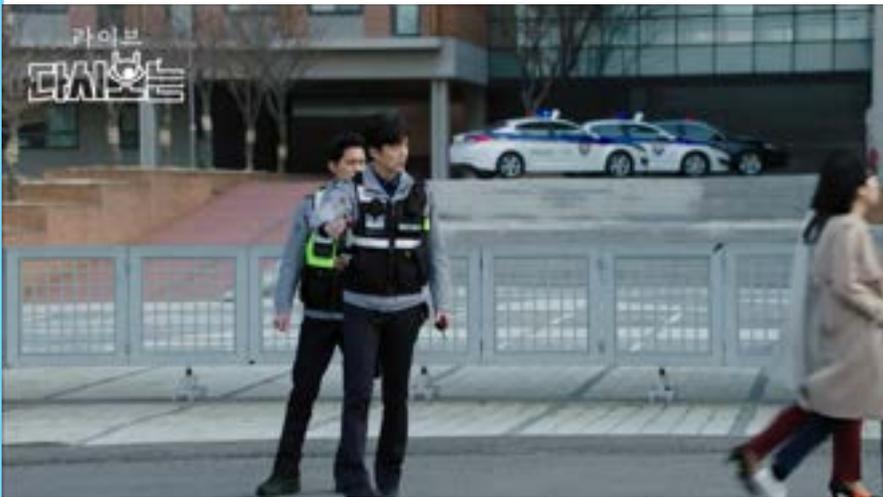
장학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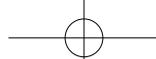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열강중이신 상규쌤



텔레비전에 높고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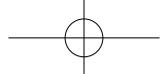




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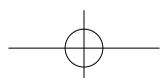
#A동 #체육관 #도서관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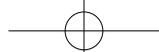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텔레비전에 늘고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중앙계단 #흠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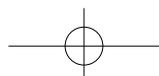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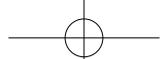


크런키 광고



#홈베이스가 이렇게 사랄라 할 수 있는거 였냐고





2021년 웃음과 감동을 책임지겠습니다



공감
왕이 된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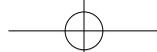
김승호

제작: 김병화 | 감독: 박선호 | 각본: 박민애

제작: MNET, Mnet2, Mnet3 | 기획: Mnet2, Mnet3, Mnet4

절찬 상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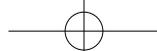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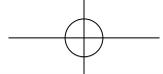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하이 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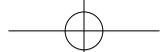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HANEUL CONNECTOR
한얼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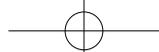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HAN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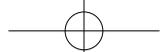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MAD SI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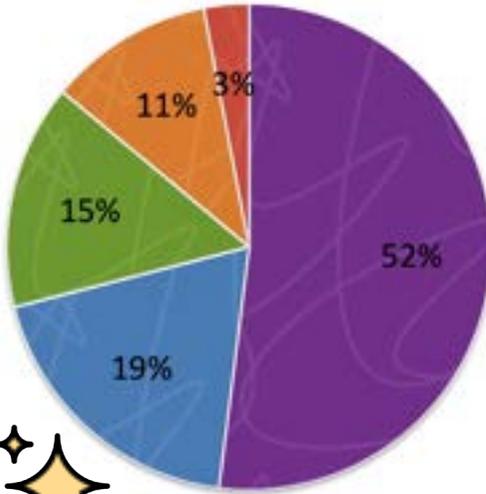






매점 꿀 조합!

아이 배고팡~



불닭볶음면 & 삼각김밥 52.2%

육개장사발면 & 핫바 19.6%

불막창 & 치즈콕콕볶이 15.2%

감동란 & 육개장사발면 10.9%

햇반컵반 & 짜파게티범벅



자신만의 매점 꿀 조합!

진라면 매운맛, 짜파게티 범벅, 만두



마카로니 떡볶이 + 티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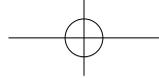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충무김밥 육개장

햇반컵반 & 육개장 & 돼지바 & 코코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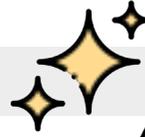
치즈볶이 & 초코에몽



매콤대패삼각김밥 & 요구아이



꿀밤파이 하나로 충분하다



불닭볶음면 & 감동란 & 핫바

까르보불닭 + 피자치즈 + 요구르트

간짬뽕 & 감동란

비빔면에 감동란 (비빔면 꼭 찬물에 세번이상 행구세요. 꼭이요.)

까르보불닭에 꼭 치즈 넣고요 + 초코에몽 + 감동란!

비빔면하고 간짬뽕 같이 먹어보셈 둘다 맵고 존맛인데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그냥 개꿀조합임 (아 비빔면 찬물에 세번이상 행귀야된다 안하고 맛없다하면 안됨)

에스프레소 & 바닐라아이스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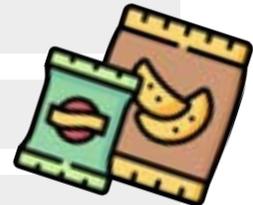
콕콕치즈볶이 + 핫바 + 아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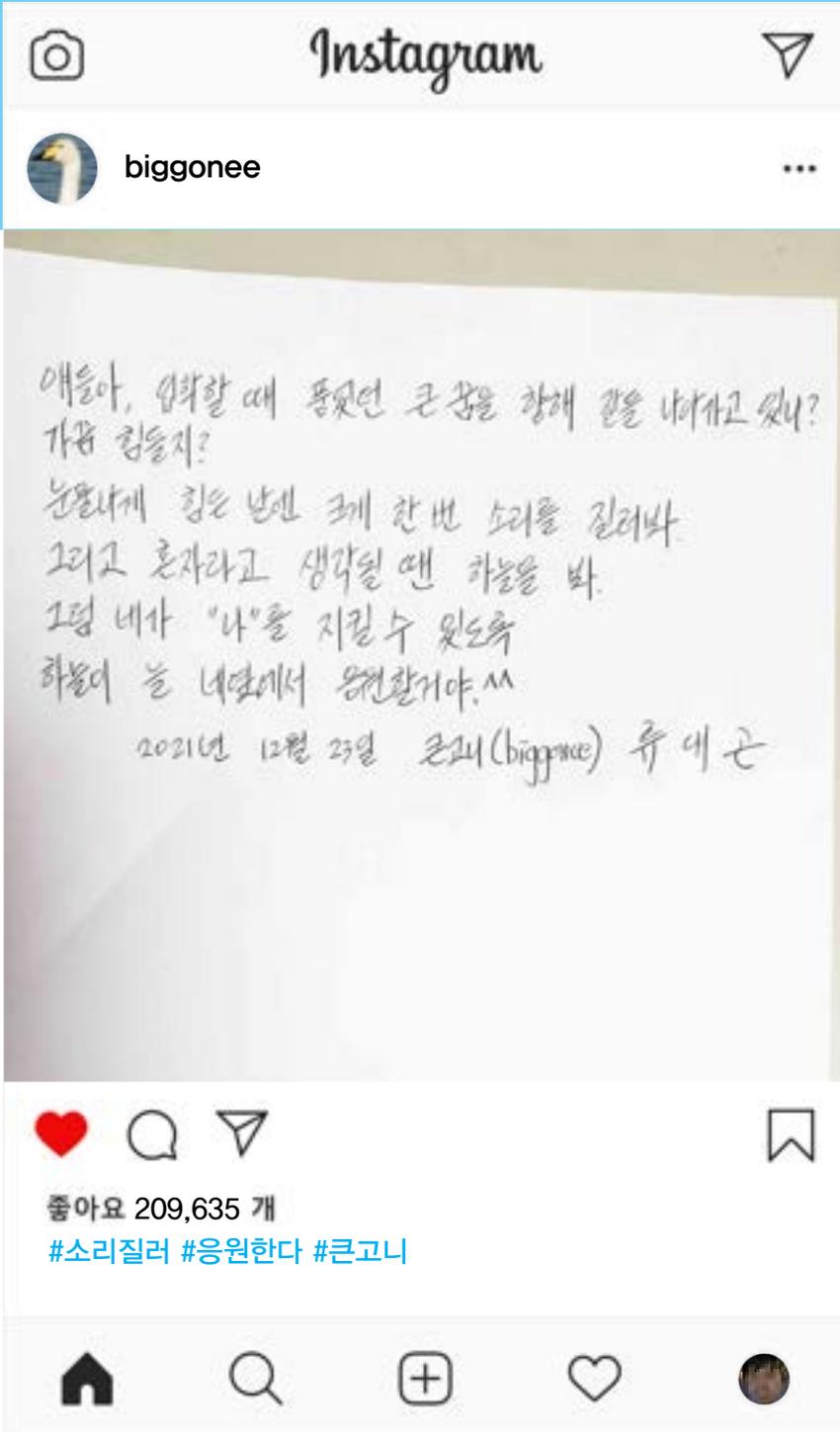
바깥 세상에서 가져온 자이언트 떡볶이에 콕콕콕 스파게티를 넣고 매점 소세지랑 스트링 치즈를 넣어서 마크 정식을 만든 다음에 초코에몽을 2+1으로 산 뒤, 함께 조집니다. 후식으로 2+1 아이스크림까지 조지면 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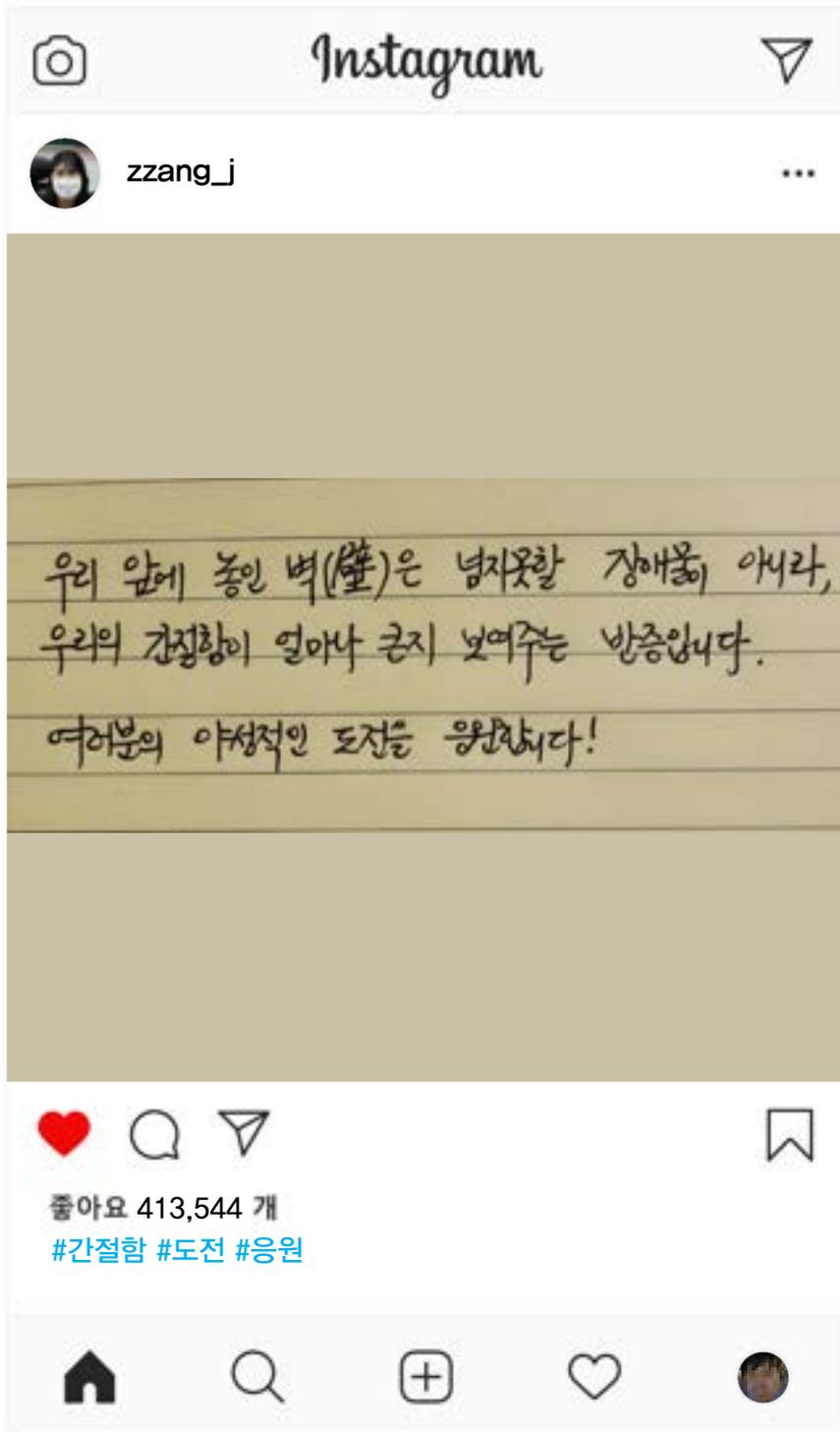
짜파게티 작은 컵 + 치츠콕콕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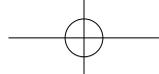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간짬뽕에 핫바

아몬드 브리즈 & 짱구 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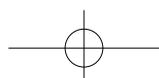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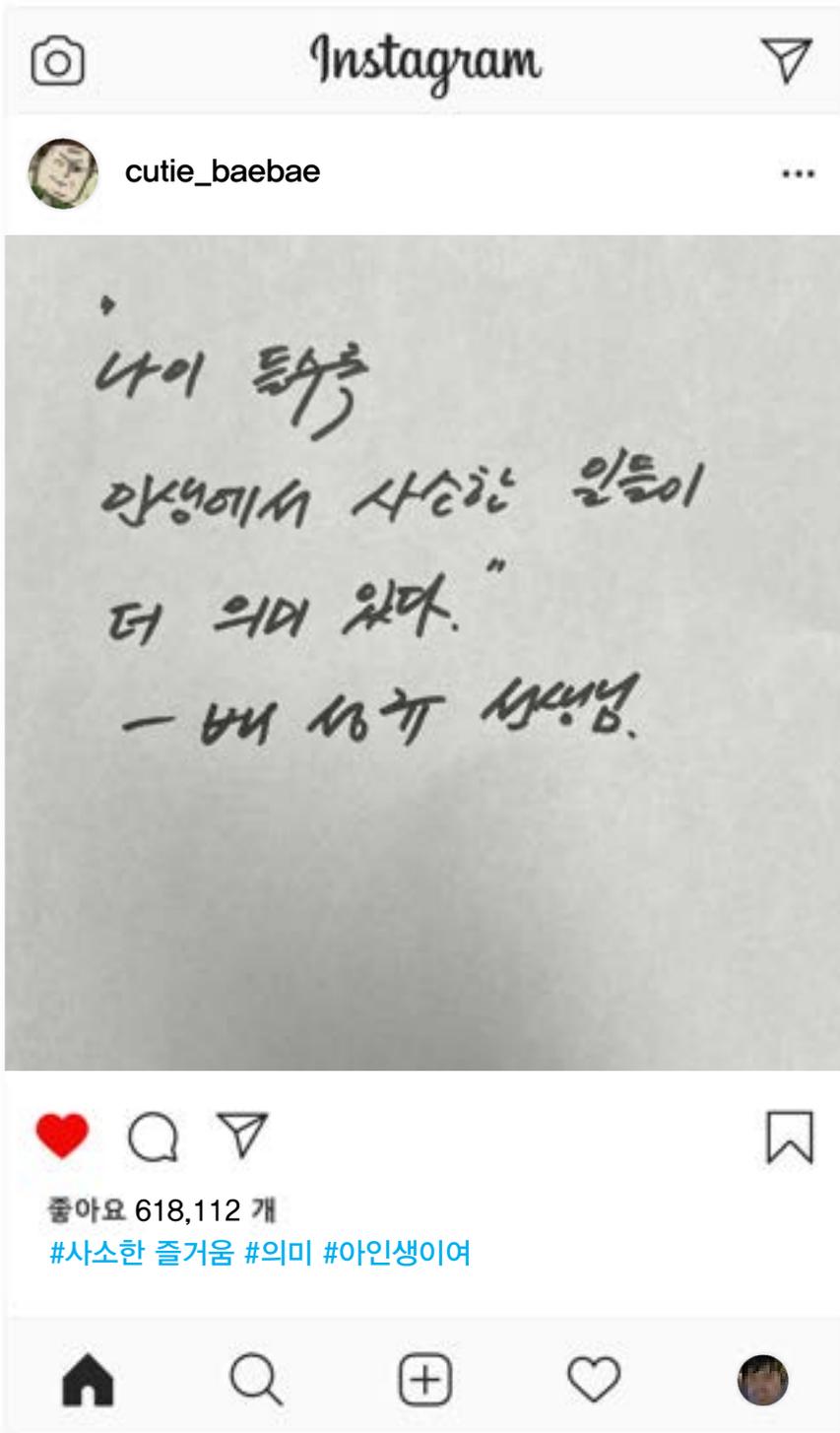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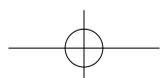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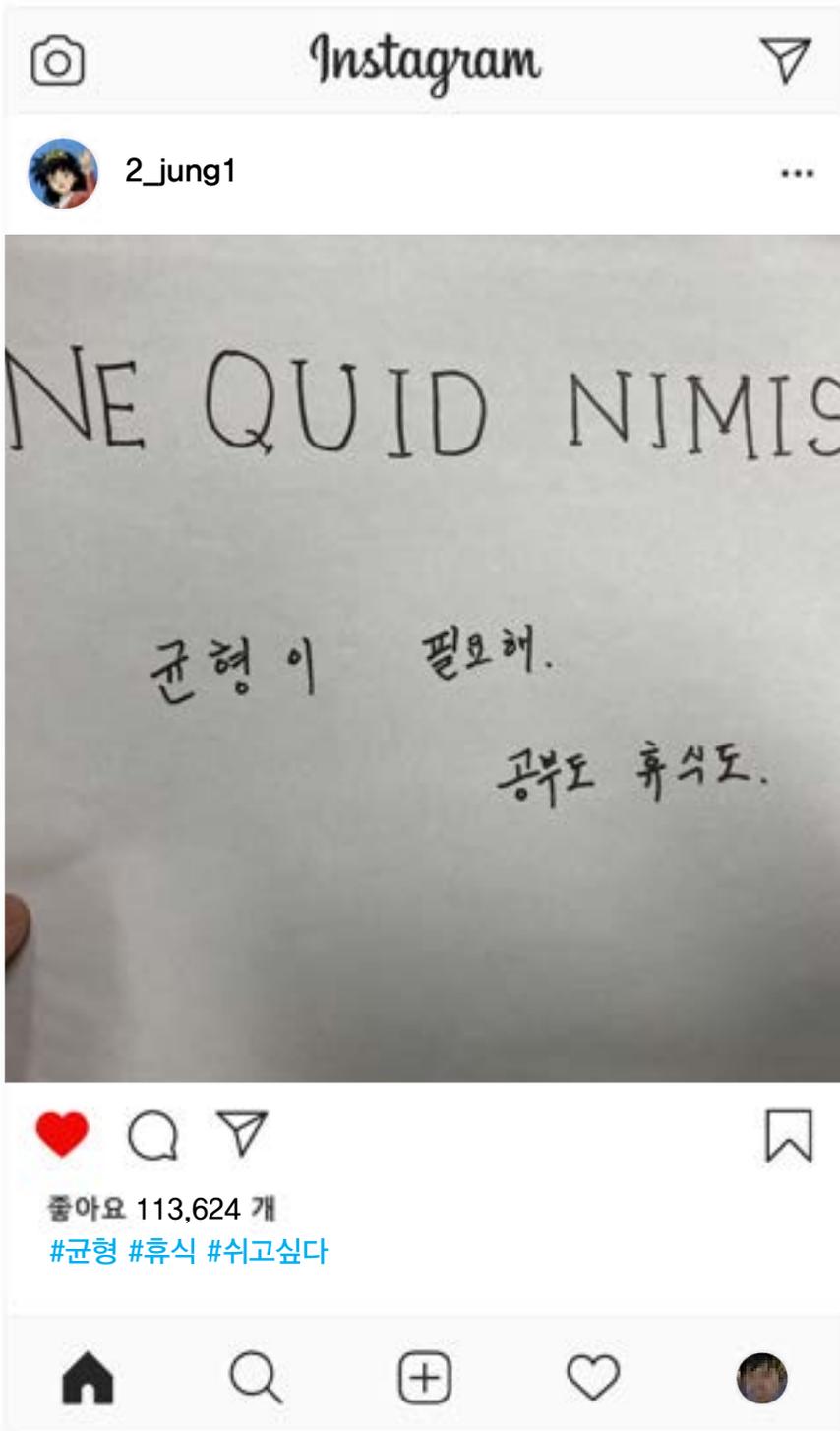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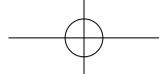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배성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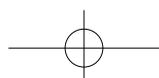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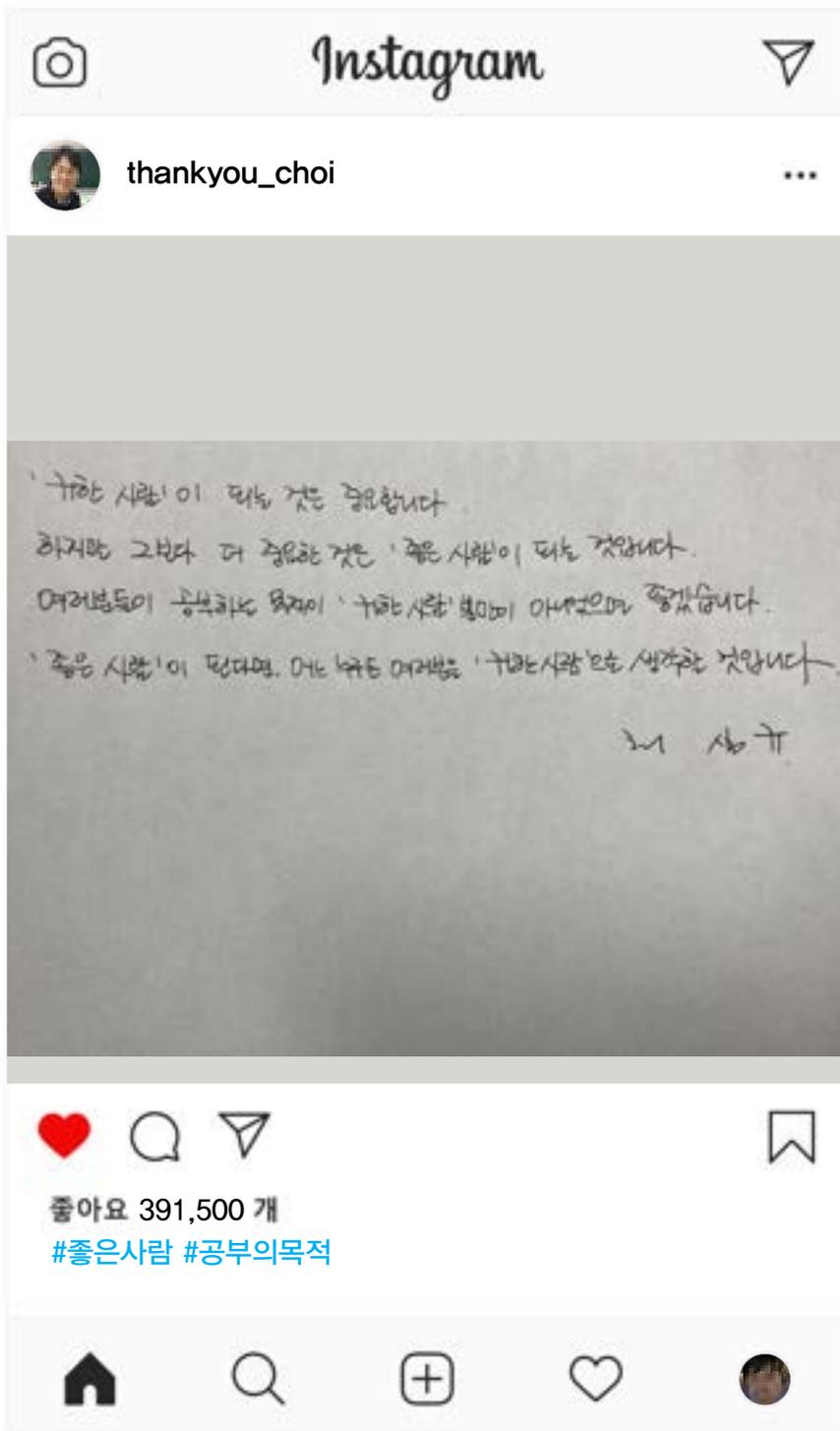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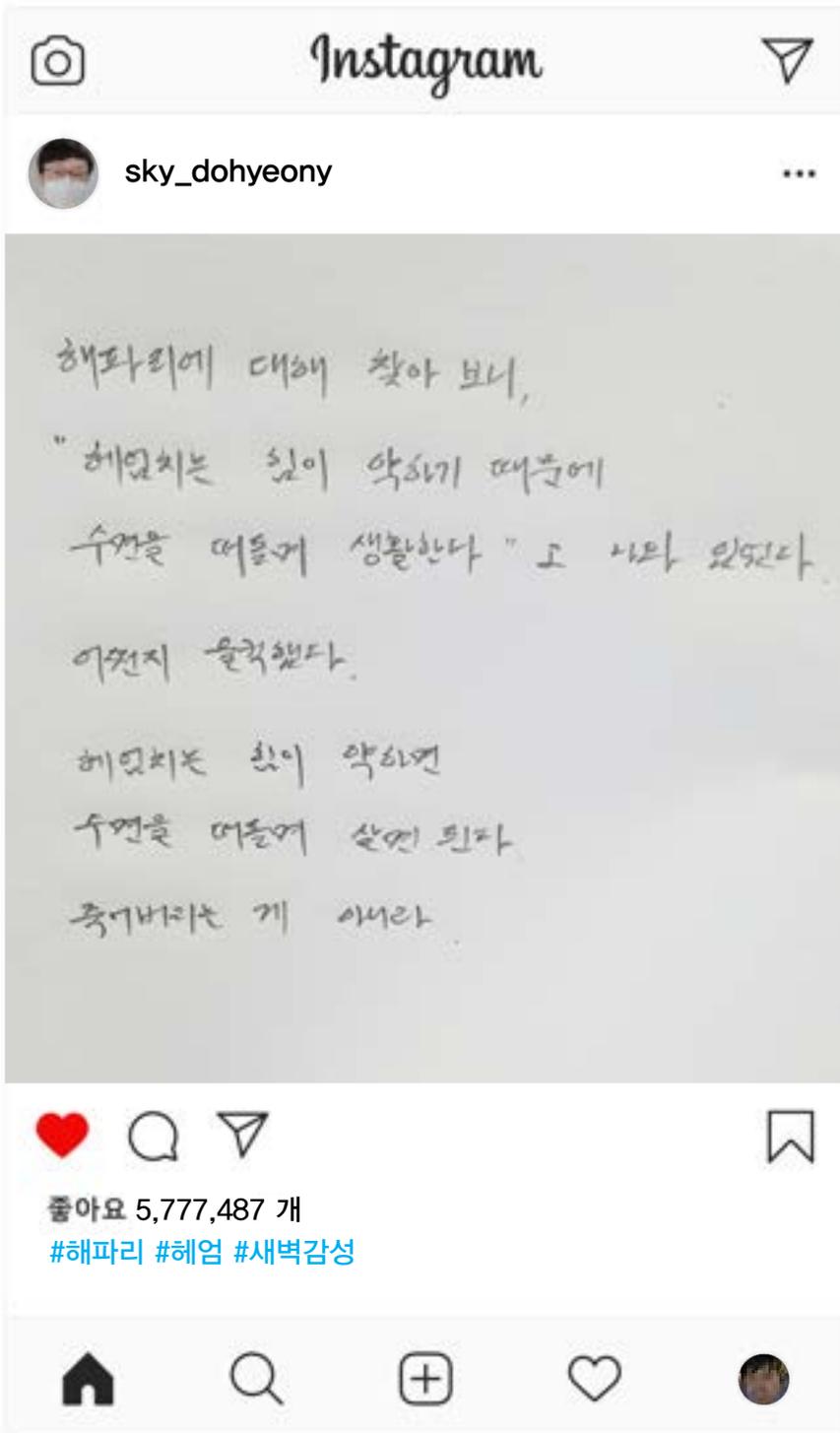
이중언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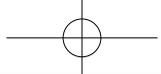




최상규 선생님







BACK TO THE HANE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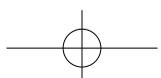
한지을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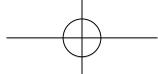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Q1. 하늘고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하늘고는 무엇인가요?

우선 하늘고등학교의 10주년 매우 축하합니다 짹짹 4기 5기 하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주년이라니 늘고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구나 나이 먹은 걸 축하해야하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한다 야 10년동안 백운산 옆에 서있느라 고생했다 앞으로도 굳건하게 서있어라.

하늘고는 짧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그리워지는 순간이자 공간. 아마 앞으로 나이를 더 먹어도 하늘고에서의 3년은 평생을 그리워할 것 같아요. 웃기게 써달라고 했는데 너무 감성터졌죠 이런. 저도 지금 약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졸업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초여름 아침 아무도 없는 미디어 스페이스의 조용함이든가 11월 싸늘해진 백운산 가을 공기라든가 면학시간을 핑거먹고 수다를 떨러나오던 복도라든가 심심할 때마다 치러가던 체육관 구석의 갈색 피아노라든가 간간히





Back to the haneul

교실과 면학실에 출몰하던 노린재라든가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다보면 또 괜히 아련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늘고’는 저에게 이런 아련함과 그리움을 주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Q2. 선생님의 학생시절은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일탈 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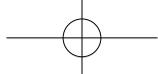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일탈썰을 선생님들이 다 보는 교지에 풀어도 될까요? 제가 함부로 일탈썰을 풀었다가 다들 알게 돼서 여러분의 일탈 루트가 막히면 안되니까 자세하게는 안풀겠습니다(짱긋).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탈의 대부분을 저는 해봤을 겁니다.

사실 매 순간이 일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절대로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던 마이웨이 양아치였습니다.

저는 소소하게 반항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열심히 했구요 하라는 건 안했습니다(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매번 공부하기 싫어서 도서관으로 도망갔고 교실로 도망갔습니다. 때로는 아예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기 위해 멀리 도망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이들에 미쳐있었기 때문에 덕질하느라 바쁘기도 했구요^^

그냥 매 순간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제 아이돌 덕질이기도 했고, 물리 공부일 때도 있었고, 책을 읽는 것일 때도 있었고, 잠을 자는 것일 때도 있었고, 봉사활동이나 학교 활동이기도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자유롭고, 즐겁고, 막 사는 학교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아 일탈은 아닌데, 3학년 때 급식을 1등으로 먹겠다고 식당으로 뛰어가다 발목이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고 다 냅고도 반성을 안하고 맨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3의 식욕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처럼 발목 나갑니다.



한지울 선생님!

Q3. 어떻게 다시 하늘고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교사를 꿈으로 가지면서 언젠가 한번쯤은 꼭 하늘고에 교사로서 돌아오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학생으로서 다닐 때와 교사로서 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일종의 호기심?

그리고 나는 졸업생이니까 학생들을 훨씬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했던, 그리고 제 친구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타이밍도 좋게 기회가 딱 왔고 저는 그 기회를 덩싹 물었죠.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저에게 하늘고등학교는 힘든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훨씬 많은 곳이 었기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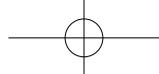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Q4. 학생&교사 다른 생활을 하늘고에서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급식이 다릅니다. 훨씬 맛있어졌더군요. 부럽습니다.

뭐가 다를까, 그 호기심을 충족하러 왔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전 제가 교사와 학생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서의 기억이 너무 짙게 남아서 아직까지 내가 하늘고 교사다! 하기에는 쩌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학생일 때는 금지되는 것이 훨씬 많았는데 교사는 그런 게 없으니 낯선 느낌? 학생일 때는 금지된 것을 깨부수는 재미가 있었는데 교사로서는 학생으로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는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도 자주 놀러오는 게 달라졌어요. 너무 귀여워ㅠㅠ



Back to the haneul

Q5. 하늘고를 추천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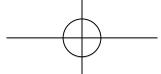
저는 강추합니다. 저는 하늘고에서 얻은 게 휘얼씬 많습니다.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중학교 3학년 시점으로 되돌아가도 반드시 하늘고에 지원을 할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늘고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 대학 입시에 실패했더라도 아마 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로서 되돌아 온 것에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Q6. 하늘고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하고픈 얘기를 다 쓰면 교지 한 권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정시 수시어느것도포기하지마세요스스로를속이면서공부하면안돼요하고싶은걸오래오래잘생각해보요타인이아니라내가정하는길을가세요대학잘가면좋지만대학이전부는아니에요진짜입니다이기적으로굴면어차피나한테다돌아와요서로더불어서잘살아가요 이런 얘기를 다 하고싶지만 최대한 덜 끈대같이 잘 추려보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학생 여러분 a.k.a. 후배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합니다. 24시간 학교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내내 붙어있으면 힘든 게 당연해요. 미래는 캄캄한 것 같고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나 빼고 다들 잘난 것 같고 교실 베란다에서 자유낙하 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평평 울고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 힘들에만 빠져서 즐길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고등학교는 즐거운 게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그리고 다닌 3년 동안만 겪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3년이 되면 좋겠어요. 힘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을 거예요. 꼭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고등학교가, 하늘고에서의 이 시간이 평생을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길 꼭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를 미워하지 말아줘요. 우리 모두 간지나는 물리합시다!



박미리 선생님!

Q1. 하늘고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하늘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아주 큰 졸업생 중 한 명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 등 그것들이 모두 이곳에서 비롯되었거나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사회에 나가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자신이 나온 학교에 대해 자부심이나 애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게 하늘고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Q2. 선생님의 학생시절은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일탈 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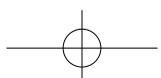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암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일탈과 교칙 위반을 했달까요. 학교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외출하고 몰래 사온 닭강정이나 인디오븐 소시지 빵. 딱 한입을 먹더라도 그냥 다같이 모여서 나눠 먹었던 게 정말 즐거웠었어요. 기숙사에서 본 영화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열정과 냉정 사이>. 저희 때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없었어서 아쉽네요. 이 밖에도 외출 나가서 한참을 돌아오지 못해 학교가 뒤집어진 일과 댓글 이벤트에 당첨되어 학교에 인디밴드를 초청했던 일 등등이 있네요.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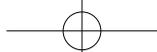
Q3. 어떻게 다시 하늘고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졸업을 하고 나서 살짝 공백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고민을 했을 만큼 흔쾌히 수락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와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작년에 교육실습을 나왔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준 당시 1-7 친구들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thanks to).

Q4. 학생&교사 다른 생활을 하늘고에서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달라서 어색하고 아직까지도 적응이 필요한 점은 학교 안에서의 정체성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학생일 때는 정말 '내 학교' 라는 생각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누비기도 하고, 친구들과 떼 지어 몰려다니며 큰 목소리로 떠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마냥 학생 때처럼 생활할 수가 없네요. 아 그리고 학생 때는 하늘고에서 근무를 하게





Back to the haneul

되면 선생님들이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 주시는 게 마냥 재미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상황에 처해 보니까 동일한 취급과 대우를 받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답니다.

Q5. 하늘고를 추천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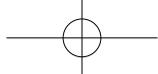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물론 다른 학교들보다 제약이나 스스로 다잡고 규율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만큼 또 학교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그렇기에 쌓을 수 있는 추억이 남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Q6. 하늘고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중환 시인의 <산벚나무>라는 시입니다.

아직 산벚나무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개울물 흘러베리는 소리 들으며
 가지마마 살갓에 화색이 도는 게 보인다
 나무는 희망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았지만
 절망을 만나서도 작아지지 않았다
 묵묵히 그것들의 한복판을 지나왔을 뿐이다
 겨울에 대하여
 또는 봄이 오는 소리에 대하여
 호들갑떨지 않았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박해지지 않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오만하지 않았다
 묵묵히 묵묵히 걸어갈 줄 알았다
 절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
 희망을 무서워할 줄 알면서



이채영 선생님!

안녕 애들아 채영쌤이야. 하늘고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지편집부 친구들이 쌤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과연 내가 너희한테 의미있는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하늘고에서 공부할 때는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지만 졸업 후, 20대가 되면서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통해 더 큰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늘고에서의 학창시절은 참 좋았었다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더라구. 너희 또한 하늘고에서의 생활이 밑거름이 되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있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몇 자 적어볼게.

Q1. 하늘고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하늘고는 무엇인가요?

나의 열정과 성장이 담긴 곳

Q2. 선생님의 학생시절은 어떠셨나요?

매우 모범생 ^^ (선생님들 다 기억나시죠~??)

Q3. 어떻게 다시 하늘고로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하늘고 3년 제외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수원에 살아서 졸업하면 해외여행 말고는 다시 영종도 올 일은 없을거야 이랬었는데, 어찌다 보니,,,다시 돌아와버렸네 ㅎㅎ후,,, 졸업을 앞두고면서 제약회사, 미국 대학원에서 생물교육 공부, 해외에서 생명과학 선생님 진로 중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하늘고에서 시작했어.

Q4. 학생&교사 다른 생활을 하늘고에서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하늘고를 추천하는 이유!

사실 변한 것 같으면서도 안 변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명확하게 뭐가 다르다고 고르기가 어렵네. 공부, 면학, 활동, 규칙들이 우리 때가 조금 더 빠시다는거? 라는 때는 말이야~ 하면 젊은 끈대라고 하던데, 난 아직 아니야,, 믿어줘,, 쌤도 다시 학교로 오게 되면서 하루하루 많은 생각들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보내왔던 것 같아. 학생들 보기를 제자로 보고, 사랑스런 후배로 보며, 학생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선배님으로 보아주어서 나와 학생들 사이에 친밀감, 공감대가 특별하게 형성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 더불어 너희들의 학습 향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지도가 잘 형성되어



Back to the haneul

서 이상적인 사제관계 속에서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내자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구.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너희를 통해서 해소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큰 힘은 나의 스승들이자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셨던 것 같아. 처음엔 나를 채영아~가 아닌 채영쌤~이라고 불러주시는 호칭에 정말 어색하고 제발 편하게 불러주세요ㅠㅠ했는데, 사제지간이지만 동료교사로 선생님들을 옆에서 더 많이 보면서 듣고 배우면서 학생 때 못지 않게 사회에 진출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서 올해 스승의 날에 나도 우리 학교 쌤들한테 스승의 날 감사 인사를 직접 드렸다ㅎㅎ 만일 어리광만 부리고 싶지 않고 정신적, 실무적 버팀목이신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니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과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려고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잔실수는 많은편이야...허허...선생님들이 함께 계셔 정신적으로 든든한 만큼 나도 너그러운 교사가 되어 너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다.

Q5. 나의 후배이자, 제자이자, 소중한 인연인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

1) 체력과 정신 건강을 챙기는 일을 중요시하기

밥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해. 남의 시선을 신경쓰는 것보다 내 생각은 어떤지, 난 어떻게 결정하고 싶은지, 모든 주체는 '나', 스스로가 정해나가자. 내 뜻대로 되는 일도 많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도 늘어가.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학교생활을 거치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기게 되면서 그만큼 내성도 생기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들도 빨라지리라 장담한다.

2) 나만의 소.확.행 찾기!

하늘고에서의 생활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현실 속에서 나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약간의 좋고 기쁜 추억거리들을 자주자주 만들어보자. 사람마다 먹는 거, 운동, 친구들과의 대화, 일기 쓰기, 책 읽기, 유튜브 영상보기, 혼자만의 시간 보내기 등등등 다를 수 있는데 공부하면서 지친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요소들을 정해보자.



합격 선배가 알려주는 공부법

합격 선배만 알고 있는 공부의 전략과 기술을 전수하다!

100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할까요?

시간 관리

방학에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스트레스로 슬럼프가 왔어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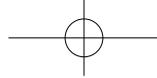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노하우

등급 UP!

공부법

계획표

과목별로 똑똑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김동현 선배!

1. 나만의 수학 공부법

수학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간과하는 “개념”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념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문제집을 7-8권 정도 풀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푸는 이유는 본인이 틀린것을 찾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저는 실수한 문제는 파란펜으로 이유를 적어봤고 별표 친 문제나 맞췄어도 중요한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답지를 보지 않고 도전해보면 점차 사고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2주전부터는 오답노트를 3-4번 정도 돌리고 기출문제 시간 재고 매일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2. 방학 중의 수학 공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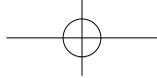
방학때는 다음 학기에 있을 수학 과목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방학 때 공부할 모든 과목들에도 해당하지만, 마음가짐은 “학교 가서 공부 안해도 될 정도로 끝내겠다” 정도...?ㅎ 방학때 미리 개념공부를 끝내고 문제집은 3-4권 정도 풀어두는 게 유리하답니다.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방학 밖에 없습니다!

3. 전반적인 학교 생활 꿀팁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노력한 과정, 그리고 그 시간동안 쌓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어쩌면 나보다 노력을 하지 않는 친구가 더 잘해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결국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즐기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답니다. ㅎㅎ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말 못할 힘든 때도 사실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겨울 때, 본인이 지금 99도의 상태가 아닐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금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가현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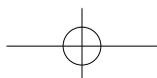
1. 나만의 국어, 사탐 공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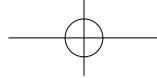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국어 공부의 핵심은 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모의고사 등급은 늘 안정적인 편이었지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적어도 주말마다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저는 독서가 어려워서 문학 풀이시간을 최대한 줄여 시간을 확보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원리를 ‘정리’하며 지문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과학이 생소하고 어려운 저에게는 이것이 과학지문을 가장 국어답게 푸는 방법이었어요. 언어와 매체는 사실상 문법과 다름없어서 문법 공부에 힘을 쏟았는데, 공부할수록 처음 보는 내용이 계속 등장해서 공부의 끝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원 및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한 문제집을 통해 고빈도 유형을 기계적으로 풀이할 만큼 학습하고, 동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을 꾸준히 접했어요.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 제시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는 정도로 안목을 길렀고요. 정기고사는 모의고사와는 다소 경향이 다르지만, 대체로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정기고사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탐의 경우 방학 중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다음 학기에 배울 과목의 개념을 예습하고, 학기 중에는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기출문제를 한 번 풀 다음에는 틀린 문제, 정확한 풀이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했어요. 정기고사 준비기간에는 정리해둔 오답 풀이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 교재 및 부교재를 복기했는데, 특히 정기고사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2. 시간 관리하는 방법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 3학년이 되고도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에서 주 단위로 대충 짠 계획에 따라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험 기간마다 계획한 양의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해 벅락치기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며, 3학년 때는 공부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 6시 40분에 등교해서 8시 30분까지 그 날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꼭 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공부량을 안다는 가정하에, 할 일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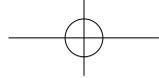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한 순서대로 쭉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겨우 10분인 것 같지만 하루만 모아도 50분이예요. 저는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해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후 면학 시간과 연장까지 더하면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10~11시간의 공부 시간이 확보돼요. (저의 경우 밤에 정신이 또렷해서 연장을 했지만, 연장 때 졸리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주저 없이 비연장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낮에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연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지도 모르지만, 스톱워치를 활용하면 내가 공부한 시간이 눈에 보여서 생각보다 정말 뿌듯하고 재미있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공부의 재미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시험 전까지 계획한 공부를 모두 마치고도 밤을 새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신 저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쉬는 시간도 꼭 가졌어요. 주로 간식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며 논 것 같네요. 또, 충분히 자야 다음 날도 또렷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 기숙사에서는 쓰러져 잤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자면, 저는 하늘고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별 과제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에 쓰는 시간과 공부 시간 사이의 중용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비교과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쓴 만큼 얻은 것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데...’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대입은 저와는 또 다르게 진행되겠지만, 대학 진학이 목표라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비교과 활동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공부 시간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3. 스트레스 해소 방법

하늘고에서는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정말 많죠. 저는 학업보다는 다른 일들로 힘든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 겠죠? 늘 저와 붙어있는 그 친구들이예요. 가끔은 울면서 하루를 날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그 하루를 꼬박 옆에서 같이 울어줬어요. 친구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고, 친구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인 그런 소중한 관계죠. ㅎㅎ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늘 내 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늘고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씩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에게 하늘고에서 보낸 3년은 짧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동시에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힘든 만큼 얻은 게 너무 많아서 하늘고에 온 걸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위에서 말한 친구들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많은 경험을 얻었죠. 당시에는 힘들기만 했던 일들도 돌이켜 보면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들이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 경험, 인간관계에서의 경험... 저도 겪었고, 후배님들도 겪고 있을 이런 경험의 과정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훨씬 능숙하고 여유롭게 해낼 테니까요. 그러니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고, 기쁠 때는 충분히 기뻐하면서 잊지 못할 고등학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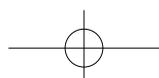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이채연 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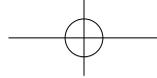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1. 나만의 사탐 공부법

사탐을 공부할 땐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수특같은 기본서를 여러번 반복해서 읽었는데, 간단한 단권화를 이용했어요. 수특을 단권화 책으로 고르고, 다른데서 공부한 내용이 수특에 없다면 간단히 수특에 메모하는 식으로 책을 알차게 만들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기간이 되면 수특을 세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반사회에 강했던 편이라(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윤리와 친하지 않았는데, 그런 과목일수록 오답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탐구를 공부할 때 꼭 마더텅을 풀었는데, 마더텅엔 기출이 많으니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면서는 단원별로 헛갈리는 선지를 정리해서 공부했어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를 모아서 오답노트를 간단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우리학교엔 이미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모르거나 헛갈리는건 알때까지 질문하기!

2. 시간 관리하는 방법

사실 하늘고에서의 공부시간 확보라면 놀고싶은 마음을 꼭 눌러야하는게 답인 것 같아요... ㅠㅠ 먼저 수업이 있는 평일은 정말 주어진 면학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서 즐지 않고 면학하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공부





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엔 학교가 시끄럽다보니 집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 제겐 유용한 시간이었어요! 라면을 먹고 다시 자지말고 학교로 와서 자습시간에 노트북을 최대한 절제해서 보고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수행평가나 대회는 최대한 빨리빨리! 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3.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도 체념하는 사고방식을 정말 꺼리지만, 당장의 힘들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다가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것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는 ‘결국 해야한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쌓이는 스트레스는 친구들과의 수다로 공부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지며 해소했던 것 같아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인지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어요!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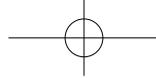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좀만 더 화이팅!!

최승인 선배!

1. 이과수학, 국어 공부법

수학 문제는 크게 개념과 1:1로 대응되는 문제와, 그런 문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모의고사의 3점이나 쉬운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념과 공식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짚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자는 모의고사의 어려운 4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가) 조건으로 A라는 정보를 얻어내고, 이 A와 (나) 조건으로 B라는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이 B를 해석해 보니 답이 나오더라, 는 식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 3개의 작은 문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 하나하나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혼자서 많이 분석해 보면서, 처음 보는 문제도 꿰뚫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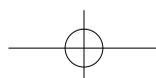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다. 국어는 꾸준히 밑바탕을 쌓는 것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문학작품 해설집을 꾸준히 돌려보면서 화자, 상황, 정서, 표현상의 특징, 구조적 특징, 자주 쓰이는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 판단의 근거를 해설지의 해설과 비교하면서 출제자가 어떤 논리로 답에 이르렀는지, 답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이용했는지 등등에 주목했습니다. 비문학은 법과 경제 등 지문보다도 개념 자체가 더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 개념 공부를 우선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후로는 해설지나 인강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지문만을 단서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렸으나, 끝까지 제 힘으로 물고 늘어지며 스스로 납득이 가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비문학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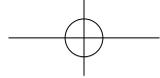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2. 시간 관리하는 방법

전 연장 면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식사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 시간으로만 따지면 꽤 낮은 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시간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공부에 집중할 시간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졸리고 피곤한 몸으로 연장 면학이랍시고 책상 앞에 앉아봤자 실제로 집중할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단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깨어있었다는 의미 없는 뿌듯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밤늦게, 밥 먹으면서, 쉬는 시간 교실이 떠들썩한 가운데 공부에 집중하는 건 무리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런 시간에 쉬고, 대신 제게 주어진 시간에 제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집중이 잘 안될 때는 문법이나 탐구 등 암기과목 문제풀이를 하면서 하루 정한 공부량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3.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제 공부가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서, 따로 해소해야 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인 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루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상으로 뇌를 혹사시키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도저히 집중이 안 될 때는 잠시 공부를 멈추고 노트북으로 만짓하거나 살그머니 체육관으로 내려가 피아노를 치곤 했습니다.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공부든 잠이든 연애든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할 때 하고 쉴 때 쉬세요. 선생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항상 하늘고 학생답게 품격을 지키세요.

김수환 선배!

1. 나만의 과탐 공부법

개념 문제의 경우 암기가 필요하고 개념을 활용하여 시험에 나올만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저의 경우 시험 볼 때 긴장해서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긴장만 안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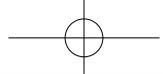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2. 등급 올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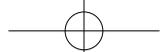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과탐 자체가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힘들게 개념 이해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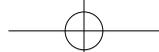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3. 과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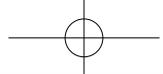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포기의 원인은 어려워서! 그리고 개념을 암기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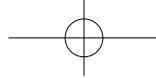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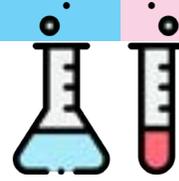


컨퍼런스

201

멀티실

대회의실



강당



하늘

체육관

운동장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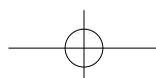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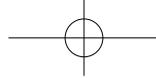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도서관

미술실

5층 데크





매점

310

309

체육대회



**급식실
앞 데크**

마블

**무한
상상실**

1.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공을 정해주세요!
2. 각 칸에 갈 때마다 해당이 되면 앞으로 가고,
해당이 안 될 시 한 턴을 쉬어주세요!

체육대회

구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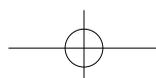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본교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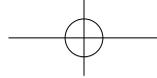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면학실



음악실

학술제





운동장 : 애인이랑 산책한 적 있으면 앞으로 한 칸 고!

강당 : 강당에서 노래 불러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체육관 : 피아노를 쳐 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컨퍼런스 : 당신은 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한 턱을 쉬어주세요.

201 : 몰컴해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멀티실 : 프린트하다 오류나봤음 앞으로 한 칸 고!

대회의실 : 과자먹다 걸려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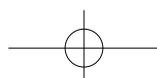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메점 : 카뽕 해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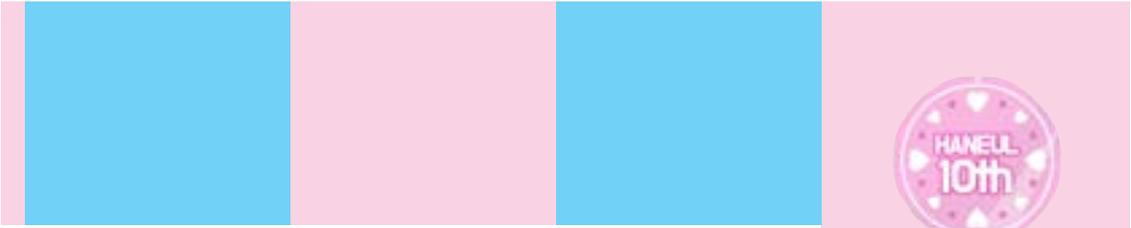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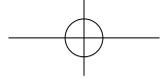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310 : 당신은 몰컴하다 걸렸습니다. 한턱 을 쉬어주세요.

309 : 몰래 게임 해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급식실 앞 데크 : 야밥 해봤다면 앞(으로) 한 (칸) 고!

무한상상실 : 무한상상과정 해봤으면 앞 한 고~!





체육대회 : 당신은 체육대회 계주로 뽑혔습니다!
 앞으로 두 칸 달려 달려~!
 (가위바위보 이길 시, 지면 한 턴 쉬기!)

구름다리 : 구름다리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음악실 : 개인 연습실에서 피아노 잘 치는 척 해봤으면
 앞으로 한 칸 고!

면학실 : 면학 두 타임 자느라 날려봤으면 앞 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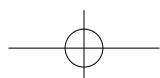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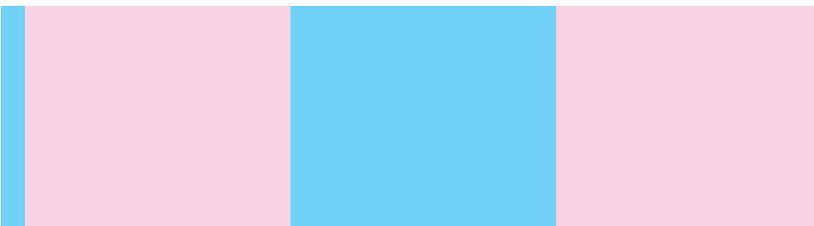
학술제 : 당신은 너무 신이난 나머지 공부를 안해
 기말고사를 망쳤습니다. 한 칸 뒤로 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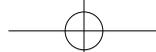
본교무실 : 교무실 가서 쌤이랑 상담해봤으면 앞 한 고!

미술실 : 미술실에서 데크로 나가 놀아봤으면 앞 한 고!

도서관 : 도서관에서 책 읽어봤으면 앞 한 고!

기숙사 : 라면 먹다 별점 받아봤으면 앞 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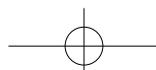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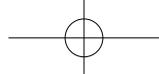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하늘 라디오!

늘고쌔

~ 이에성 학생의 늘고쌔 ~

때는 3월에 식사를 옮긴 지 며칠이 지난 날
 갑자기 면학시간에 가희쌤이 날 밖으로 불러냈지
 그래서 머선 일인가 싶어서 들어보니 누가 내 속옷을 주웠다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지
 효진쌤한테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한 3시간 가량 수치심에 찢어 있다가
 효진쌤한테 가서 찾아왔더니 맙소사
 입었던 속옷이었음...
 그게 정갈하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었음...
 난 진심으로 입었던 게 아니길 바랐는데
 이런 C..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들어보니
 내가 518호 침대 밑 서랍에 그대로 두고 갔다네?
 그니까 내가 두고갔던 속옷을 1학년이 주워서 은정쌤한테 갖다 준 거지...
 무려 3명의 선생님들이 날 붙잡고 물어봤지.
 예성아 속옷 찾았어?
 ... 네 찾았어요...
 + 이후 룸메 바꿀 때 양태호 쌤이 연설하면서 속옷 잘 가져가라고...





~ 옥예린 학생의 늘고쌤 ~

집에가지 못한지 3주째되는 날이었어요. 단발이었던 제 머리는 점점 거지존에 진입하고 있었지요. 미용실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주말외출 신청 타이밍을 놓친 저는 우울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따라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룸메한테 달려가 말했죠. 미용가위 챙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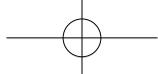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준비를 끝내고 길이를 맞추고 자를까 말까 10분 동안이나 끝까지 고민하다가 잘랐습니다. 비뚤어지는것을 막기위해 거의 예술 작품처럼 정성들여서 잘랐더니 어느새 새벽 1시 반을 훌쩍 넘기고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라면을 걸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희쌤이 저희도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똑똑 하더니 '나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화장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딱히 둘러댈것도 없더라군요.

문을 열었을 때 가희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 어이없어 하시더니 너 희의 머리 자르고 싶은 욕구를 인정한다는 듯이 박수 한번 쳐주시고 10분안에 마무리하라고 하셨죠(가위도 안뺏김)

그리고 3일동안이나 볼때마다 잘 잘랐다고 칭찬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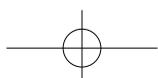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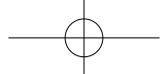
하늘 라디오!

늘고썰

~ 고별하 학생의 늘고썰 ~

때는 2학년 여자 면학실 자리를 바꾸는 날이었어요. 창가 자리를 득템한 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제 new 자리로 향했죠. 아직 전에 자리를 쓰던 친구가 짐을 옮기는 중이었던지라 창가에 문제집들을 쌓아놓고 짐을 다 옮겼다는 성취감에 취해 잠시 복도에 나가 한숨을 돌리고 오던 찰나였습니다... 쌓아놓았던 짐을 정리하러 자리로 돌아온 저는.. 보았습니다.. 하하.. 제가 잠시 나갔던 사이 누군가 제 문제집들이 쌓인 창가의 창문을 열어놓았더군요. 그래요.. 많이 더웠었나봐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창가로 다가가보니 열린 창문 쪽으로 제 문제집들이 와르르 무너져있더라구요. 그때부터였던가요..? 제 문제집들이 창문 밖으로 추락한게..?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저의 문제집들이 후두둑 낙하하는 모습을..... 쓰다보니 다시 생각나네요. 황당했던 그 모습. 문제집의 추락사를 목격한 저는 그 자리에 5초 정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구요? & 에휴 떨어졌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무려 &창문 밖&으로 떨어진 최악의 사태. 그걸 깨달은 저는 10초간 충격에 빠졌고, 다음으로 &교지에 실을까?&라는 생각을 한 저도 참 레전드네요. 미친 직업병.. 충격에서 허우적댄 뒤 바로 저는 후문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지킴이 선생님께서 말하시길, 행정실 후문에 있는 풀숲에 떨어졌을것이니 내일 아침에 행정실을 가보라 하셨죠. 저는 교지 두 권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창문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내려다봤을 때 크기가 작아보였거든요. 세상에. 짐 정리를 하는데 떨어진 줄 알았던 교지들이 멀쩡히 있더라구요?.. 정말 공포가 아닐 수 없었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것인가.. 그렇게 심란한 마음과 함께 면2가 되어 201로 향했어요. 친구가 그러더군요. 오늘 밤.. 소나기가 예정





되어있다고..... 정말x999 심란했어요. 기숙사에 가서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간절히.. 빌었고, 찌으로 비가 안왔더라구요^^(개이득)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확인한 뒤 조례를 마치고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슬리퍼 신고 행정실 남자 선생님과 함께 풀숲을 뒤져서 무사히? 책들을 다 찾아냈다는 이야기..^_^;; 자이스토리, 마더텅, 인강 교재 등 약 6권이 떨어졌었다는.. ㅎ

~ 이에린 학생의 놀고셈 ~

때는 바야흐로 교지편집부 고*하씨와 506 첫 룸메로 만났던 시절이죠... 순수했던 저희는 배달음식도 라면도 시켜먹지 않았어요... 룸메가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방 바꾸기 일주일 전부터 헐레벌떡 일탈을 시작했답니다^^.. 일탈이라 해봤자 라면... 별점을 받기 싫었던 저희는 라면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깔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답니다. 바로 섬유유연제 흘린 척 바닥에 뿌리기였는데요. ㅋㅋㅋㅋㅋㅋ 신발장 앞에 섬유유연제를 잔뜩 얹어놓고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닦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은정쌤이 놀라실 생각에 행복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굿나잇 체크를 하러 들어오신 은정쌤도 당황하시며 "어머 어떡해 빨리 저 수건으로라도 닦아!!ㅠㅠㅠ" 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라면 냄새는 나진 않았지만 미끄러워진 바닥에 넘어질까봐 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ㅋㅋ 결론은 비추!

미끄러운 거 진짜 일주일 갑니다 ㅎㅎㅎㅎ...





하늘 밸런스 게임!

더 짜증나는 애

뭐든지 알리미
선생님 오늘 00할 날 아닌가요?
오늘 00모둠 발표할 차례아닌가요?

황금
밸런스

뭐든지 남한테 떠맡기는 애
아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아 숙제 니가 대신 좀 해줘~
아 과제 니네가 좀 대신해~

급하게 나갈 때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세수
눈곱은 때야지
얼굴이라도 씻자...

황금
밸런스

머리 감기
머리 기름 못 참아
정수리 냄새...

더 개꿀 상황은?

수업시간 50분
쉬는시간 10분
매일 5교시

황금
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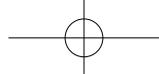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수업시간 30분
쉬는시간 5분
매일 7교시

시험 보는 중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연필이나 지우개에
번호 찍고 골라서 나온 거
찍음

황금
밸런스

강 벨 오는 대로
찍음



학교 가기 더 싫은 날

그 날 들어있는 모든 과목이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네

황금
밸런스

왠지 오늘따라 너무 피곤한
비 오는 날

학교에서 더 최악인 상황은?

수업시간에 졸다 들켜서
애들 앞에서 혼남.
졸다가 침 흘렸음

황금
밸런스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
께 걸려서 애들 보는 앞
에서 손 들고 서 있기.
겨땀 난 상태

한 상황만 고른다면?

모든 시간표가 수학
(자신이 만나봤던 쌤 중에
가장 무서운 쌤이 문제만 풀라고 시킴)

황금
밸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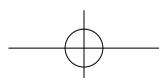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모든 시간표가 체육
(운동장만 땀)

내 성적 고르기

일등했다 꼴등했다
왔다갔다 하는 성적

황금
밸런스

상위 20% 유지하기





하늘 사진전

하늘고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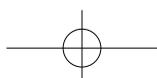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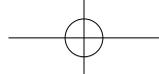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진한 초록색의 칠판보다 연한 초록색의 나무를
흰 종이 속의 검은 글씨 대신 검은 하늘의 밝은 별을
고개 숙여 문제를 풀기보단 고개 들어 주변의 풍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하늘고의
또 다른 모습이나 풍경을
우리가 학업에 몰두하느라 보지 못했던
하늘고의 아름다움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늘 사진전이란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큰 도움을 주신 생활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 이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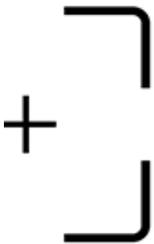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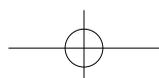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권혁 김성현 김한솔 김유빈 김시은 김지수 김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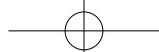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김창은 김희찬 문정현 박윤서 박소연 신서현 성수연

이서연 오지우 유혜승 이승재 왕지윤 이태림 이채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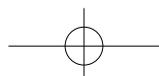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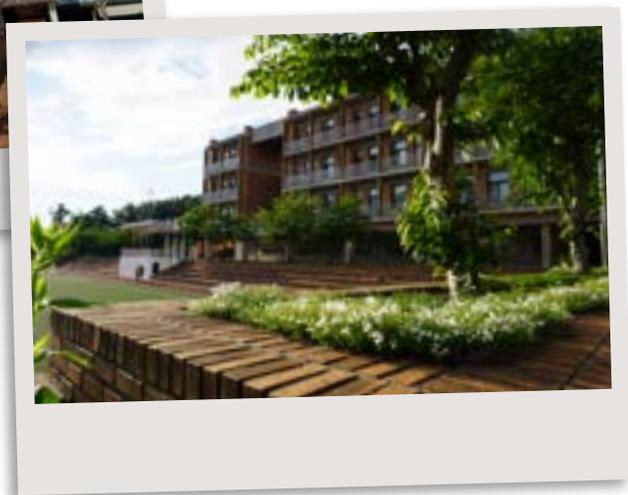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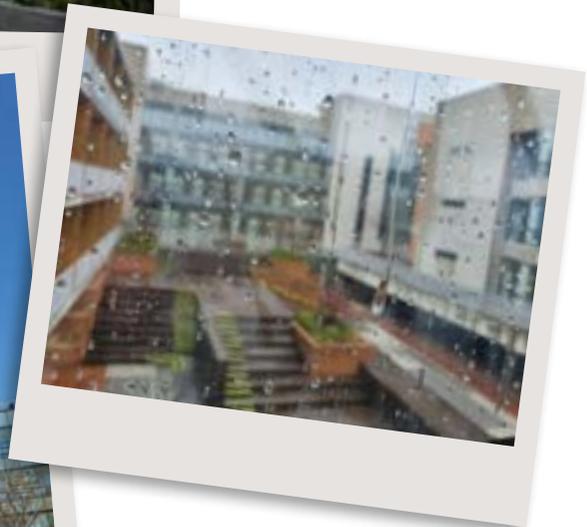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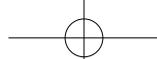
0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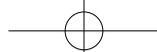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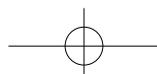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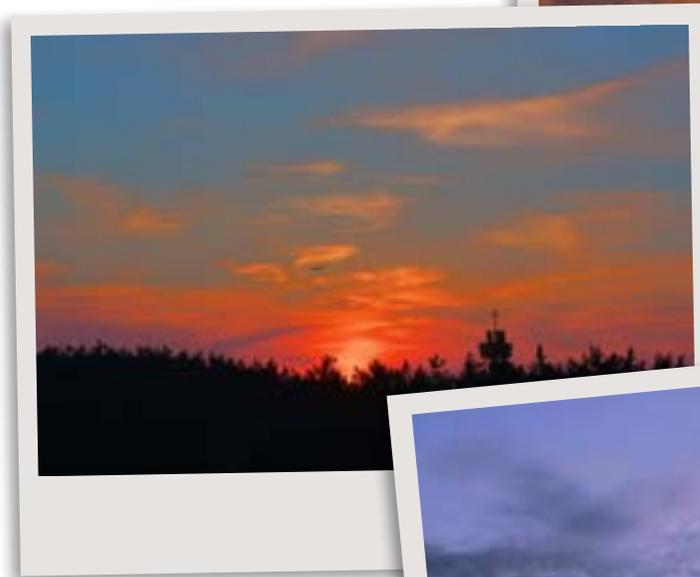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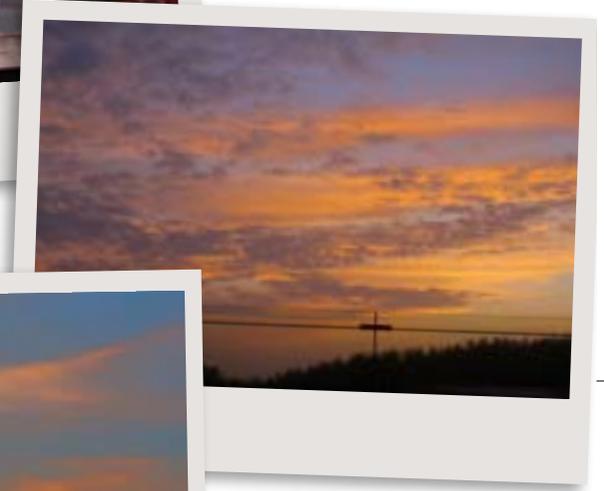
하늘고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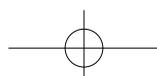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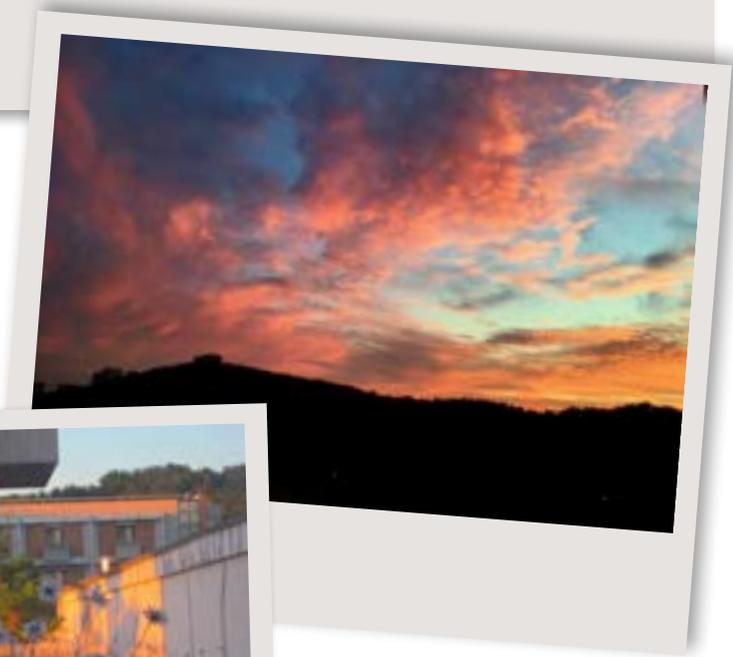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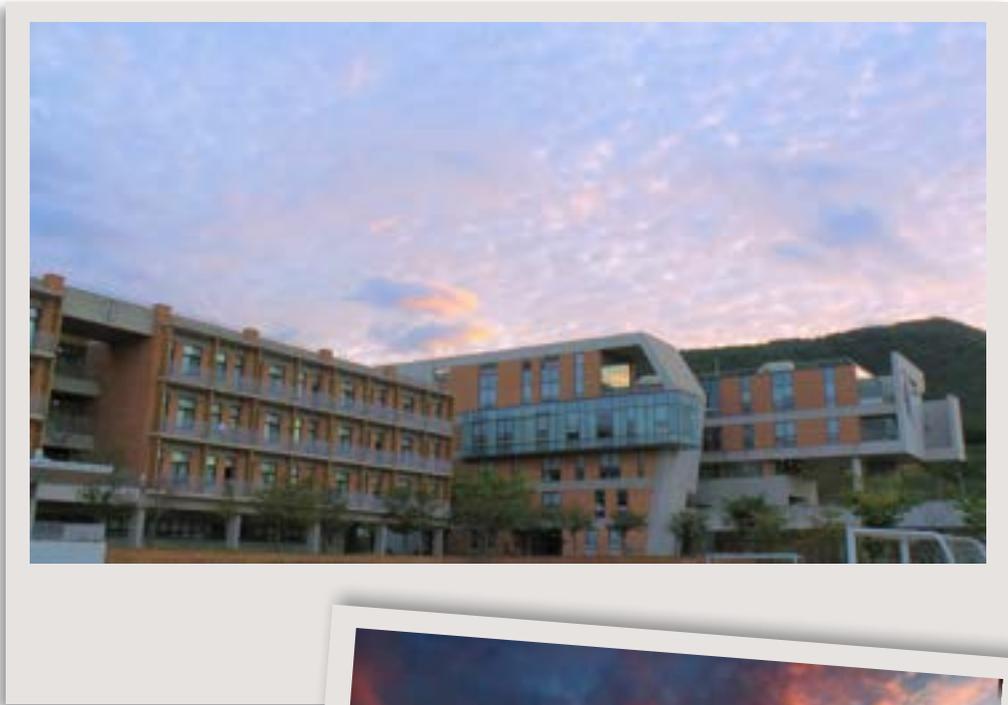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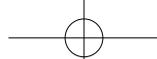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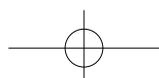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하늘고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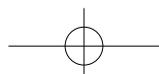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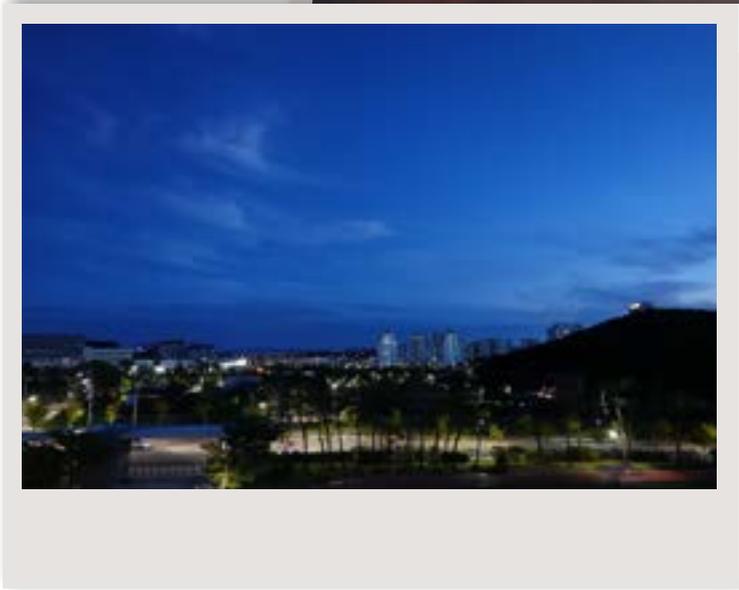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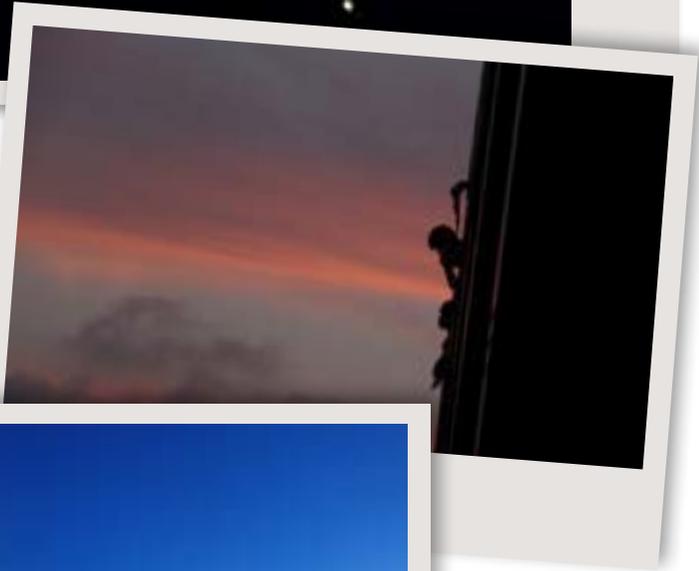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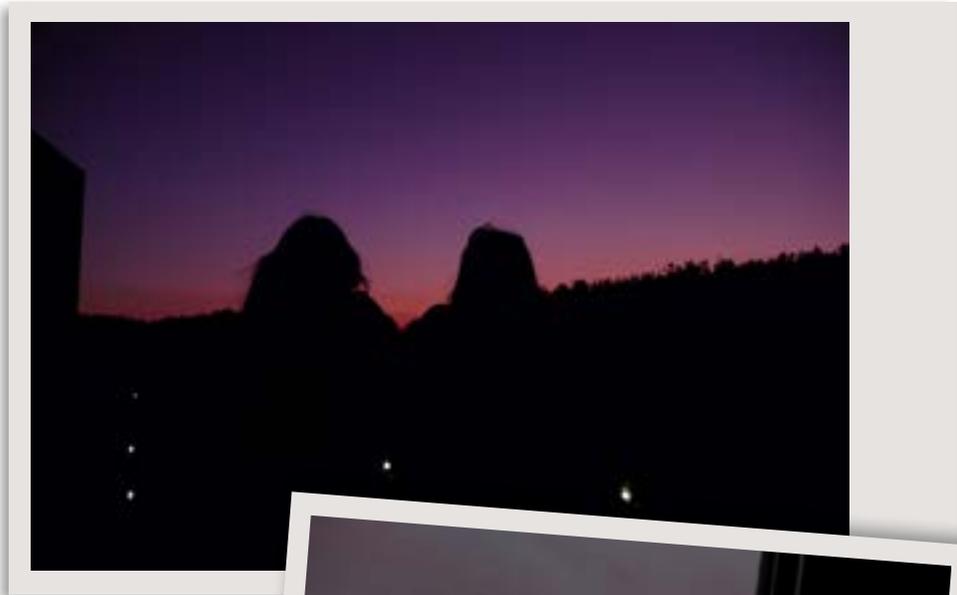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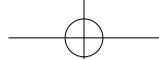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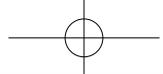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하늘고를 담다









A-TEEN



에이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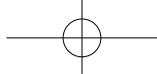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12월 21일 첫방송 ·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고문석 · 김은아 · 서진호 · 문소림 · 박지민 · 이수연

★ HANEUL

제작 | 고별하



온라인 수학여행!

지난 10월 20일, 10기 학생들은 온라인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반별로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반을 꾸며 부스를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 멕시코, 베트남, 루마니아, 하와이, 영국, 미국 서부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저희 반은 지구 밖인 달나라를 배경으로 온라인 수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스에서는 각종 먹거리를 접하고, 그 국가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각국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사실 바탕으로 한 곳도 견학하게 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수학여행이 정해졌을 때, 학생들은 직접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전부터 각 반이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부스를 꾸미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신 선생님들로부터 뿌듯하고 보기 좋았다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민 부스를 교장 선생님 및 다른 선생님들의 평가로 간식이 증정되기도 했습니다. 1등은 달나라를 배경으로 수학여행을 계획한 5반이 되었고, 차례로 프랑스로 여행을 간 1반, 멕시코로 주제를 정한 2반이 수상했습니다. 수상하지 못한 반 친구들도 이번 수학여행이 앞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여운을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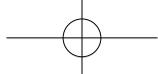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해 10기부터 견학은 물론 체육대회 및 각종 축제를 하지 못해 동기끼리 추억을 쌓을 기회가 전무했지만, 이번 온라인 수학여행을 통해 학급이 합심하고 협동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뿐 아니라 다른 반도 반끼리 함께 일을 해 나감으로써 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이런 기회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직접 그곳을 방문하는 것과 다르게 친구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문화 자체를 느끼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더 뜻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소한 나라가 많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행사에 임할 수 있어 기억에 남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하늘 TWINS!

민원·강원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원: 가장 당연한건 얼굴이죠. 딱 보면 알잖아요. ㅋ

민원: 응, 얼굴은 내가 더 낫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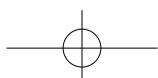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강원: 그리고 두 번째로 키, 비율, 춤 제가 더 낫죠.

민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형은 춤밖에 못 춰요. 저는 드럼하고 노래 두 개나 할 수 있는데 말이죠. ㅋ

서로 친한가요? 많이 싸우나요?

민원: 중학교 올라오고 형이나 저나 철이 들어서 많이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엄청 심하게 싸운 적은 딱 한 번 정도 있는데, 형이 항상 저를 먼저 놀리거든요. 그러다 제가 한심한 눈빛으로 반응을 안 해주면 막 때려요. 그러면 저도 신발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 또 형은 소리 지르고.. 그러다 제주도 차 렌트하는 곳에서 형이랑 둘이 버려진 기억이 나네요.

강원: 맞아요. 그 때 민원이랑 울면서 부모님 차 따라가다 무단횡단을 했는데 차에 치일 뻔한 기억이 있죠.





서로에게 부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민원: 키 말고는 없죠.

강원: 응 나는 없어~ 내가 너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으니까ㅋ

지인이 착각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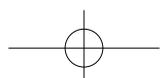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강원: 아무래도 둘이 목소리가 비슷해서 전화할 때 많이 헛갈려들 하세요.

제가 전화 받았는데 “어 민원이니?”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민원: 저도 제가 전화받으면 다들 형인 줄 아세요.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민원: 음...밥 반찬 떨어졌을 때 항상 동시에 더 주세요! 하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다 오 나도 그거 말할려고 생각했는데 ㅋㅋ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야식메뉴 정할 때는 항상 전쟁인 것...아무래도 안 통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하늘 TWINS!

서현·동환

서열이 어떻게 되죠?

동환: 서현이가 초등학교 때 저를 오빠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라고 불러요.

서현: 남들의 시선도 있는데 이제 저도 클 만큼 컸으니까 오빠라고 부르긴 쪽팔리잖아요….

동환: 좀 말이 안되는게. 엄연히 2분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반말은 좀 예의 없는 거죠….

서현: 2분이면 컵라면 익을 시간도 아닌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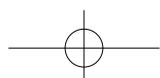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서로 친한가요? 아니면 많이 싸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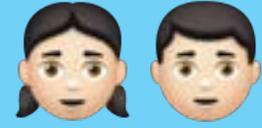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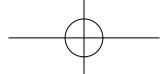
동환: 그래도 많이 친한 것 같은데….

서현: 전 친하다고 생각 안 해요. 키퍼 때마다 싸워요

동환: 애가 편식을 엄청 하는데 치킨 시키면 또 애가 다 먹어요. 좀 어이가 없죠.

서현: 아니 애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키퍼 때 떡볶이를 맨날 먹는데 저는 매운 거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걸로 많이 투닥거려요.





둘이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요?

동환: 닮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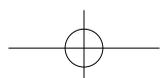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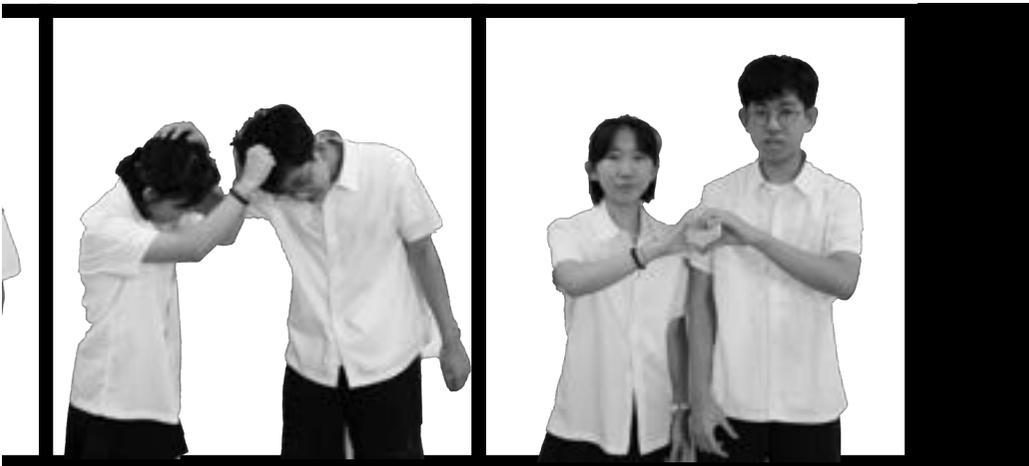
서현: 저도!! 처음에는 닮았다고 안 해요. 근데 쌍둥이인 걸 말하고 나면 눈매가 엄청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고, 쌍둥이인 걸 알아보는 거 자체가 싫어요.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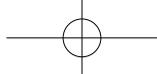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동환: 하늘고 와서는 서로 모른 척 했어요.

서현: 정했어요, 서로 모른 척 하기로. 근데 이제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

서로 경쟁 모멘트가 있나요?

서현: 컨퍼 나가면 서로 점수 까고 시작해요. 동기부여가 돼요.





하늘 TWINS!

지원·준성

둘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죠?

지원: 친구가 구글 계정 프로필로 저랑 애가 닮게 나온 사진을 해냈어요. 저는 닮았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비슷한거 같기도 해서 처음엔 그냥 생각없이 웃겼어요. 근데 그게 작년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점점 퍼지더니...

준성: 그래서 그게 저한테까지 왔어요. 누가 처음에 보여줬는데 사실 저도 전줄 알긴 했어요.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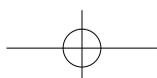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지원: 텍이 닮게 나오긴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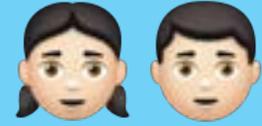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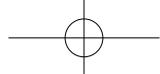
준성: ...그냥 그 닮게 나온 사진 봤을때요. 계속 닮았다 닮았다 해서 '안닮은거 같은데 왜그러지?'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닮았다는 소리 들을 때 어때요?

준성: 어떨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어ㅋㅋㅋ)

지원: 야, 너만 안좋아? 나도 안좋아!!





답은꼴로 인한 에피소드?

준성: 가끔 친구들이 저를 한지원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죠.

지원: 친구들(특히 작년반 여자애들)이 맨날 '준성아, 고준성' 이리는데.

준성: 와.. 이건 몰랐네

지원: 여자 고준성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요, 언젠는 몇몇 애들이 고준성이 여자면학실에 있으면 안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면학실에서 쫓겨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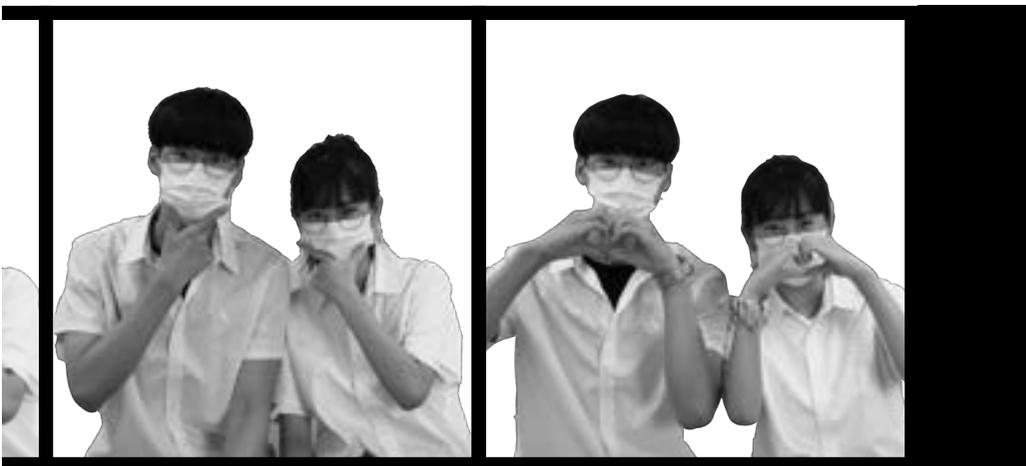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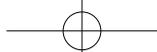
준성: 어... 거의 모든 부분이요

지원: 나도.

텔레파시가 통하나요?

준성·지원: 네? 통할리가 없죠.





신조어 테스트!



좋멋구알 :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김원석 : 좋ㅎㅋ...좋은 댓글인가? 좋은 댓글 구하면 알려주세요...?
 이런 거 못 맞추면 옛날 사람 같잖아 나 최신 사람인데...
 강선이 : 음... 아주 좋구내! 좋구만~! 아 되게 좋다는 뜻?
 김창재 :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나도 유튜브 봐~ 이런 거 잘 알아~
 이지현 : ...웁은 아니지? 좋으면 댓글달지 말고 구냥 알아들어.
 - 어 비슷한데요!!
 좋으면...이거 답 안 알려주고 내가 계속 맞춰야 하는거야?
 아니야 맞춰볼게...좋으면 댓글달고 구독 알림신청!?



삼귀다 : 사귀기 전 썸타는 단계라는 뜻

천도현 쌤 : 사귀기 전단계!!
 전민호 쌤 : 삼귀다?3이있으니까(?)..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인가?
 조기성 쌤 : 귀가 3개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떠오르는게 없어ㅠㅠㅠㅠ
 이강봉 쌤 : 삼이 석삼자야???
 그리고 귀할 귀. 그치??
 어렵네 내일 다시 와.ㅋㅋㅋㅋ 공부하고 있을게 ㅋㅋㅋㅋ
 아이 어렵다 어려워...ㅠㅠ 석 삼... 석 삼... 그냥 알려줘..
 아~~~ 그럼 그 서로 대화만 해도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뭐 그런
 거~~~?? 콩닥콩닥맞지!!1 아~~ 심작이 콩닥콩닥 하하하 하하



쩜민 :

박형준 쌤 : 재미없는 모임...(엄청난 절규를 하심)
 김일형 쌤 : 재미와 재밌는 사람을 지칭(쩜민이가 재밌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 80%는 맞추셨다고 곧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하심)
 하정선 쌤 : 재밌냐 ? 하는 반문



홀로 : 홀로+올로의 합성어

최상규 쌤 :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것?
 이재영 쌤 : 홀로 보내는 크리스마스 남친과 보내고 싶어요
 최성태 쌤 : 효도?
 김경훈 쌤 : 홀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함께 뭉쳐서 하자.





알잘딱깔센 :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한지을 쌤 :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김성근 쌤 : 알면 알수록

잘 보이고 싶더라
딱딱한 너의 말투에도
깔끔한 너의 코드에도
센치해진다 오늘도



점메추해 : 점심 메뉴 추천해줘

김민연 쌤 : 아~ 나 이런거 진짜 모르는데~ 점메추해..?

아 진짜 나 하나도 모르겠어~ㅠㅠ

- 힌트 드릴게요. 밥먹으러 가기 전에 쓰는 말이에요

점심... 메뉴.. 추천해줘~!??

송남영 쌤 : 어유 너무 모르겠다. 추가.. 점심,... '메'가 너무 어렵다ㅠㅠ

점심 메..메뉴! 추가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줘..?아! 점심 메뉴 추천해줘!!

혜민쌤 : 음..글쎄요...하하하 제가 요즘 바빠서 그런걸 모르는데 잠만요
채영쌤은 아시나??

채영쌤 : 아~ 점메추해~

혜민쌤 : 아 뭐야 아시네~ 어떡해~

채영쌤 : 힌트! 지금 시간이랑 관련있어요!

혜민쌤 : 점심...? 점심에 매점에 추울..연 해,,??ㅋㅋㅋㅋ 아 몰라용~

황나리 쌤 : 나 이런 거 진짜 몰라. 정말... 나 이런 거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못해!! 점심.. 메추리알.. 추수감사절..? 아 몰라 망했다!



임구 : 이미 구독합

고현정 쌤 : 아 나 이런 거 모른다고 진짜 몰라 . 그래서 뭐?

뭐 물어봤지? (맞추고는 싶은 심리?)

임: 임마

구: 구라치지 마? 아 몰라 몰라 야 또 뭐 있냐?

이지혜 쌤 : 임구? 임을 구하는 마음?ㅋㅋㅋ 여친, 남친 구함 같은건가? 진짜 생전
침 듣는다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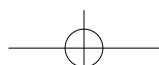
오대규 쌤 : 임마. 구경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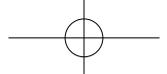
라고, 뭔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 쓰는 말이겠네.

이영중 쌤 : 임: 임시로

구: 구함. 이거 아닌가.

(정답 알려드리고 나서) 이미 구독함은 이미구 아닌가 왜 임구야...





학 생 들 의 기 싸 움

하늘스튜던츠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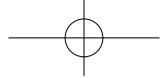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나? 인간 D:
노제, 보

재능충이 뭔
꿀 발라 놓
유학파 P

지구 정복은 내가할게.
어차피 너희는
내 발 밑이니까.

내 매력? 패기.
다 드루와.
다 패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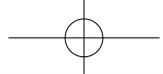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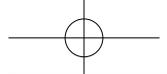
전 긍정적이예요.
절대 떨지 않아요.
긴장 1도 안하고
배틀에 임하겠습니다.
주먹 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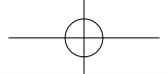
각오요?
그런거
필요 없어요.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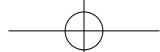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하늘고 모델인 내가
인천 대교보다 긴
다리로 다 밟아줄게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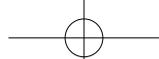
내 매력? 예쁜 눈.
남 너무 예뻐.
더이상 이를 것도 없어.











🔔 1학년 1 왕국! 🔔



쿠키 스킬 : 공포의 침묵

수업시간 중 선생님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약 11초간의 침묵과 얼음장같은 교실 분위기 만들기.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정적이 흐르지만 사실 다들 속으로는 열심히 대답하는 중이다.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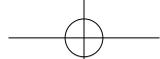
쿠키 능력기 : 의외의 성적

아무도 수업시간에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왠지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았지만... 1반은 꾸준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풍수지리설맛 쿠키

'1학년 1반 터가 좋지 않아 매년 1학년 1반 아이들이 극히 조용하다'라는 상규쌤과 성태쌤 그리고 그 외 다수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쿠키





**My dear companions. You all my blooms in my life.
Remember! Beauty begins the moment you decide to
be yourself. - 배성규 선생님**



짜글펫 : 랫소 가방과 지도
귀여운 성규쌤을 닮은 랫소 가방과
지도와 함께라면 멋진 터를 찾아
성규쌤과 알콩달콩 오순도순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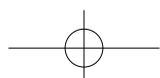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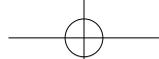
어느 날 1반에 찾아온 금자라남생이잎벌레!

5월의 어느 점심시간, 강xx 옷에 붙어서 금색 벌레가 들어왔다. 다들 기겁해서 도망
치는 와중에 1반 생물 덕후 김xx씨가 벌레를 보자마자 "어 저거 비싼 벌레데!!" 외치
고 곧바로 '금자라남생이잎벌레'로 판정.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지만, 구글 검색으
로 매니아 사이에서 약 30~5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희귀한 곤충이라는 것이 확실
해짐!! 반 모두가 (돈에 미쳐) 합심하여 눈에 볼을 쾅고 경매 사이트를 알아봤지만 마
땅하지 않았다...b 성규쌤은 벌레 몸 값을 듣고 잠깐 동공이 흔들리셨지만 그냥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자고 하셨고 벌레는 결국 다음날 방생했다는 이야기...

운영각 다구리 씹!

윤x각 다구리를 많이 당한다... 예를 들면 면1때부터 꿀잠을 자던 영x이를 간식시간까
지 자게 하려고 1반 남학생들이 단합하여 패딩 약 20개 이상으로 자리에 자던 운영
x을 그대로 덮어버린 일이 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로는 x각이가 소리를 질러도
안 들렸다고)





🔔 1학년 2 왕국! 🔔



짜꿍펫 : 네코 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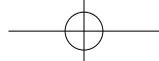
차분 발랄 낭포같은 우리반 아이들을 담은
표양이 펫~ 2반을 지켜주겠다냥! 나는 2
반의 수호냥! 농냐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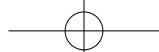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7/50



숨겨진능력자맛 쿠키





차분하면서 발랄한 귀여운 낭피같은 우리 2반! - 강선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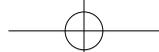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쿠키 스킬 : 공포의 침묵

역사쌤께서 질문하실 때 2반의 모든 친구들이 침묵스킬을 사용한다. 선생님께서 "대화거부?"라고 물어보셔도 침묵스킬을 사용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침묵 스킬로 선생님의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개소립니다."

쿠키 궁극기 : 물개 박수

수업 시간 갑자기 다같이 박수를 미친 듯이 치는 기술. 상대, 즉 선생님을 당황시켜 수업 시간을 끌 수 있고 분위기 반전을 유도한다. 대부분 한문시간에 사용하는데 가끔 선생님께 "뭘 잘못 먹었니"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한 달에 한 번 가능하여 희귀한 기술이다.





🔔 1학년 3 왕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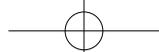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쿠키 스킵 : 잠들기 10초 전 꿈속 세상
 잠에 들면 꿈속 세상으로 들어가는 스킵!
 30초마다 졸음갬 젤리를 투척한다. 쿠키가 이를
 먹으면 각성한다. 크기가 커져 장애물을 부수고,
 속도가 빨라진다. 평소에는 눈을 감고 달리는데,
 이때 눈뜸.



7/50

잠꾸러기맛 쿠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돕는 3반.
원석이 만나 보석이 되다.

- 김민연 선생님



3반의 씹씹씹

2학기 초반 수업시간, 힘든 일정 속에서 졸고 계시던 전xx씨. 전xx씨의 짝이었던 김x연씨는 수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짝이 졸고 이/스던 사실조차 몰랐다. 그렇게 몇분이 지난 후, 전x국씨는 누군가가 놀래킨 듯이 발악을 일으키며 잠에서 깨어났다.

김x연씨는 그때를 늘 회상하며 x재x씨와 짝이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전x국씨는 지금은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다!!

+전x국씨는 과거, 수업시간에 꽃받침을 하고 즐겼던 적이 있다.

+손영x씨는 면학실에서 바닥에 신문을 깔고 잔다.



이창x씨 갑자기 모두의 관심을 받고 시퍼 줄음껌 10개를 한번에 씹었다. 몇초가 지나자 귀를 제외한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왔다. 눈에서는 그의 구슬같은 눈물이! 코에서는 맑고 투명한 그의 콧물이! 입에서는 석유같은 그의 검정색 침이! 줄줄 흘렀다.



🎉 1학년 4 왕국! 🎉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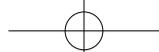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산산조각맛 쿠키

쿠키 궁극기 : 합체술

분신술 + a => 부스러기들이 공격함 (총알같이 한 대 때리는 느낌?), 손에 든 가장 큰 조각이 머리와 합체 되면서 몸이 두 개로 분리됨.

산산조각의 의미는 서로 의견이나 개성이 강해 잘 합쳐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껌과 함께 있을 때나 궁극기로 합쳐졌을 때 내구성이 강화되는 것을 통해 강봉샘의 지도하나 다같이 힘을 합칠 경우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반임을 의미함.





오늘의 씨앗이 내일의 큰 열매가 됩니다
- 이광봉 선생님



짜쿵핏 : 포마 자동차 붕붕 - 같이 있으면 내구성을 강화할 수 있다!



4반 산산조각맛 쿠키의 성격!

누가 부셔서 항상 화나 있음. 소리 지르고 다쳐서 시끄러운 편.

4반 산산조각맛 쿠키의 특징!

내구성이 많이 떨어짐. 단, 궁극기 사용시나 핏과 함께 이용시 내구성 강화

4반의 씹씹씹!

자리를 바꾸려 했으나, 일주일동안 의견 조정이 안되어 자리를 못바꿈. 반티를 정할 때, 투표를 3번이나 하며 최종 결정에 일주일 가까이 걸림.



🔔 1학년 5 왕국! 🔔



꾸러기맛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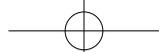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쿠키 스킵 : 옷다가 토하기

항상 웃음이 많은 우리 5반 장난꾸러기들. 하도 많이 웃어서 옷다가 토까지 한 정원의의 이야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다. 허구한 날 면학실에서 이상원은 꼬박지 혹은 귀지를 파서 강현종에게 날리게 된다. 그 광경을 목격한 최정원은 한참 옷다가 마시던 물을 뱉으며 토까지 하게 된다.

쿠키 궁극기 : 합체술

수업시간, 면학시간, 기숙사, 면학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왁자지껄한 우리는 선생님들께서도 인정하신 가장 시끄러운 반들 중 하나이다. 전자칠판에 MR을 틀기만 하면 반은 순식간에 노래방으로 변신하고,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해 생활관에서 까지 고성방가로 벌점을 받는 친구들도 많다. 이런 우리반 꾸러기들이 한마음으로 소리를 지른다면 부수지 못할 것이 없다!





립 한 마디로 표현해 5반 이 한마디면 다 표현되지 - 이주호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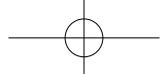
짜쿵핏 : 바니쥬니

쿠키가 지쳐 쓰러지면 살려내주고, 항상 용기를 주는 주호쌤 같은 존재이다. 그 많은 사물과 동물들 중 핏으로 토끼를 고르게 된 건 토끼장을 청소하다 그 안에 갇혀버린 민준이의 슬픈 사연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5반 꾸러기맛 쿠키의 특징!

언제나 활기차고 재치가 넘치는 주호쌤을 필두로 한 우리 5반은 28마리의 꾸러기들의 집합소이다. 배꼽에 레모나를 붓질 않나...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과식을 도전하질 않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사랑스러운 여자 아이들은 면학실에 "주하's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만들어 익명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 1학년 6 왕국! 🎉



세련맛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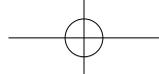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쿠키 스킬 : FLEX

벨렉스 해버렸지 모암 짜지는 기분에 걸맞게 평평
쏘기로 유명한 6반 그러다 보면 어느새 늘어난 뱃살
과 함께 엄마의 사랑의 회초리를 맛볼 수 있음

쿠키 궁극기 : 레드카펫

담임 쌤 생신 때 A동에서부터 인간 레드카펫으로
활동하면서 폭풍 감동을 안겨 드림. 아름답게 흘날리
는 꽃가루는 덤. 레드카펫 활동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담임쌤의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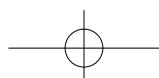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조용하지만 썸 반 - 정창희 선생님



짹펫 : 국어 교과서

화려한 문학이 나를 감싸네..국어쌤 반 담게 국어 교과서를 지극히 아끼는 6반. 펫으로 두고 이용한다는 소문까지 도는데...



1학년 7 왕국!



7/50

불멸의맛 쿠키

불멸의맛 쿠키의 특징!

전학 간 1학년들의 반은 7반이라는 전설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 7반은 쓰러지지 않기로 한 명 한 명 나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던 7반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26명의 구성원이 남아있다!! 7반은 죽지 않아요.



짱쿵핏 : 한명(한문+목숨 명)

7반의 담임쌤이신 최상규 선생님의 과목에서부터 파생되었으며 쿠키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부활시키는 특징이 있다. 사건사고가 가장 많은 7반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핏...





점점 나아지고 있는 반 - 최상규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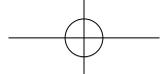
쿠키 스킬 : 배달음식

1학기 중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횟수 10회 이상. 그러나 하 번도 걸린 적이 없다는 것이 7반의 전설... 그들은 배달음식을 시킬 때 엄청난 협동력을 발휘해 음식을 해치우고 빠른 스피드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냄새 맡고 온 옆반 친구에게 한 입 주면서 입막을 시키고 공범으로 만드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스킬.

쿠키 궁극기 : 레드카펫

면학실에서 제일 시끄러운 반 하면 누구든 7반을 고를 것이다. 남자 면학실에서 시끄러운 아이들을 모아놓는 자리에서 7반은 엄청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면학실에서는 생활관 선생님께서 7반 옆에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계실 정도. 시험기간에도 항상 작동하는 이 궁극기는 절대 화력이 약해지지 않는다.





🎉 1학년 8 왕국! 🎉



일자맛 쿠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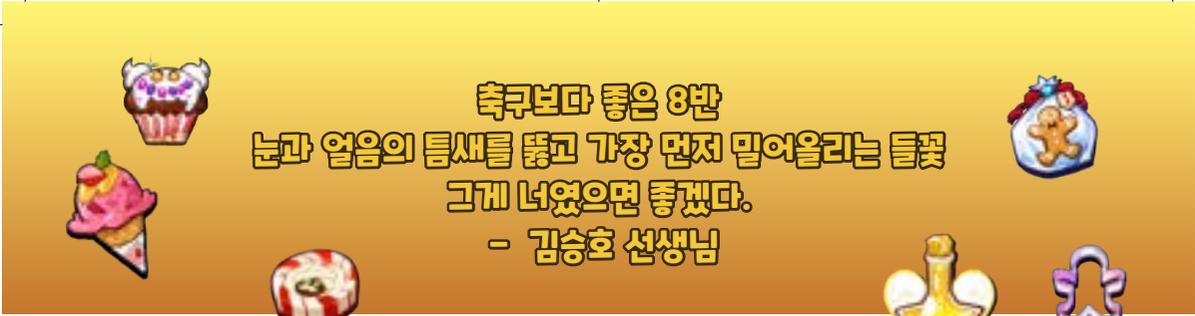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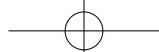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일자맛 쿠키의 특징!

(일반고 투 자사고) 일반고 맛이 나던 쿠키가 오랜 시간 동안 문제집사이에서 방치한 결과 문제집의 향이 더해져 자사고 맛 쿠키가 되어가고 있다.

짱쿵펫 : 축구공

8반이 1학년에서 짬 잘하는 것! 축구. 어느 반에도 지지 않는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쿠키 스킬 :

귀마개 스킬

딩동댕동 수업시작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제서야 잠에서 일어나는 학생, 화장실을 이제야 가는 학생, 매점에서 음식물을 사려고 오는 학생... 종소리가 들려도 절대 자리에 앉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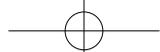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주마등 스킬

시험 전날 11시30분 면학이 끝나고 연장면학을 하기 위해 면학실에 가장 많이 남아 공부하는 학생은 8반 학생...

쿠키 궁극기 : 성적향상

W시험을 치루며 동기를 부여 받고 성적이 향상하며 덩달아 수업태도 까지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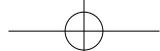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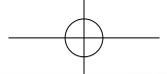


한편! 2학년 1반에서는...



갑자기 농부가 되었다. 반친구들이 각자 심고 싶은 작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재밌는 시간이었쥬).
 그 후 우리반에는 고추장, 수박장, 고구마장, 토마토장 등등이 등장했다(농사일지는 쓰지 않았지만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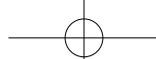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비 오는 날에 1반 모두 잡초 뽑으러 나갔다...! 다 흠뻑 젖은 채로 현영 쌤이 시켜주신 치킨을 먹고 기숙사로
들어가서 뽕송뽕송하게 씻었당 ㅎㅎ

졌잖아. SH컵 최종까지 올라가 1학년 8반과 붙었지만, 아쉽게도 승부차기에서 간발의 차로 이기지 못했
다. 그렇지만 너무나무 수고한 우리 반 아주 자랑스러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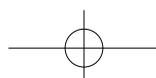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옥예린 : 2달 동안 피구로 두 명 손가락 부러뜨림 미안 소이..닭... 그 이후로 피구 안해요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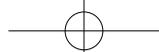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김한솔 : 떠들다가 4시 넘어서 잔 적이 있다.

정소이 : 외출 갔다가 사운 치킨 새벽 1시에 기숙사 테라스에서 15분만에 순삭 ㅎ

정하담 : 나는 사실 진짜 초딩이 맞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박인애 :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를 들어보지 않고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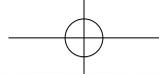


한편! 2학년 2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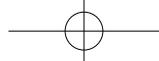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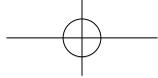
2반에 오면 187 농구좀 하는 친구와,
2D 여친이 있는 190 친구를 볼 수 있다.
이 두명, 조용해 보인다는데 친해진 이
후의 모습도 과연 그럴까? 그리고 발라
드만 부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어떻
게 발라드만 부르지? 맨날 테라스 나가
자는 친구도 있고, 울프컷만 고집하는 친
구도 있는데 군대 가기전 머리가 기대된
다. 개구리 닮은 친구도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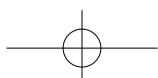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2반 풍덩이맘들은 하루하루 쑥쑥 자라는 풍덩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모두가 사물함에 책 가지러 갈 때 한 번씩 풍덩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쑥 보고 가는 건 안비밀~ 온라인 수학여행 준비하면서 주문한 물건이 배송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순발력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잘 해결한 자랑스러운 2반 바니 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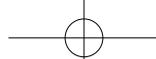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다음 생에도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은 친구의 모습

1. 고별하 → 신소연 : 깻잎 머리를 하고 다니고 매일 매일 깻잎만 먹는 깻잎 소녀 신소연
2. 김경민 → 박윤서 : 쿠팡 와우 없고 호두파이 먹고 마플 없는 박윤서
3. 김주현 → 이단영 : 섬유유연제 안 쓰고 클래식 들으며 탈케한 이단영
4. 문정현 → 서아린 : 빵이랑 샐러드 안 먹고 급식 안남기고 앞머리 떡진 서아린
5. 박나윤 → 김주현 : 영혼 250% 담아 말하고 면학 째끼는 오타쿠 김주현
6. 박윤서 → 오지우 : 삼성 노트북과 갤럭시 버즈쓰는 오지우
7. 서아린 → 박나윤 : 시스루 병에 매일 고데기 뺏기고 학교에 폰 들고 오는 박나윤
8. 신소연 → 오수인 : 거울 없고, 체육 시간에 가만히 있으며, 항상 조용히 옥수수만 먹는 오수인
9. 안다인 → 김경민 : 발표할 때 약지 손가락 안들고 시험기간에 3주 내내 연장하고 2시 취침 6시 20분 기상하는 김경민
10. 오수인 → 고별하 : 글씨 발로 쓰고, 벌레 때려잡는 앞머리 풀뱅에 정사이즈 입는 고별하
11. 오지우 → 안다인 : 보라색 싫어하고 자리가 깨끗하고 면학실에서 박혀서 사는 안다인
12. 유혜승 → 정서윤 : 수학과 경제를 싫어하고 안타까운 고민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안아주는 정서윤
13. 윤예강 → 이현지 : 매주 외출나가서 줄이어폰을 끼고 벽스로 케이팝 듣는 이현지
14. 이고은 → 이다은 : 원래 사람은 시간에 쫓겨서 해야 한다며 마감 한 시간 전부터 기획서 쓰기 시작하는 이다은
15. 이다은 → 이고은 :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도 힘들어 하는 기색 전혀 없이 생생한 상태로 버섯 먹는 이고은
16. 이단영 → 문정현 : 여돌 직캠 보면서 '아니, 근데, 이걸 아니지' 안 쓰고 말하는 문정현





17. 이시우 → 윤예강 : 만사에 그러려니 하는 윤예강
18. 이현지 → 이시우 : 목소리가 작아 소외당하고, 방학 때 잔류하면서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이시우
19. 정서윤 → 유혜승 : 유튜브는 시간낭비라고 하고 컨퍼 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유혜승
21. 김민호 → 김준혁 : 친구와 밥을 먹으며 테라스에서 사쿠란보를 추지 않고 아쿠아짱을 다이스크하지 않는 김준혁
22. 김준혁 → 김민호 : 머리띠를 안 쓰고 발라드를 부르지 않고 수업을 앉아서 듣는 김민호
23. 김지원 → 김한서 : 키가 작아 친구들을 올려다보며, 농구를 싫어하고 요염한 몸놀림, 춤선이 살아있는 댄스부 김한서
24. 김한서 → 김지원 : 반민초파 그린티마니아이자 3대 500 프로틴 괴물 김지원
25. 손현우 → 심규원 : 키 작고 어깨 좁은데 치즈와 사랑에 빠진 심규원
27. 심규원 → 손현우 : 리중딱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뒷머리 자르고 반삭한 사복 안 입는 손현우
28. 장준하 → 정우영 : 유튜브에 무관심하고 미디어 스페이스를 모르는 정우영
29. 정우영 → 장준하 : 노래와 휘파람이 특기인 가수로 데뷔한 장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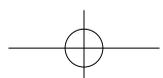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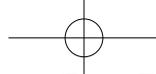
한편! 2학년 3반에서는...

1학년 시절 조용히 살던 우리는 기하는 좋아하지만 실화수학은 싫어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이과반인가 문과반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우리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시작된다.!!!



신서유기 뺨치는 우리의 단합력! 몸으로 말해요, 영화 초성 맞추기, 속담 맞추기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다들 웃으며 좀 더 끈끈해지는 시간을~ 단합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3반으로 도전장을 신청하라! 1년 동안 갈고닦은 그 단합력은 누구도 이길 수 없지! **#단합 #야 너두 할 수 있어 #2학년 3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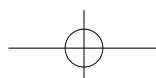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4반과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체육대회에 진심이었던 우리 3반. 어느 한 경기도 절대 지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데..그 후 3반하면 체대 입시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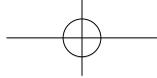
#4반 미안해 ㅠ #우리 배드민턴 잘쳐요^^ #농구도 잘해요^^ #배구도 잘하던데 #못하는게 뭐지?



온라인 수학여행을 위해 부스 운영을 하기로 했다?! 3반의 아이디어는 한국,미국,프랑스,이탈리아등등..하지만 3반의 반장은 서양보단 동양을 좋아했다고 한다. 나라를 정하는 협의 중 급발진을 하여 독단적으로 베트남을 선택.. 그렇게 3반의 베트남 여행기가 시작되는데...

#쌀국수 맛있었지요? #우리는 못 먹었어요 #비록 상은 못 탔지만 #수고 많았다





내 친구의 별명!

강예성→김가현 : 개가현 (노은빛이 어느날 갑자기 입에 착 달라붙는다면서 개가현이라고 부르기 시작. 그러다 다른 애들한테도 전파됨(인스타 프사가 강쥐라서 그렇다는 설도 있음))

김가현→김경민 : 김경민, 김경민, 김경도, 김강도, 김경란, 김경도, 김경진, 김경만, 김경란, 김경숙, 김경희, 김경구 (성근쌤이 김경민을 김경란으로 착각해서 경란이라고 부른 것이 시초. 나머지 별명들은 경민의 쌍둥이들)

김경민→김동희 : 동구에스, 아으 동동다리, 동구멍, 동덩이, 응동희, 똥구리, 동바스튜디오, 동발란스 (동희의 과장 심한 말들과 억지스러운 행동들로 인한 별명 우리의 신경질(?)이 담긴 별명..ㅋ)

김동희→김래현 : 사랑꾼 (다들 알거라고 생각함^^)

김래현→김은재 : 은재김 (반에서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 뭔가 딱히 새로운건 아니지만 듣기에 그냥 은재의 귀여운 면을 잘 살려줌)

김은재→노은빛 :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부른 줄 알고 대답해서)

노은빛→박시현 : 삼쌍동뼈 (학교 행사 때 마다 뼈뼈머리를 같이 해주는 수모를 함께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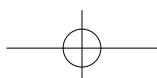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박시현→변수인 : 수수 (변수수수염차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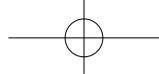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변수인→송윤지 : 난(쟁이)똥(자루)윤지, (동방신기 멤버6) 포지션:비주얼, 도비, NS윤지 (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해서 줄여서 '난똥윤지'~)이름이 4글자여서 동방신기 제 6의 멤버, 도비 닮음)

송윤지→신서현 : 멧때리는 헤어롤 집착 무민 (볼때마다 앞머리 헤어롤을 하고 멧때리는 모습 무민을 닮아서)

신서현→오승미 : 오승마 (어느 순간부터 생일 룰페에 승미가 '승마'가 되어있었다!!)

오승미→오현비 : 오비비 (역소 오세훈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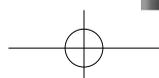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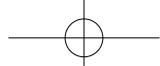
한편! 2학년 4반에서는...



4반 아이들이 허구한 날 벚꽃 단체사진 찍자는 소리를 하고 다니자 참다못한 주원쌤이 기하시간을 빼고 벚꽃은 과학고가 더 예쁘다며 단체로 과학고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던 일... 주원쌤 사랑해요!!(덕분에 한동안 우리반 아이들의 인스타에 벚꽃이 도배가 되었다)

4반 아이들이 허구한 날 배고프다고 오치고 다니자 참다못한 주원쌤22 이 사비로 우리반 단체로 맘스터치 사이버거 그것도 //세트// 구성으로 사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돼지가 되었다, 주원쌤 사랑해요 (애들이 햄버거 때문에 배부르다고 아무도 오윤서랑 밥을 안먹여줘서 윤서는 그날 처음으로 급식을 먹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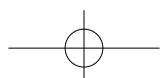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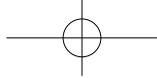


메인 귀신 영상, 준혁, 태연, 명, 수림, 발목잡기 + 놀래키기 귀신 선우, 지연, 수안, 주희, 갑툭튀 귀신 담당 수진, 희찬, 제교, 가이드 규서, 윤서, 지수, 서빈, 유빈, 정원, 페이스페인팅 선경, 소울, 현지, 세현, 칵테일 호준, 승현, 민원, 혜원, 승준, 4반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같이 준비한 귀신의 집을 무사히 마치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마음에 새겼다. (중언쌤 귀신 때려도 되냐 그러셔서 입장시켜드리지 못했다.. 죄송해요 ㅜㅜ 귀신도 살고 봐야죠 ㅜ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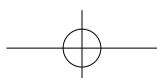
헬스에 미친 영상이에게는 휴대용 2.5리터 물통이 있는데, 학교의 텀블러 데이는 그의 희생양이 되었다, 영상이는 미친 패기로 텀블러랩시고 2.5리터의 물통을 가져갔고 우리반은 그 덕분에 배터지게 히비스커스 아이스티를 먹을 수 있었다..(영상이한테 고마워해야할지 영상사 아주머니에게 죄송해야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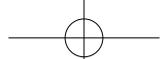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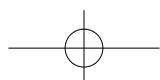
내 친구의 첫·현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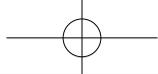
- 김유빈→서지수** 첫인상 : 낮을 많이 가리지만 공부도 잘하고 바이올린 천재인 그저 빛
현인상 : 어이없는 장난을 많이 치는 1024차원
- 김지연→이혜원** 첫인상 : 얼굴이 진짜 작고 귀엽다
현인상 : 목소리가 진짜 크고 여전히 귀여워... 내가 뺏고싶다
- 김현지→김지연** 첫인상 : 때는 첫만남 교실 전체 집합 날. 그녀는 입꼬리가 눈까지 붙은 채로 나한테 "안녕?"이라고 활기차게 인사했다.. 처음 본 아이인데 기분이 묘하고 설렌다....
현인상 : 이건 비밀인데 너가 우리 학교에서 젤 귀여워 남자분들 얼른 연락하세요 애가 아주 쪼그맣고 까불거릴 거 같이 생겨서 생각이 정말 깊고 배려심 넘치고 눈치도 짱 빠르고 그냥 내 데스티니~
- 문소율→이선경** 첫인상 : 조용한 모범생
현인상 : 귀엽고 뽀짝한 용용이네 아씨 (헤어지면 교지부터 버리세요~)
- 박선우→이정원** 첫인상 : 든든하고 굳건한 옆반 정원선배
현인상 : 동그랗고 통통한 입술을 가졌으며 가끔 머리를 시크하게 획 넘겨주는 귀여운 정배(혹은 중언쌤..?) 참고로 정배 중언쌤 성대모사 1급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 꼭 보세요
- 서수진→유수안** 첫인상 :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인싸
현인상 : 박선우를 양팔 삼아 끼고 다니는 무민 여사님
- 서지수→이주희** 첫인상 : 친구들에게 귀염받는 역할 담당 말랑콩떡젤리
현인상 : 카리스마 내재한 내외외강형 반 분위기 메이커. 요즘 헤이마마 안무에 열정을 쏟는 인간 1. 거의 뭐 노(이로)제
- 오윤서→이규서** 첫인상 : 예비반 같은반이라 영광. 여기가 서공예인지 하늘고인지 헷갈림
현인상 : '규서안경'이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버림. 사실 안경이 제 2의 자아가 아닐까..?
- 유수안→엄태연** 첫인상 : 허리 전치 12주로 하늘고를 접수한 전설의 사나이
현인상 : 태연이의 양큼발랄 김영상 정복기
- 윤서빈→서수진** 첫인상 : 되게 조용한 애인줄 알았다. 말 걸기 어려웠다 ㅋㅋ
현인상 : 사실 하나도 안 조용하고 건치미소 끝장임bb
- 이규서→김유빈** 첫인상 : 조용하고 점잖은 단발이 엄청 잘 어울리는 친구
현인상 : 거의 볼 때마다 패딩에 둘러싸인 친절하고 귀여운 간식 도우미
- 이수림→노명** 첫인상 : 조용하고 작은 약간 돌맹이 닮은 친구
현인상 : 우리반 공식 귀요미 근데 이제 피켓 봉사 맨날 제깁 귀찮은 녀석
- 이선경→이희찬** 첫인상 : 나보다 키 큰 사람이 새로 한명 더 생겼다..
현인상 : 4반 유일 축구하는 사람.. (그럼 나머지는...)





- 이정원→윤서빈** 첫인상 : 정말 조용하고 얌전하고 대중문화를 1도 모를 것 같은 여자
현인상 : 아무 이유 없이 냅다 일어나서 블랙맘바를 추는 여자(심지어 잘춤)
- 이주희→오윤서** 첫인상 : 도도하고 시크하고 좀 무섭고 차가운 도시 여자
현인상 : 우리는 이 친구를 타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 이혜원→노승준** 첫인상 :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새콤달콤 나눠주는 부자 (그 당시 짱 많았음)
현인상 : 화학 하나만 파는 2학기 물리러
- 김영상→이수림** 첫인상 : 미친 성격
현인상 : 미친 성격
- 김호준→박선우** 첫인상 : 겉모습은 착한 요정 같았음. 성격은 되게 부지런하고 꼼꼼히 하나하나 해결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았음
현인상 : 매사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력 0. 청소능력 0. 힘 0. 체력 0. 하다못해 불닭 소스도 자기 힘으로 못 뜯는 친구, 그래도 생활력은 좋다.
- 남세현→배준혁** 첫인상 :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현인상 : 새로운 공식을 마구 창조해내는 이그노벨상 후보
- 노명→배승현** 첫인상 : 붙임성 좋고 아는 게 많은 친구
현인상 : 푸근하고 친절한 동네 식당 주인 아저씨
- 노승준→문소울** 첫인상 : 친해지기 개어려운 도도하고 말 없는 지적인 여자
현인상 : 지적이긴 하지만 허당이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궁금한 사람.. 요즘 헤이마마 안무에 열정을 쏟는 인간 2.
- 배승현→김영상** 첫인상 : 신입생 특방에서 친구 엄청 많은 편콜섹시한 겁나 공부 잘하는 인싸
현인상 : 무지성일때가 많지만 뭐든지 다 해주는 착하지만 가끔 토라이인 헬창
- 배준혁→서민원** 첫인상 : 언제나 밝고 유쾌한 개구쟁이 이미지
현인상 : 생각보다 속이 깊지만 생각보다 아무런 생각도 없는 아이
- 서민원→김현지** 첫인상 : 친구 한 명과 조용히 떠드는 모습을 보고 소심한 친구라고 생각함.
현인상 : 비율이 좋고 웃음소리가 크며 말을 잘 듣는 나의 애완견 엘레강스
- 서제교→김호준** 첫인상 : 조용하면서도 자기 할 일 묵묵히 할 것 같은 착한 친구
현인상 : 알고 보니 탁구도 잘치는 준범쌤 맛먹는 만능스포츠맨(준범쌤보다 더 잘 할지도..?)
- 엄태연→남세현** 첫인상 : 공부만 하게 생긴 범생이 전교1등
현인상 : 생각보다 귀여운 춤추는 무척추동물
- 이희찬→서제교** 첫인상 : 기숙사와 학교에서가 다른 친구
현인상 : 착하고 장난을 자주치고 항상 애플민트 치약을 사용하고 애플민트 치약을 나한테 잘 빌려줘서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서 깨물어버리고 싶지만 참고 있다. 난 애플민트 싫어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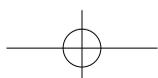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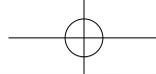
한편! 2학년 5반에서는...

노래, 춤, 학문, 운동에 특출난 아이들 28명이 모여 이공오라 칭하는 무리를 지어 어울렸다. 그들 각자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위낙에 소심한 이들이 많아 서로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이에 스승의 제안으로 만익도(關益徒)를 실현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자신만의 재능으로 숨었지만 그 중 관중 정세현은 듣겨치얼업 군무를 추었고 리더 김정윤과 아.기(아키기장) 임수현은 첫사랑 이야기를 풀어 모두의 이목을 끌었다는 이야기이다. 눈외로 ?? 반유창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펼쳐내었다더라...



때는 여름방학 잔류시절, 잔류팻에 속해있었던 몇몇 친구들(이현승)의 제안으로 시작된 물총놀이. 물총놀이를 위해 전날부터 오즈음로수를 말려 물총을 구비하고 일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본격적인 물총놀이를 준비하는데.. 아아 그 긴박하고 치열했던 물줄기의 향연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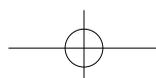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여름방학이 마무리되기 전, 갑작스레 밴드로 한 통의 연락이 오는데... "우리 담임쌤이 바뀐대!" 다들 믿을 수 없던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담임선생님, 노혜정쌤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처음에는 자연쌤과의 이별에 다들 아쉬움이 컸지만, 이학년 오-반은 혜정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서로 편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연쌤과 혜정쌤 사이의 엄청난 갭차이에 새삼스럽게 놀라는 이학년 오-반 아이들...



코로나라는 병이 발발하여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불쌍한 이학년 오-반은 온라인 수학여행을 빙자한 부스 잔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어느 반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구 밖의 '달나라'를 주제로 무중력 트램펄린, 우주 과학관, 달토끼의 떡과 '달'고나를 만들어내었다. 이에 1등까지 대내대 상금을 얻게 된 2학년 5반은 맛있게 얹기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더라...





20년 후 내친구의 모습?

강미주 → **곽준이** : 이마크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고 하다가 세계 최정상 마인크래프트 프로그래머 됨.

곽준이 → **박소연** : 20년 만에 마주친 동창생과 그자리에서 5시간동안 수다떠م

권하진 → **백윤서** : 동창회 자리에 조용히 등장해서 적당히 마시다가 해산할 때 본인 카드로 비싼 회비 결제하고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유유히 떠날 성공한 모습

김정윤 → **김태영** : 독일에서 동료 물리학자와 양자역학에 대해 토론하던 중 지나가던 잘생긴 첼로리스트에 첫눈에 반함.

김태영 → **이성영** : 평생을 독신주의자로 살다 뒤늦게 사랑을 찾음. 오후 5시 30분, 한강뷰 우리집 창문을 보면 그녀와 퇴근함.

박소연 → **조하영** : 사업을 통해 크게 성공하여 주택이 아닌 어떤 한 미국의 좋은 호텔에서 사는데, 친구들을 불러 가장 비싼 룸서비스를 먹고 싶은 만큼 시켜 먹고 너무 많아서 다 먹지는 못함.

백윤서 → **안창현** : 배드민턴 라켓과 결혼하고 서툰쪽 입양해서 부모님 뒷목 잡으심.

서예림 → **안혜승** : 이공계와 인스타에서 셀럽이 된 혜승이는 퇴근하고 남편이랑 수면마시 입고 스모어 밥 퍼먹을 거 같음.

안혜승 → **최준열** : 20대 후반엔 분명 주식으로 잘 벌던데... 보증 서달라고 전화 옴.

오윤정 → **이예린** :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대통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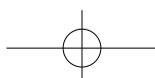
이가원 → **오테인** : 원격총전침을 개발해내서 대량생산을 했지만 결국 파산함. 그래서 여친한테 차이고 힘들게 지내는 중에 모나코의 공주가 웹서핑을 하다가 원격총전침을 봄. 모나코의 공주가 태인이를 불러 수출 계약 회의를 하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함. 그 후 모나코에서 수출을 시작한 무선총전침은 점유율 100%를 이루고 태인이는 왕위를 이어받아 오테랄로피테쿠스 1세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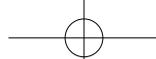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이예린 → **최서린** : 아무도 모르는 드립 치고 20년 동안 그때까지 혼자 웃을 듯...^^

임수현 → **오윤정** : 전 (주)왕거울모아 CEO, 참빛주식 대표이사, 현 대한기름종이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며 본인이 이끄는 세계 기름종이 자선 사업이 전지구적 주목을 받고 있음

조서연 → **정세현** : 세계 1위 기업 CEO 세현 머스크, 집에서 2개월 된 아들에게 인생 철학 얘기함

조하영 → **권하진** : 주변에는 자신의 감정, 생각, 사회에 대해 솔직한 사람이 많아 그 속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에 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일이지만, 하진이라면 본인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최서린 → 이현승 : 조기축구회 회장으로써 어린 아이들의 운동장을 뺏은 것은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여 축구장 빌린다고 회비 걷음. 그래서 회원들 다 나감.

김태형 → 반유창 :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하고 싶은 곳을 돌아다니며 남들은 인생에서 경험해 보기 힘든 특이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중

남현우 → 김태형 : 강남대성 s3반 에이스

박요한 → 이가원 : 자신의 진로를 찾아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며 차기 CEO를 노리고 있음.

반유창 → 남현우 : 의대생 래퍼

안창현 → 김정윤 : 의료 인공지능과 인간의 우열을 가르기 위해서 인공지능 의사 DI와 대한의사협회장 김정윤은 대결을 하는데, 대회 도중 서로 플라토닉 러브에 빠져 '인간, 인공지능 협력 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해 폭발적인 의료 기술 발전을 이룸.

오태인 → 박요한 : 천체 물리학 연구를 하여 미니 블랙홀을 이용한 시간여행기계를 만들게 된다. 세계 최초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 박요한은 자신의 실수로 공룡 시대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성영 → 조서연 : 집에서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가 어렸을 땐, 롤이라는 게임이 유행이었어...” 라고 말하며 왕년에 하늘고볼깃털자야로 이름 좀 날렸던 자신의 화려한 과거 추억 회상하는 중

이현승 → 임수현 : 그때도 모쏠일 듯. 소심이기 때문! 평모쏠 확정!(땅땅) 그래도 술친구는 많을 듯. 성격이 좋기 때문!(추카추카)

임형진 → 전수민 : 명문대 졸업후 사회에 진출 하지만....사업 부도 후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친구 형진에게 "형진이 돈 좀 빌려줘 내가 진짜 갚을게...." 발언 할 것 같음.

전수민 → 임형진 : 본인 자신을 위해 피부과 의사가 됨. 술에 취하면 과거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주사가 있음. 매우 고집이 세나 고집이 센 만큼 집착하여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초특급 미녀와 연애에 성공하였지만 결혼은 하지 못함.

정세현 → 서예림 : "아프면 손 들어주세요~ (우드득, 비명소리 후) 잠깐 가만히 있으세요 ㅎㅎ" 20년 후에는 철인의 반열에 오른 3대 500 의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음.

최준열 → 강미주 : 준열이가 20년 후 본인의 모습 안써줘서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고민중



한편! 2학년 6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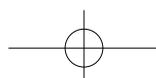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찍은 육반만의 감성 사진

상규쌤을 찾아가던 은비는 선생님 책상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보게 되었고, 그 청첩장의 주인이 6반의 아름다운 유림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림쌤 생신에 준비한 서프라이즈 파티 후

은비가 청첩장을 본 직후 선생님은 다급하게 2학년부 교무실을 전속력으로 뛰어가셔서 "큰일났어~! 은비가 다 알아버렸어~!!!!!!!"라며 말씀하고 다니셨고, 그것을 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웃음을 터뜨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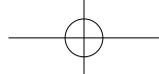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가는 이를 떠나보내며...

선생님을 위한 깜짝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나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망을 보며 전자칠판에서 회의하고 칠판에 진행되지도 않은 학급 프로젝트 내용을 회갈겨 써 놓고 선생님이 오면 칠판을 확 달아서 내용을 감추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깜짝 영상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유림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서프라이즈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또 다시 회의를 거쳐 영상을 두 개 만들기로 했다. 하나는 결혼식 전에 보여드려서 본 영상을 서프라이즈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물론 간식시간까지 할애하며 영상에 진심이었다. 음치 집합체 우리 육반은.. 하객들의 고막을 차마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은 열린 문' 듀엣 노래를 불렀다. 춤도 만들어서 영상을 찍긴 했지만 몸치인 우리는 만장일치의 합의로 2절은 포기하고 워테이크 촬영으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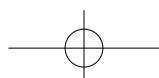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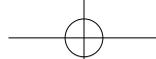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상규쌤, 승호쌤 덕분에 결혼식장에서 무사히 영상을 틀게 되었다. 유림쌤만 모르고 계셨기에 영상이 나오고 선생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하객석에서 상규쌤이 폭풍오열을 하셨지만 이건 진짜 비밀이다. 결혼식 후 우리 반은 승호쌤과 유림쌤께서 사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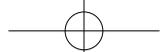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내 친구의 첫·현인상!

- 박지민→ 박선영** 첫인상: 학교 와서 첫 룸메. 엄청 밝고 긍정적인 친구
현인상: 그림 잘그리고 잘 웃는 재밌는 친구
- 박선영→ 임승현** 첫인상: 녀석 좋고 처음보는 사람에게도 말 잘 거는 친구
현인상: 재밌고 설명도 잘하며,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하는 친구!
- 임승현→ 김아연** 첫인상=진지하고 성실하고 조용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Zn
현인상=은근 humorous하고 joke가 많으며 그린비를 너무 많이 써서 카드정지당한 IRIS
- 김아연→ 박지민** 첫인상: 운동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며 돌발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는 꼭 닮고 싶은 친구
현인상: 학급 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멋진 의견들을 내주고 배려심이 깊은 마음이 따뜻한 친구
- 어채원→ 이세연** 첫인상 : 배달걸릴까봐 무서워하는 비버
현인상 : 배달음식 매일 먹고싶어하는 비버
- 이세연→ 박주영** 첫인상 : 무뚝뚝하고 무서워 보이는.. 다가가기 힘든 친구
현인상 : 생각보다 장난도 많이 치고 학급 일에 열심히 참여해주는 친구
- 박주영→ 김예린** 첫인상 : 조용하고 진지한데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
현인상 : 춤 잘추고 공부 엄청엄청 잘하는 친구
- 김예린→ 이도현** 첫인상 : 듣직하고 무뚝뚝한 얼굴만 알던 친구
현인상 : 말많고 잠많고 친절한 면도 있으며 게임 좋아하는 친구
- 이도현→ 박서찬** 첫인상: 진지하고 완전 딱딱할 것 같이 생긴 친구
현인상: 수학의 신, 가끔 치는 개드립이 재밌다. 왜 승수랑 친한지 알겠음
- 박서찬→ 임현서** 첫인상: 2학년 첫 짝. 말이 많고 활발한 친구일 줄 알았음.
현인상: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말과 행동을 가끔 함. 영특함을 발휘하는 멋진 친구. 피아노 잘 치는거 보고 놀람.
- 임현서→ 김용빈** 첫인상 : 무슨 일이 있어도 마스크를 끝까지 펼쳐 쓰지 않는 좃대 있는 친구
현인상 : 평소엔 온몸으로 웃는 장난꾸러기지만, 알고 보면 공부천재, 체육 신동
- 김용빈→ 송수오** 첫인상 : 피지컬 5세♡
현이상 : 정신연령 5세♥
- 송수오→ 이서현** 첫인상 : 2학년 되고나서 두번째 짝.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로 보였음
현인상 :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하지만 되게 착하고 재미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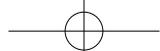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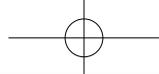
- 이서현→ 어채원** 첫인상 : 둘 다 1학년 반에서 혼자 올라와서 동질감 느낌
현인상 : 내가 멘탈 케어 해줘야 할 것 같은 극 N 말괄량이 딸랑구, 요가매트 침대 창시자
- 천승우→ 김준석** 첫인상 : 미친 것 같이 웃김
현인상 : 웃긴데 좀 미친 것 같음
- 김준석→ 박승수** 첫인상 : 춤 잘 추는 활기차고 발랄한 친구, 착해 보였지만 얼굴만 아는 사이여서 친해지고 싶었음.
현인상 :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학우들과의 교우 관계가 원활함. 가끔 애교를 부리는데 귀여움. 생각보다 운동 잘함. 공부를 열심히 하며, 이번에는 시험을 잘 봤으려나..?
- 승수→ 은비** 첫인상 : 같은 반이었지만 좀 늦게 알게 된 동지. 항상 명상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 조용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상당히 강력.해.보.임.
현인상 : 웃음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미친듯이 웃고, 아등바등거리는게 너무 웃김.
- 고은비→ 이도윤** 첫인상: 초딩 때 인기 많았다는 것에 흠칫 W@-@/
현인상: 나만의 연예인 도도..
- 이도윤→ 박수연** 첫인상: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유능함. 공부 잘하겠다.
현인상: 업무 들어가면 개적극적이고 하드캐리하는 유능한친구 조별과제 할 때 조원에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든든함
- 박수연→ 윤상진** 첫인상 : 친오빠 예전 모습 닮아서 볼 때마다 흠칫함
현인상 : 착하고 순하고 배려 많은 키 큰..! 친구
- 윤상진→ 김도은** 첫인상: 처음 봤을 때 "아...공부 개잘하겠다" 라고 느낌을 받은 대단하고 엄청난 친구 와우!
현인상: 운동도 잘함...공부도 잘함.... 대화할 때 기 안 빠리는 몇 안 되는 친구
- 김도은→ 권정민** 첫인상 : 칠판 그림이랑 완전 똑같은 친구 (송수오: 꾸에엑~)
현인상 : 은근히 귀여운 2-6 인싸 (송수오: 살 빠졌다고 생각하는 돼지)
- 권정민→ 윤하연** 첫인상: 울보
현인상: 돼지
- 윤하연→ 천승우** 첫인상: 인스타
현인상: 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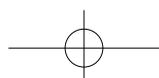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한편! 2학년 7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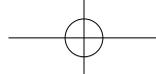
미니 체육대회: 중간고사 이후 우리는 체육대회만을 기다렸다. 매 점심 저녁 시간에 모두가 연습하여 예상보다 좋은 기록을 만들어주었다. 비록 8반과의 경기에서는 졌지만 2학년 홀수반 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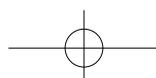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귀엽고 깜찍한 7반이 리더 형준짱! 그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를 감동시키기로 마음먹은 7반 아이들은 영상편지와 풍선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아이들 모두 하나되어 열심히 준비했지롱! 결과는 대성공! 깜짝 놀란 형준짱! 사랑해요 형준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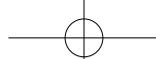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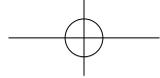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내 친구의 첫·현인상!

- 김다연→ 김민영** 첫인상: 좀 세보임
현인상:창희 쌤 픽 동그라미
- 김민영→ 김서현** 첫인상: 조용하고 공부 잘할 것 같이 생김
현인상: 말 많고 시끄러운 검정 처돌이
- 김서현→ 김시은** 처음에는 점잖은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4차원 그 자체
- 김시은→ 김아영** 첫인상 : 또 같은반 면학실 또 옆자리
현인상 : 또또 면학실 옆자리,, 2년 중 1년반째 면학실 옆자리ㅎ..^^ !
- 김아영→ 김유신** 학기 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에서 현재 반장으로써 적극적으로 반 아이들 을 이끌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 김유신→ 김혜영** 첫인상 :첫 룸메!!! 그냥 천사 그자체
현인상: 운동선수 배구 농구 다잘함
- 김혜영→ 남한나** 친해지고 싶은 선배
좋은 선배이자 좋은 언니이자 좋은 친구
- 남한나→ 변윤서**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친구 → 할 말은 하는 강단있는 친구
- 변윤서→윤소울** 첫인상:적극적이고 밝고 친화력이 좋은 친구
현인상:첫인상처럼 밝은 친구이고 인간적인 면모가 굉장히 많은 친
- 윤소울→ 이나경** 수업 잘 듣는 친구 → 수학천재, 잘자는 친구
- 이나경→ 이예성** 처음에는 공부 잘하고 목소리 까랑까랑하고 귀여운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자칠판으로 루저러버를 들을 수 있는 멋진 친구였다 ^_^ 예성이의 남편 사랑... 동지로서 응원해
- 이예성→이지영** 수줍은 정이가 완전 변태 과정을 거쳐 뽕뽕한 정이로 진화했다. 학년 초반에는 말 붙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 말 잘 통하고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 이지영→최서진** 서진이는 학기 초 때보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원래 좀 긴장하고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전보다 많이 웃고, 많이 떠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또 학기 초랑 변함없이 착한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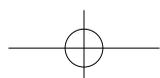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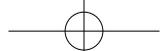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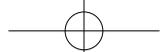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 최서진→ 한정윤** 학기초: 무엇이든 항상 열심히 하는 카리스마 있는 친구
학기말: 말로에 음료수를 좋아하는 귀여운 친구/ 정윤이만의 말투가 있는데 진짜 그냥 재미있음
- 한정윤→ 백용주** 조용한 진우 친구 → 탁구 치는 중국인
- 백용주→ 손진우** 학기초: 장난기가 매우 많고 재미있는 친구였음
학기말: 때로 진지한 면을 보여주는 의외의 좋은 친구
- 손진우→ 송한경** 조용하고 수학 잘하는 친구 → 매력 팡팡터지는 미친친구?
- 송한경→ 신병호** 조용한 모범생 → 수학, 달리기, 여친 다 가춘 힘순핀
- 신병호→ 왕호준** 학기초: 조용하고 공부잘하는 친구
현재: 학기초+준범쌤보다 달리기 잘하고 사랑시 잘쓰는 친구
- 왕호준→ 유민균** 신생아 메타.. 학기 초에는 하루 19시간 수면이었는데 지금은 20시간 찍음
- 유민균→ 이진원** 공부 잘할것 같은 범생이 → 여친바라기
- 이진원→ 이진호** 학기 초반: 조용한데 덩치도 있고 운동 좋아할 꺼 같은 친구
현재 달라진 것: 축구와 농구 좋아하는 덩치는 크지만 착한 친구
- 이진호→임주호** 첫인상 : 귀엽고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주호
현인상 : 더 귀엽고 미친놈이 되버린 주호
- 임주호→최승호** 학기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조용한 범생이 인줄 앞
학기말: 공부만 하는것이 아니라 놀줄도 아는 재미있는 친구였음
- 최승호→최현서** 첫인상: 조용하고 암전한 모범생 →
현재: 하이텐션 급발진 기계 & 다재다능한 모범생
- 최현서→ 한건희** 첫: 조폭 → 현 : ^ ^...
- 한건희→ 김다연** 첫인상 : 키 작고 얼굴이 붉은 여자애
현인상: 키작고 재미있고 상냥한 친구



한편! 2학년 8반에서는...

아아 지난 1년간 좌충우돌을 겪어왔던 8반 아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펼칠 것인가.. 흥미롭구나!







나는 어떤 세포?!

강효린: 귀차니즘 세포 - “아~ 귀찮아” 눈 뜨는 것조차 귀찮아서 반만 뜨기 할래~~ 하지
만 눈이 너무 아름답다는 반전

구도윤: 초콜릿 하나만 먹을래 세포 - “우리 반 당 총전은 내가 책임진다” 거의 찰리의 초콜
릿 공장이라 할 정도로 항상 초콜릿 소유 중

김민서: 민센(민서 센세) 세포 -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강약약의 표본! 할 말은 다하는 저돌
적인 아이디어 뱅크

김민지: 갈대 세포 - 시험기간만 되면 어느 날은 열대우림, 어느 날은 지중해성으로 훌훌!
햇살 같은 눈웃음의 소유자

김민채: 프린세스 세포 -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족의 피가 흐르는 내츨렐 본 새침 but, 가끔
때리고 싶음 (강원이의 주관적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예진: 눈 감기 1초 직전 세포 - 아침:zz 점심:zz 면학:zz ... 예진아~! 자면 안돼~ㅎㅎ

김지수: 프라우드먼 세포 - 눈빛 하나로 알파카 제압 가능하지만 사실은 외강내유인 제시,
영어듣기평가 제질 허에 꿀발라놓은 New Yorker

오연수: 양말 세포 - 안전돼도 양말은 보인다는게 학계의 정설,, 오드아이 양말로 존재감 뽐
뽐 >.< (+성실의 아이콘)

윤서연: 성근 쌤의 MVP 세포 - 작은 얼굴에 그렇지 못한 강스파이크를 날려버리는 포브스
선정 만능 체육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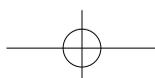
이수현: 코알라세포 - 어디에서나 잘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줌! 꿈 속에서도 공부한다
는 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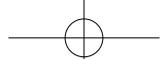
정예지: 야Z | (Yarge) 세포 - 8반 잡는 야Z | , (익명)감자의 구애에도 굴하지 않는 한결 같
은 개쌍마이웨이, 존재 자체가 야지임

조예현: 방울 토마토 세포 - 멘탈 개세지만 얼굴이 쉽게 새빨개지는(자칭 극복했다 함) 귀요
미인건 비밀

최수린: 지킬 앤 하이드 세포 - 평소에는 행복하지만 지뢰와 3초 이상 대화를 나누면 초신
성 폭발 주의!(*감당불가*)

한예원: 마스크는 신체의 일부 세포 - 밥 먹을 때 빼고 마스크와 일체인 코로나 19 최대 수
해자 린스 “마스크 조아!” (렌즈와 안경을 동시에 끼는 ㄸㄹ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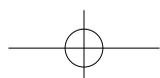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 홍하은:** 궁서체 세포- 자신의 역할을 곳곳이 해내지만 곳곳하게 세대에 뒤쳐지는 스윗걸
- 강수한:** 아 1학기 반장 관히 했다 세포 - 버스 기사의 정석, 그리고 버스에 탄 8반.. 고맙단 말밖에 나오지 않는ㄷ.. 미안하다 블랙수한..
- 고준성:** 멀리서 볼수록 이쁘다 세포 - 뜨거운 남자 송씨의 애착 인형.. 뛰는 모습이 아프리카 초원을 연상시키는 가젤
- 김유환:** 외강내강 세포 - 무지성 도발로 반 전체 욕을 먹어도 그는 다음 날 다시 돌아온다! 그의 이름은 에볼라...
- 김종현:** 홈런볼 세포 - 야구 잘하는 것도 (외모도) 홈런볼, 그에게 급식은 에피타이저..?
- 김현석:**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세포 - 마음만은 이미 미국 진출 NBA, 태생부터 남다른 성대로 쉬는 8반 세포들의 코털을 몇 번 건드림
- 서강원:** (자칭) 아이돌 세포 - 본인을 비올킹이라고 생각하는 걱정깁, 수학 시간에 싸인 연습을 하는 당당함에서 나오는 슈퍼스타 DNA
- 손선우:** 반전세포 - 의욕이 없어보이나 알고 보면 노래도 잘하고 (ㅇㄷ) 춤도 잘 추는 (?) 만능엔터테이너
- 송정우:** 정시의 패기 세포 - (Lvl. 999) <스킬: 정시의 벽> 아랍어 문제집, 각종 기출은 쌓아놓고 그 뒤에서는... gg
- 이예찬:** 자퇴세포 - 이하 설명은 생략한다.
- 이정민:** 귀여운 코딩세포 - 이 남자의 모든 행동은 코딩으로 계산된 것 같아 귀엽다 (8반 다수가 회장 자리를 노리는 팬클럽까지 소유하는 FLEX\$\$)
- 이창우:** 뒷모습은 아이 앞모습은 어른 세포 - 뒤에서 보면 안고 싶고 앞에서 보면 주식 배우고 싶은 생김새
- 최준혁:** 은근 신경 쓰이는 세포 - 고요한 8반에 갑자기 나타난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반장!



외쳐! 301!



2022년 1월 1일 00:00에 뭐할거야?

강민주 : 12월 31에 초딩 때 친구들 만나서 눈 다음에 카운트 다운과 함께 술집에서 소맥 말아먹기 *^^*

권가인 : 술은 안 마실 것 같다.. 그냥 매년 하는 것처럼 가요대제전이나 보고 있지 않을까요?

김규리 : 모차르트 세레나데 제13번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G장조 K.525를 들으며 교양 있게 독서

김소은 : 해방감에 도취된 20대의 찐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요?

김소희 : 12시 땡 치자마자 이채연과 함께 당당히 민증을 끼고 심야 19금 영화를 보러 간다

김희연 :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맥주 한 캔 따서 한 캔 마시고 김소희 이채연 만나기

박지영 : 넷플릭스 성인인증 받기

염정민 :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을 끝내면 지난 10년간 감사했던 분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간 용기가 없어 성인이 된 이후로 미루어 왔던 많은 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좋아하는 아이들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다 이웃집에 민폐가 되면 곤란하므로 (몇 년간 조용했던 윗집 학생이 드디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내방송 없이 동네방네 소문내는 셈이다)새해맞이는 다른 넓은 장소를 찾아봐야겠다.

오수빈 : 연기대상 보면서 치맥 먹기

이채연 : 김소희와 함께 "잔인해서" 19금인 영화를 보러간다(다들 오해는 노노~~)

이하람 : 효리와 함께 보신각종 앞에서 뱀주를 먹으며 몸보신하기

장효리 : 하람이와 함께 보신각 종 앞에서 뱀주를 먹으며 몸보신하기

정다빈 : 5, 4, 3, 2, 1 카운팅 다운과 함께 프리 라이프 시작@!!

최민서 : 가장 먼저 음주를 하고, 새벽에 피시방가서 게임하다가 이채연, 김소희에 합류하기

최지니 : 자고 있을 듯

한지연 : 12시 땡!! 하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박기태 : 박남교 위로하기

박남교 : 자이스토리 수2(p.170~p.190)풀기-부정적분과 정적분

박준성 : 박남교 공부하는데 옆에서 조정식의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어휘편' 인강 듣기

박찬휘 : 박남교 공부하는데 스크류바로 대가리 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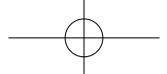
성승현 : 사랑하는 사람들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옷 벗고 입수하기

안재익 : 박남교 공부하는 거 구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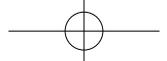
윤승환 : 로또 자동으로 17개, 수동으로 17개 사기

이재욱 : 박남교 공부하는데 옆에서 여자랑 대화하기

조석현 : 박남교 공부하는데 옆에서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을 부르며 리듬에 맞춰 펜버트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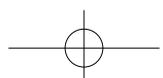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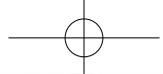


외처!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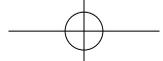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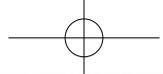
내 친구는 1월 1일 00:00에 ~을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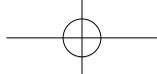
- 권수진 → 유현석 : 비니쓰고 클럽 맨 앞에서 한 손엔 맥주 들고 붕춤치고 있을 것 같다
- 김지나 → 한성주 : 예쁘게 꾸미고, 연남동 술집에서 친구들과 밤새 놀 것 같아요
- 백지우 → 김지나 :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정각에 종 땡땡땡 치는 거 손잡고 같이 들을 듯
- 신동은 → 김진섭 : 수험생활동안 밀린 오마이걸 떡밥들을 보며 아린에 대한 마음을 더 굴릴 것 같다
- 안채연 → 이수민 : 디스트리트 회사 브이로그를 봤는데 수만이가 악뮤 dinosaur 노래를 우우우우~~ 부르고 있지 않을까~~~~?
- 안하은 → 김도훈 : '청하'가 나오는 가요대전을 보면서 맥주 대신 단백질 셰이크, 안주 대신 닭가슴살을 먹고 있을 듯
- 이가현 → 안하은 : 중국 호텔에서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을까...
- 이다빈 → 권수진 : 종소리와 함께 "와!!!나 이제 성인야..??!!!!"소리를 지르며 친구들과 다음날의 술약속을 잡는다 그러면서 가슴 벅차한다><
- 이다원 → 박민 :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 것 같다
- 이서영 → 정혜진 : 집 앞 포장마차에서 3년 전 그 아이에게...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 이수민 → 정수정 : 이곳은 도쿄타워, 야경은 그림디어 콕테일잔에 쏟아지고 운명적으로 그를 만나다. "키미 노... 나마에와?"
- 정수정 → 안채연 : 친구들과 파티를 하면서 1일을 맞을 것 같다
- 정윤선 → 이가현 : 뭔가 호텔같은데 예약잡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0시 땡! 하자마자 술 시키고 마실 것 같다.. 그러다가 취한 상태로 새벽 감성에 빠져 전체메세지로 명언 같은거 날리는 거지... 무야호?
- 정채윤 → 백지우 : 속세와의 단절을 위해 폰 끄고 자려고 하였으나, 주변 성원에 못 이겨 반 강제로 술잔 들고 브이 후 찰칵
- 정혜진 → 이서영 : 04년생이라 03년생 친구들이 애기랑은 술 안 마신다고 끼워주지 않아도 방구석에서 드라마 틀고 혼술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녀의 새해를 만끽할 것 같다
- 최강희 → 채문철 : 보신각에서 한복 입고 댄스버스킹 하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면 비트 맞춰 춤을 출 것이다
- 한성주 → 정윤선 : 고깃집에서 머니건으로 손님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을 것 같다
- 김도훈 → 이다원 : 친구들이랑 진로이즈백 훌쩍이고 있을 것 같다
- 김진섭 → 한태경 : 유튜브로 키크는 스트레칭 찾아보여서 2022년에는 170이 넘는 자신을 상상한다
- 박민 → 이다빈 : 새해 카운트 다운
- 박현영 → 이승현 : 여자친구를 위한 요리를 할 것 같다
- 오재원 → 박현영 : 1월 1일 재원이와 익스트림 동거 시작
- 유현석 → 신동은 : 남자친구랑 게이바에 놀러 갔다가 남친 뺏기고 울고 있을 듯
- 이승현 → 오재원 : 아마 술 마시고 어딘가에서 감성타서 노렐 부르고 있지 않을까?
- 채문철 → 최강희 : 새해 첫 곡으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듣고 있을 듯
- 한태경 → 정채윤 :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소주 한 잔, 임창정z



2022년 1월 1일 00:00에 뭐할거야?

2. 12월 31일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혜화동을 걷다가 1월 1일 카운트 다운하고 같이 칩otle바 가기
 3. 복분자술 담그기
 4. 요기요 성인인증해서 치맥 시키기 그리고 친구들과 영통하면서 새해 맞이하기<
 5. (청춘은)12월 31일에 지오경(?) 만나서 영마루 공원 걷다가 술집 들어가서 '이은서전' 안주로 시키고 12시 되자마자 술먹고 감자(?) 부활시켜서 댄스파티하기
 6. 11: 30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며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시간 보내기 (클럽에 가고자 했지만 붙잡혀버린 아가들과...)
 7. '성인식'노래 틀고 가족 앞에서 파격 퍼포먼스 선보일 것
 8. 2021의 마지막 날에 미성년자 김예림에게 술을 사주는 으른의 모습을 보여준 뒤 놀다가 11:30쯤 귀가, 엄마랑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2022 맞이
 9.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하기
 10. 워져들과 함께 덕담 나누기 ㅎㅎ 그리고 엄마 생신선물 드리기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새해 축하 연락 보내기!
 11. 12월 31일에 부모님과 연애대상을 보면서 회먹고, 1월 1일 00시가 되자마자 친구들과 만나서 치맥하기
 13. 독일어 책을 사고, 12월 31일에 나가서 1월 2일에 집들어가기
 14. (바로)클럽 가서 보안 요원한테 "감자는 입장 불가입니다."
 15. '똥 밟았네' 추다가 골목길에 운명의 상대와 부딪히고 사랑에 빠지기
 16. 스무살의 청춘을 밤새 즐기고, 예린이랑 눈발에서 춤 버스킹하다가 회색 후드티남이랑 사랑에 빠지기
 17. 최세현 집에서 준서와 스타크래프트하기
 18. 최세현 집에서 음식 다 빼먹고 드러눕기
 19. 최세현 집에서 아이스크림 5개 먹기
 20. 최세현 집에서 변기 막히게 하기
 21. 최세현 집에서 오렌지주스 마시기
 22. 최세현 집에서 혼술하기
 23. 스테디카페가서 아랍어 공부하기
 24. 최세현 집에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당하기
 25. 최세현 집에서 경민과 스타크래프트하기
- 담임. 초이 괴롭히는 녀석들 명단 적어서 경찰서로 넘기고 최세현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스타하기





2022년 1월 1일 00:00에 뭐할거야?

권세은: 익스팩트 팩트로늘!! 전 사실 지금까지 제가 머글인 줄 알았어요, 찰이 없었죠. 알고 보니 헤르미온느의 43대손이었어요. 어쩐지 제 미모가 보통 미모는 아니잖아요? 도경수, 난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헤르미온느의 43대손인 나 권세은은 가질 수 없지. (by. 맥반석)

김효민: 스무살!! 그녀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맥반석, 새해 첫날부터 이마가 반들거려네요. 친구들에게 술 먹자는 전화가 밀려오는 00시 00분..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경건하게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미안해

노은서: 학교에서 숨겨왔지만 이미 준비되었던 내 얼굴, 원래도 소멸될 거 같지만 매일 관리하던 압박 붕대로 더 작게 할 것이다. 하얗고, 높은 콧대, 큰 눈을 가진 내 얼굴 거울 보며 미소 짓고, 사진 하나 만족스럽게 찍어 "내 얼굴 말 안해도 알지?"라는 문구와 함께 인스타에 올린다. 이전의 나는 없다. 이제 시작이다. 아이유, 훗 난 나보다 안돼. 기다려 애들이

박서연: 내 교자를 보고 있을 my love에게, 요즘 다른 남자들이 날 재갈까봐 불안하지? 내가 박체리로 개명된 이후 외국인들이 날 쫓을 따라다녀서 조금 피곤해. 나는 HOT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HOT 초코소녀로 태어났공데 오토케,,,? 새해에는 내가 좀 덜 HOT하도록 노력해볼게♥

배유리: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감자를 좋아했다. 감자튀김, 토네이도 감자를 간식으로 먹었으며 감자탕을 주식으로 하였다. 감자를 너무 좋아하는 나 머지 유치원 학예회에서는 감자도리송, 중학교 학예회에서는 대흥단 감자로 무대에 섰다. 감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기에 나 배유리는 새해에도 감자와 함께할 것이다.

손민재: 오늘부로 19살이 된 나 원숙이손 민진재. 나에게 22년 1월 1일 00시는 아무 의미 없다. 하지만 나의 친구들은 20살이기에 끝겨 표자에 가기로 결심한다. 들어갈 땐 내 얼굴로 통과. 그러나. 절망적인 민중 검사하는 시간이다. 그렇다. 나는 표자에서 쫓겨났고 혼자 맥주 맛 사랑으로 맥주 탄산을, 보리차로 맥주 원료인 보리의 맛을 느껴본다. 오늘은 내 인생 가장 쓸쓸한 날이다.

송호은: 하... 나에게 취한다. 청담동에서 받은 헤어를 살랑 남기고 블랙스 시계를 과시하며 클럽으로 들어간다. 이목이 나에게 집중되고 계속해서 다쉬를 건네지만, 나 송호은은 쉽게 넘어가지 않지! 역시 너무 매력 있어도 피곤하다니까~

이승연: 나 이승연, 치명적인 여자. 고풍을 만끽하라.. 혼술을 즐기라.. 술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정작 술 마시는 건 조-금 무섭네, 이게 치명적인 여자의 반전매력인가.. 후후. 대신 상급한 오랜지 주스를 귀엽게 흘리며, 옆테이블 사람들에게 내 매력을 흘려주자. '그대의 눈동자에 Cheers... ☆★'

이정은: 미래의 남자친구와 함께 배틀그라운드 게임 1등하고 치킨시켜서 술먹방하기

이지유: 12월 1일이었지... 서울대학교 입구에서 유아호에 이은 (지)유아호가 되기 위해 혼자 MSG 워너비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우연히 지나가던 매드몬스터에 의해 캐스팅을 당해버렸지... 매드몬스터의 비장의 제 3멤버로써 행사를 뛰느라 12월을 다 보내버렸지만 나의 뛰어난 미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실망하여 1월 1일 혼술 뛰는 중.

이현아: 나는 하늘고의 락킹퀸이다. 나는 새해, 모두에게 숨겨왔던 락킹 실력을 뽐내려고 한다. 장소는 보신각, bgm은 제아의 종소리이다. 그동안 나는 복도를 걸어가면 에어팟을 끌고 스텝을 밟아가며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이 락킹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락킹퀸이다.

정은은: 1월 1일 새해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 한 잔 두 잔 ...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내 이름은 아이유. 날 보러 온 팬들에게 노래를 들려줘야겠다.' 좋은 날, 너랑 나, 하루길, 팔레트, 금요일에 만나요... 매들리를 끝내고 예은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v

조현정: 할리우드에서 유학을 했어요. 찰이 없었죠. butter가 좋아서 유학을 했다는 거 자체가... 버터소주 먹어봤나 모르겠네. 버터 소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고 용기 낸 거 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이런 거 나 소개팅하는 거 잘 못해요. 그렇다고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새해에 피하지 않기로 약속. 하하하

최경진: 나는 영광 노란색 들핀 팬츠를 입고 제아의 종소리를 비트 삼아 트윅킹을 추며 깜찍하고 예쁜 내 모습을 KBS 공영 방송에 내보내 셀럽이 되겠어!!! 팬들에게 줄 포카도 잊지 말아야지. 데헛-★

고동범: 자칭 방탄소년단 제 8의 멤버. 실제로 다이너마이트 춤 연습을 하다가 들린 적도 여러 번 있는데... 현재 난 빅히트 건물 앞. 나의 기와 재능을 맘껏 펼쳐려 왔다. 날 잡지 않는다면 이거 국가적 손실... 방시혁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기 방시혁 자리에 익숙한 뒤태가..? 잔... 박은요??

구민화: 친구들과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멍 때리다가 석준이가 쏘아올린 폭죽 격추시키기 **노민욱:** 교자 보며 친구들이 뭐할지 상상하기
박은요: 지금껏 난 Hip Hop의 꿈을 키워왔었G... 하지만 대한민국은 내 흥을 감당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빌보드를 노리고 있G~ 빌보드 1등 쪽은 BTS 선배님들~ 한 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Big hit 건물로 들어갔G~ 그런데 이게 누구야? 예비 BTS 고동범???

송호진: 내 이름은 축구왕 찰진재 호진, 탁트 스티다. 어제 찍은 '새해 맞이 기념 72시간 연속 드리를 촬영지'가 아주 핫하다. 후후..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인기 영상 1위 탈환 뿐.

이도윤: 수면 **이태림:** 알거없잖아 **전영진:** 술 마시는 애들 사이에서 사이다 마시기 **정경원:** 타종행사 보면서 소원 빌기(?)
차수민: 자칭 마리오 카트 장인 차수민, 2022년 00시 00분 종이 치자마자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 마시면서 마리오 카트를 즐긴다. 근데 마시다 보니 한 잔 밖에 못 마시고 포기... 난 ㄹㅇ 알프스인가 보다...

최석준: 여자친구랑 올왕리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을 거 같다. **최장원:** 친구랑 술집 앞에서 카운트 세기

한영은: 가뿐히 수능 만점 맞고 유퀴즈 출연했는데 강하를 닮은꼴로 인기 폭발... 하지만 포장마차에서 친구들이 시킨 안주 다 뺏어 먹다가 인성은 란 터져서 자숙 중.

한근범: 어어. 귀여운 꼬마 아가씨. 나랑 술 한 모금 적실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향수까지 루어비통 감싼 나를 거부할 이는 아무도 없다. 아가씨, 이런 클럽에서 놀지 말고 내 100평 대저택에서 와인어랑 과일치즈를 즐기자구..





3학년 5반 릴레이 소설!

권보경 : 아주 먼 옛날, 하늘마를 3~5에 잘생긴 양치기 소년 주석과 28마리의 귀여운 양들이 살고 있었어요

김은희 : 그러던 어느날 양 1마리가 실종되었고, 그 후 일주일간 총 5마리의 양이 사라지자 주석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창은 : 그 시각, 차레차레 탈출한 5마리의 양은 풀밭에서 신나게 먹방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 이 집 풀 잘하네~"

박가은 : 그러다가 그들이 풀밭을 날 돈이 없자 풀집 주인이 아주 깜말하고 더러운 사육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길

사수현 : "너희를 구하러 양치기 소년이 하루 안에 왔을 때대대대대대!!만 너희를 풀어주겠다"

손채현 : 양들은 절망에 빠져 울기 시작했어요

신현지 : 한참을 울던 양들이 하나 둘 지쳐 조용해지자 한 양이 말했어요. "아, 괜히 울었다. 배고파졌어"

이나영 : 하지만 사육장에 갇힌 그들 주변에는 더러운 오물만 가득했어요

장서현 : 양들이 이런 극한상황에서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왠지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 거북이 한 마리가 양들 쪽으로 엉금 엉금 기어와 양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윤영 : "애들아 무슨 일이야?"

조희서 : 거북이에게 친근감을 느낀 양들은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양들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도움 주기를 거절했어요.

권성민 : 성적에 예민한 양들은 거북이를 잡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등껍질을 갈아서 열쇠를 만들었어요

김규민 : 양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열쇠를 이용하여 사육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양들을 가두었던 주인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홀리 마더퍼더 싯!!" 순간 양들은 겁에 질렸어요.

김동욱 : 그 시각 하늘 마을에 있는 양치기 소년 주석은 사라진 양들을 찾아 숲속에서 야생 멧돼지와 마주쳤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주석은 기절했고, 숲속에서 멧돼지의 신 '마우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태원 : 주석은 마우이에게 양들이 성적이 저조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물론 도움을 거절한 거북이 때문이 아니라 성적에 개판인 양 때문이죠^^)

김태윤 : 분노한 주석을 5마리 양을 구하지 않는다면 3-5의 성적 평균과 표준편차가 크게 개선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희찬 : 그래서 주석은 그냥 집에 가서 저녁을 아무렇게 먹고 배를 쓸며 잠이나 잤습니다.

나규민 : 그런데 꿈에 양들이 나타나더니 주석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고, 너무 화난 주석은 꿈에서 깰습니다.

노종현 : 꿈에서 깨고보니 지상낙원이 펼쳐지며 평화로운 기분을 느낀 주석, 하지만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주석은 탁자 위에 팽이를 돌려보지만, 맵소사, 팽이가 멈추질 않습니다.

노한빛 : 그래서 잠이 덜 깬다고 생각한 주석은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박성현 : 그렇게 정신을 차린 주석은 다시 양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배연욱 : 길을 떠난 주석.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마을이 90도로 접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팽이를 돌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림보, 즉 꿈 속의 꿈 속의 꿈 속의 꿈...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HOLY SH*** INCEPTION

배현욱 :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권성민이 선생님을 깨우기 위해 엉덩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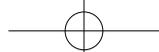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안세일 :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한 주석이 성민을 향해 팔을 휘두르자 꿈에서 깨어났어요!

엄진욱 : 성민 덕분에 모든 꿈에서 깨어난 주석은 상황 판단을 한 뒤, 그래도 다섯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을 했지만, 사실 다섯 마리 양이 사라진 게 아니라 권성민이라는 양이 점심으로 모두 먹어 치웠다 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재용 : 그 즉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힘을 빌려 권성민을 잡으러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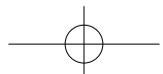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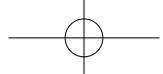
장예준 : 주석은 양들의 복수를 위해 출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엉덩이 괴물 권성민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엉덩이 괴물의 뺨속에서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양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잠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엉덩이 괴물을 무찌러야겠다고 생각한 주석은 망설임 없이 엉덩이 괴물에게 달려들었어요!!

최유빈 : 주석이 엉덩이 괴물의 눈에 믹스커피 분말을 뿌린 뒤, 포스터 통으로 엉덩이를 두 대 때리자, 엉덩이 괴물을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다섯 양들을 모조리 토해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양들을 멋지게 구해낸 우리의 양치기 소년 주석은 28마리의 양들 모두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할 것 같은 사람은?

1. 강소희 → 이승준 : 타자가 가장 빠른 것 같은 사람
2. 공선영 → 김유진 : 가장 먼저 사회생활 시작해서 선배미 뽐낼 것 같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연애했 것 같음!
3. 권현영 → 하지승 : 가장 먼저 도둑 때려잡을 것 같은 사람
4. 김다민 → 송민규 : 인스타 해시태그 #오늘운동 #무산소 #프로틴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사람~
5. 김수진 → 최현진 : 가장 먼저 억만장자가 돼서 김수진의 내집마련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
6. 김유진 → 황교빈 : 가장 먼저 청바지 모델로 길거리 캐스팅 당할 것 같은 사람..
7. 노주현 → 양현서 : 가장 먼저 하늘고 9기 정모 열 것 같은 사람
8. 노혜빈 → 정민호 : 대학교 강의 시간에 다른 과제 하다가 교수님한테 가장 먼저 걸릴 것 같은 사람
9. 배정인 → 김다민 : 가장 먼저 강아지 유모차 끌고 다닐 것 같은 사람
10. 백소아 → 이승찬 : 자취를 먼저 할 것 같은 사람
11. 서희 → 최승인 : 가장 먼저 노벨상을 탈 것 같은 사람
12. 장민서 → 정동진 : 가장 먼저 핑크색 앞치마 두르고 애기 똥기저귀 갈 것 같은 사람
13. 차미나 → 최정우 : 가장 먼저 운전면허 딸 것 같은 사람
14. 최현진 → 김광민 : 동창회 귀찮아서 참석 안 할 것 같은 사람
15. 홍효진 → 공선영 : 독립하면 가장 아끼자기한 인테리어 할 것 같은 사람
16. 김광민 → 김소희 : 가장 먼저 술마시고 선생님께 전화드릴 것 같은 사람
17. 박정민 → 백소아 : 가장 먼저 룡패딩 입을 것 같은 사람
18. 송민규 → 차미나 : 제일 재밌게 술 마실 것 같은 사람
19. 양현서 → 노혜빈 : 대학교 축제에서 제일 목소리 클 것 같은 사람
20. 이승준 → 권현영 : 야심차게 여행 준비해놓고 공항에 여친 안 챙겨 갈 것 같은 사람
21. 이승찬 → 서희 : 가장 먼저 술마시고 취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출 것 같은 사람
22. 정동진 → 배정인 : 쥐라기 공원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것 같은 사람
23. 정민호 → 조무현 : 가장 여자를 잘 울릴 것 같은 사람
24. 조무현 → 최준원 : 가장 먼저 TV에 나올 것 같은 사람
25. 최승인 → 박정민 : 가장 일 잘하는 교육부 장관이 될 것 같은 사람
26. 최정우 → 장민서 : 가장 먼저 운전면허 따서 첫날에 글을 것 같은 사람
27. 최준원 → 김수진 : 동창회에 가장 화려하게 등장할 것 같은 사람
28. 하지승 → 노주현 : 무인도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것 같다.
29. 황교빈 → 홍효진 : 가장 먼저 동창회를 주최할 것 같은 사람



2022년 1월 1일 00:00에 뭐할거야?

- 권민서** : 가족들과 여행가서 불꽃놀이 보기
- 권시은** : 우리 집에 생명체 하나 데려오기
- 박서진** : 가족들이랑 바다에서 불꽃놀이 보며 술마시기
- 박세희** : 가족들과 해외에서 술마시며 새해맞기
- 배민경** : 민경이의 검색과정 인스타라이브하기
- 백지민** : 가족과 술마시면서 영화보기
- 서영** : 바다 보이는 곳에서 가족들이랑 맥주 마시기
- 석채인** : 우리집 강아지 근육 멍멍이로 만들기
- 신수연** : 남치친구와 12시 땡치면 편의점에서 민증 검사 받고 술사기^_^
- 양선우** : That's hot. (가요대제전 보면서 맥주갈 듯)
- 이지민** : 20살 축하한다고 기프트콘 보내고 있을 것 같다
- 하수진** : 민경의 말이 옳아
- 하지은** : 친구들이랑 직접 술 종류별로 사서 마시고 영화보기
- 한다인** : 친구들과 날밤 새며 홈파티
- 김상훈** : 김상훈-친구들과 술마시며 노는중
- 김현우** : 잠
- 문원국** : 가족들과여행가서 술마시고 놀기
- 박상현** : 롤 마스터 승격전
- 박성주** : 새벽공기 마시며 드라이브
- 박준한** : 가족들과 여행가서 술마시기
- 송영조** : 가족들이랑 신라호텔가서 스테이크 썰기
- 신한울** : 임플란트 하기... ㅠ ㅠ
- 양창호** : 엄마아빠 손잡기
- 이승준** : 조용하고 풍경이 예쁜 곳으로 여행가서소중한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 이정훈** : 준한이네 가족들 여행에 달려가기
- 정준원** : 파티
- 한승우** : 번지점프하기
- 허승준** : 술집가서 술 먹기

2022년 1월 1일 00:00에 뭐할거야?

- 경윤서** : 이맘때 내가 깨어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다 잠자기...
- 권도경** :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하기
- 김세정** : 부모님과 야식과 함께 술마시기
- 김윤서** : 감사한 사람들에게 새해 인사 전하기
- 김지유** : 새해 목표 다짐하며 케이크 먹기
- 김하늘** : 장명교(?)랑 호텔 빌려서 밤새기
- 박성원** : 넷플릭스에서 당당하게 내 아이디로 청불 영화 감상하기
- 박은별** :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과 함께 술마시며 20살의 시작을 알리기!
- 성채현** : 명상하기
- 신민주** : 최경진 트윙킹 공연 관람하기
- 엄채영** : 친구들과 술 두잔 꽤 들이켜려 할 때 이미 엎어져 자고 있기
- 이민아** :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거 옆에서 구경하기
- 최서영** : 말레피센트 옷 입고 연말 파티
- 최지혜** : 소원 빌기
- 한채린** : 새해 인사하는 친구들 옆에서 조용히 폭탄주 제조 중
- 국예성** : 강남 아래나 조지기
- 권혁** : 친구들과 술마시고 노래방 갔다가 피시방 가기
- 김민서** : 친구들이랑 바다가서 소주에 닭발 먹기
- 김수환** : 친구와 밤새기
- 김승민** : 아이폰 사서 유튜브에서 조작법 배우기
- 박재준** : 세계여행가기
- 박태오** : 친구들과 새벽 등산하기
- 서기범** : 딱 코딩하기
- 손준호** : 친구들과 바다구경하며 일출 기다리기
- 안홍상** : 딱 공부하기
- 이한석** : 친구들이랑 술먹으면서 세계여행 계획짜기
- 최성안** : 사랑하는 사람들과 파인애플 동동 소주로 건배하기
- 함지성** : 새해 종소리와 동시에 친구들과 건배하기



하늘나래X잉클링 | 10TH

하늘고등학교의 10주년을 맞이하며

Whether you are a genius or not, you'll be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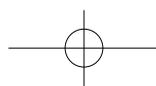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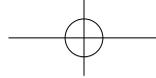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INKling

10주년
축하기사
진로관련기사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IHA, Back to the basic
Science technology of vaccine
The symbol of number

INKling—
10, 1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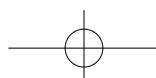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Science Technology of Vacc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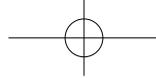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What science and technology has contributed the most to human history?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it is a vaccine. Vaccines are the core of technology that has freed mankind from disease. I will look at the progress and history of vaccines. And I'd like to talk about the DNA vaccine and the mRNA vaccine that are in the spotlight today.

The first-generation vaccine used was the virus itself. Edward Jenner used live cowpox as a vaccine to prevent human smallpox. Direct use of weakened or sterilized viruses can activate cytotoxic T cells and helper T cells and induce antibody responses. However, the weakened live vaccine was at risk of causing infection in the human body.

Generation 2 vaccines use some of the proteins in the virus to reduce the risk of a live vaccine. It uses a virus-separated protein or recombinant protein produced from the protein gene. Helpful T-cell and antibody reactions can be induced, but cytotoxic T-cell reactions may not occ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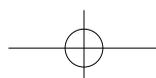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 DNA vaccine is a third-generation vaccine. A DNA vaccine is a direct injection vaccine of a piece of 10 DNA from a vi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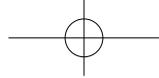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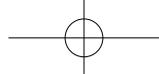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When a DNA vaccine is injected into a human or animal, the cell synthesizes antigen proteins from the injected DNA. It is possible to vaccinate by producing antibodies through immune responses to this antigen protein. It is also called a genetic vaccine because it uses genes as a vaccine. DNA vaccines can be stored at room temperature for more than a few months. However, the disadvantage is that fewer antigens are produced in the given population, resulting in lower immune response and preventive effects. Astrageneca vaccine is a typical 10 DNA vaccine.

The fourth-generation vaccine is the most popular mRNA vaccine these days. The mRNA vaccine differs from conventional vaccines that use weakened viruses or proteins from viruses. It is to inject mRNA containing the genetic information of the virus. Then, immunity is created by having protein spike components, the iron-shaped bumps surrounding the virus, be made in advance. The mRNA vaccine consists of mRNA parts and lipid nanoparticles. When vaccinated, mRNA produces spike proteins in the human body, and the human immune system detects them and produces neutralizing antibodies by causing immune responses. The mRNA vaccine has the advantage of short design and production periods if only the genetic information of the virus is known. The disadvantage is that distribution and storage are difficult because RNA, the main ingredient, is easily decomposed by RNAase.





Pfizer vaccines and moderna vaccines are typical mRNA vaccines. The 21st century world is suffering from Corona 19. The world has made efforts to overcome the virus, resulting in DNA vaccines and mRNA vaccines. A paper has been published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herd immunity with vaccines due to the outbreak of mutated viruses. But it would be undeniable that vaccines are reducing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I will note whether the vaccine will be a game changer to free the Buddha world with Corona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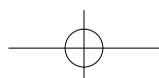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 interview with Teacher John Cow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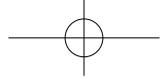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Incheon Sky High School.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Haneul High School, I interviewed Cowie, who had been a teacher at school for a long time. John Cowie is a native English teacher who has been working at Sky High School for nine years. His class is very helpful to students. He told me his thoughts on Sky High School and students.

Q. As far as I know, you have been a teacher since the beginning of Haneul High School. Haneul High School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How do you feel?

A. I actually started in 2012, which was the second year. I have always felt lucky to work here, it's such a dream job. I'm one of the only teachers to have taught almost every student in Haneul's history. That's cool.

Q. Who is the most memorable student you have ever taught for





10 years? What is the r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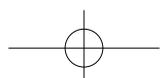
A. There are so many memorable students I can't name one. I'm still in contact with a lot of graduated students and even meet them socially sometimes. It's interesting to meet them as ad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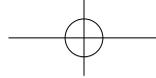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Q. Actually, it's not easy to talk to Korean students, what do you think?

A. Of course it's easy, that's why my job is so great. Talking to students is the best thing in the world. The students are always a little shy when they first come here, but then they get comfortable with me quickly when they see we are all just the same even though our faces look a little different. I always try to be friendly and approachable and that helps.

Q. Listening to the teacher's class helped me a lot to know the vocabulary used by native speak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tell students who are studying English hard?

A. Everybody is going to need English at some time in the future and even though my class doesn't have grades it's really important for all of the students. Take notes and learn all you can, if you wait until you're an adult, the classes are really expensive.





Q. What made you become a native English teacher in Korea?

A. I came to Korea to travel and work for a year, but I fell in love with Korea and also met my wife. I think it's the best decision of my life, I am so happy here.

Q. What are the advantages of our school while teaching students at Haneul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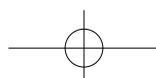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 Haneul has excellent leadership and they have always wanted the best for the students. I think Haneul students are lucky to have such great facilities, it's really one of the most beautiful schools I've ever seen.

Q. What do you think are the advantages of our school students?

A. Haneul students are brilliant and wonderful people, it's a real honor to be able to teach some of the brightest students in Korea. In ten years, I've had almost no problems or any disrespect in my classroom. I've heard stories from other high schools and I hear some students are very mean and difficult, but not here.

Q. When was the most fun moment in school?

A. It's always been sports day or the year-end festival (hakseuljae) because the students are really happy and I like to se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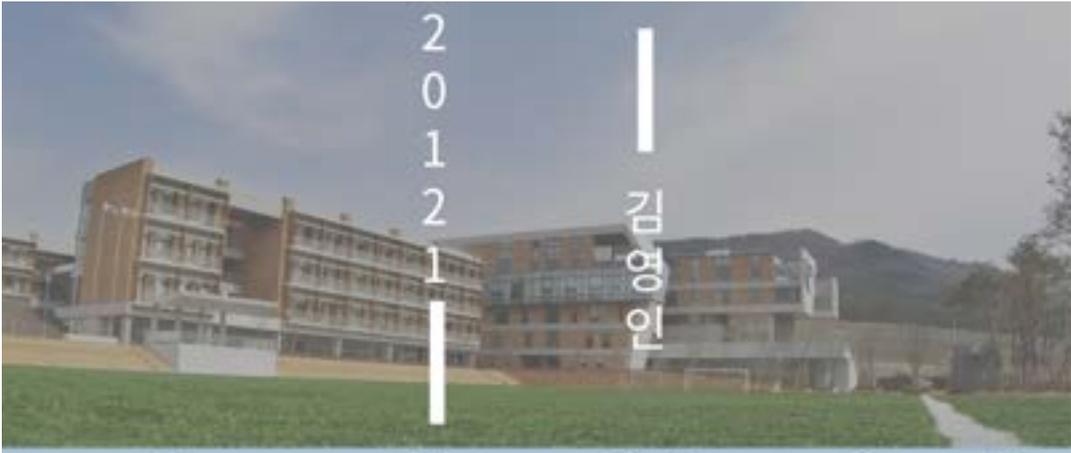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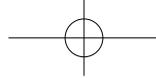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smiling. Too bad about corona, I hope we can start having those again.

Q. What was the most delicious school lunch?

A. I like the food here. My favorite school food is the soup, yukkaejang, miyukkuk, seollangtang and seogogi mukuk are the best.

Q. Lastly,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the Haneul High School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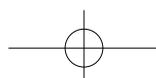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 I know life can be difficult here, but you're young, healthy and strong and life will get better, I promise. Rejoice in your youth and be kind to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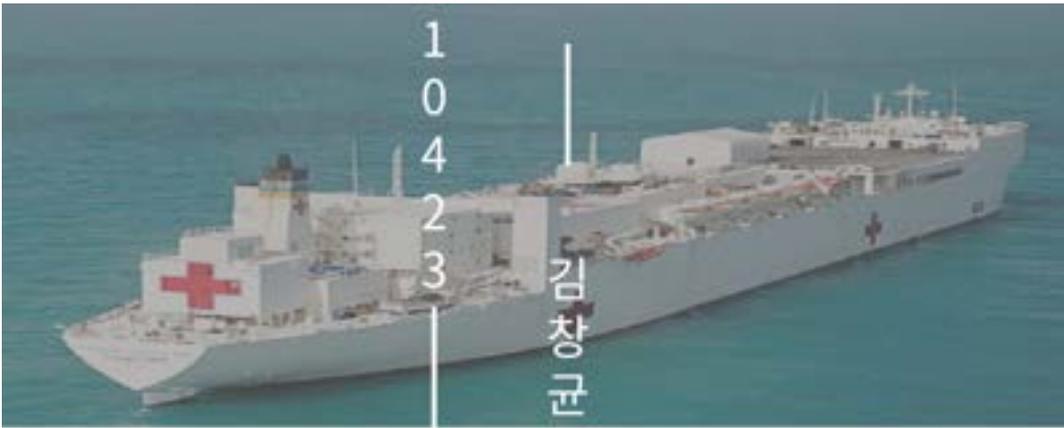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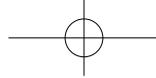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Incheon Sky High School with us for **10** years.

Incheon Sky High School, which mark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is a place full of students' dreams and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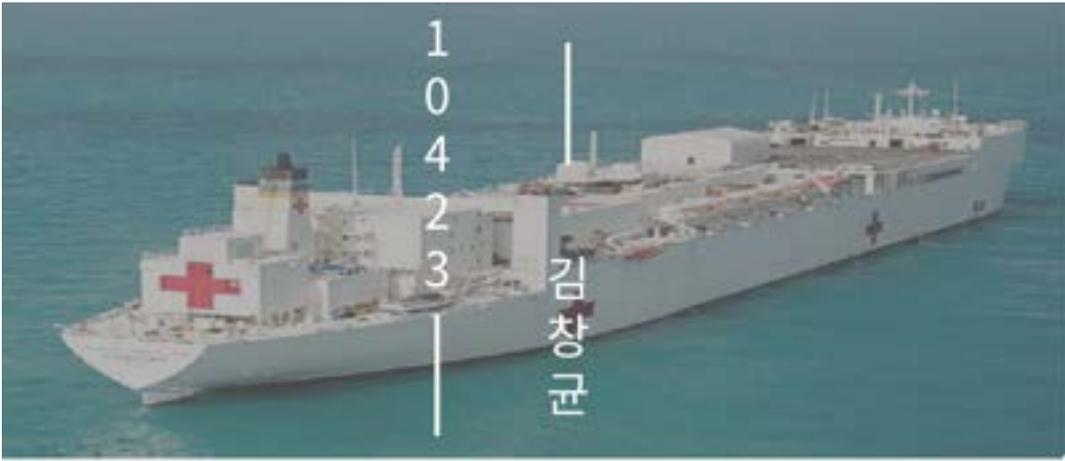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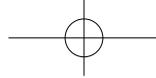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Incheon Sky High School helps students grow into world leaders at the center of a classy Dream Society dedicated to the world and humanit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various creative collaboration programs with teachers that awaken students' infinite potential. Incheon Sky High School's educational philosophy goes beyond simply creating students who are good at studying to foster open-minded global talent. Character, Commission, and Competence are Incheon Haneul High School, which fosters talented people with global capabiliti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schools, education to develop capabilities, and practice of dedicated lives. After graduation, students of Incheon Sky High School will always be in our society, like Joojak, the guardian god of heaven and a helper who helps the good who sometimes leads the world, helps the neighbors, and still helps the good. I hope that many students will come to Incheon Sky High School and spread blue wings that fly to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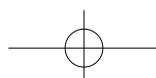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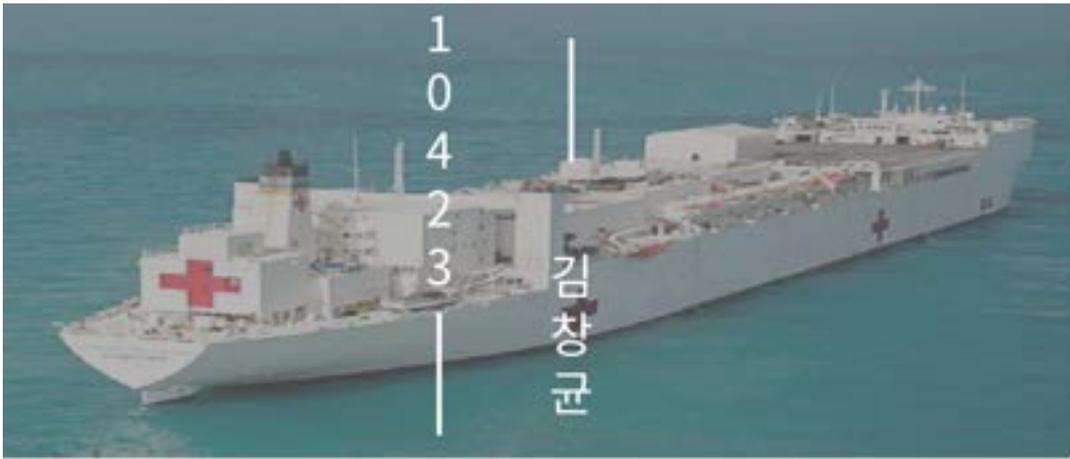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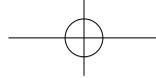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A hospital ship : Movable field hospital

When a war breaks out, arming is important medical facilities retreating soldiers also become an important factor for the genuine victory . However, when we are in war, if the distance from ferocious battlefield to hospital is too far, or we face the situation that we can't get there, it is certain to be tough. In this reason, it seems important to get hospital ship for preventing the worst. Among the advanced in military countries, for example, USA and Russia(plus, China), USA has 2 Mercy-Class things, and Russia has 3 B-320 Ob'-Class.The Mercy-Class weights 54,367t and displacement is about 70,000t. This is similar to Admiral-Kuznetsov-Class Aircraft carrier. Also in the medical law of our country, the standard that a hospital can be called as general hospital is that it needs to have more than 100 sickbed, and 7~9 medical courses. But Mercy-Class has 900~1,000 sickbed, CT, MRI, 12 operating rooms that are able to have emergency surgery. And it also has physiotherapy clinic and air landing facility



for big-scale-chopper that most of our general hospitals do not have. While the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 those high-level hospital ships, our country has 5(110~170t) things for civilian and 3 Hansando-Class(ATH 81, 4,500t) for military. Although the main mission of ATH 81 is training, it can have 3 operating rooms and also have doctor's office and patient's room on to move the World." So, in an emergency, it can be used as hospital ship. And because it also has a landing facility for choppers in the back-side, it can perform life-flight critical patients. In the result, our country doesn't have Mercy-Class-like giant hospital ship that can be called as 2nd-General Hospital. In fact, when the hospital ships are in action, it takes so many budgets that ,in the USA, many people say that the Mercy need to be discarded, (it takes 1 billion ₩). A militarist said, "Considering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it is better to utilize multipurpose ships(MPS) like ATH 81. "In present, China already has 2(20,000t) and 4(2,000t)things, plus, they planned to build 2 more. And Japan is planning to order less than five hospital 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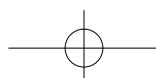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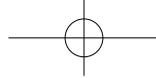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A new news at the end of the writing.

It is the news that Haneul academy that currently organizes writing this article has greeted its 10th anniversary. It is a school that values character, commitment, and competence. In this reason it carries various programs into effect such as Global meeting, Classical concert ,etc.... There's many club departments that students can widen their understanding to their goals and can join diverse activities.

Also the facilities in this academy are kept clean so you are allowed to have a pleasant school life and there are environments that are optimized to broaden knowledge such as a large library and study rooms. And the academy also has ideal scholarship system so anyone who studies in passion can get it any time. By 2020, 2.29 billion has been disbursed. Being considered all of these contents its satisfaction level was over 97.30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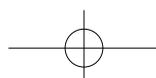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Let's grow our dream at Haneul academy whose slogan is
"Soaring for Dreams, Passion to Move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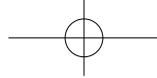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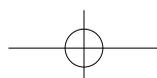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Soaring for a dream, a passion that moves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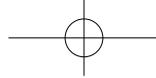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Incheon Haneul Academy, we are going to learn more about Haneul Academy, which even students at our school don't know well. Incheon Haneul Academy opened on March 7, 2011. The establishment of Incheon Haneul Academy was aimed at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near the airport to provide stable settlement conditions for airport workers and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o teach is to give hope. Every student has infinite potential. Teachers need to develop students' potential. To do that, we have to wait, praise, encourage and acknowledge." "Studying well doesn't make you a great person. Even if you can't study well, you can be a great person. Teachers should leave their possibilities open and teach students. A word of praise and encouragement from the teacher will open up infinite possibilities for children." Principal Kim Il-hyung says students should develop their potential through "self-fulfilling prophecy,"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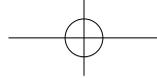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raise, encouragement, recognition, and waiting. The Incheon Airport Corporation's willingness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by consider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was also reflected. Incheon Haneul Academy does not allow private education, but provides a variety of special lectures other than regular curriculum so that students can have a wide view. When asked about airline employees and workers related to airport operations after the opening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re were many demands for education. The proportion of students from other regions is lower than that of othe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It can be seen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chool, which is to develop regional education and resolve educational conditions for airport workers, is well implemented. Our school runs a curriculum for balanced growth as a professional that has grown and nurtured all-round human beings with both intellectual, moral and somatic skills. In addition, the tutoring system, which receives learning guidance of professional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is helping students not only in their curriculum but also in their learning methods. It also strives to have the right perception and thinking through revitalizing forums and strengthening reading, writing, and educ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udent council. Based on these detailed informations about Haneul Academy, I hope that our school students can take pride in their school and develop their cap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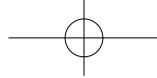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IHA, Back to the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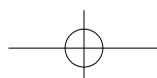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In 2021, Haneul High School in Incheon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I would like to look back on whether Haneul High School fits the essence of the school. The virtue that school requires to students is Chracter, Commitment, Competence. It's a fundamental element of human nature before it's a student's virtue. Focusing on the school's goal 'Back to the Basic', IHA is running various advancement curriculum shch as IIP. However, students living on tight school schedules often suffered from exhaustion. What's more, we hardly get time alone because we live in a dormitory. Students feel eshausted in this difficult situation. At this point, these schedules can develop individual competence, but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can develop virtues of Character or commi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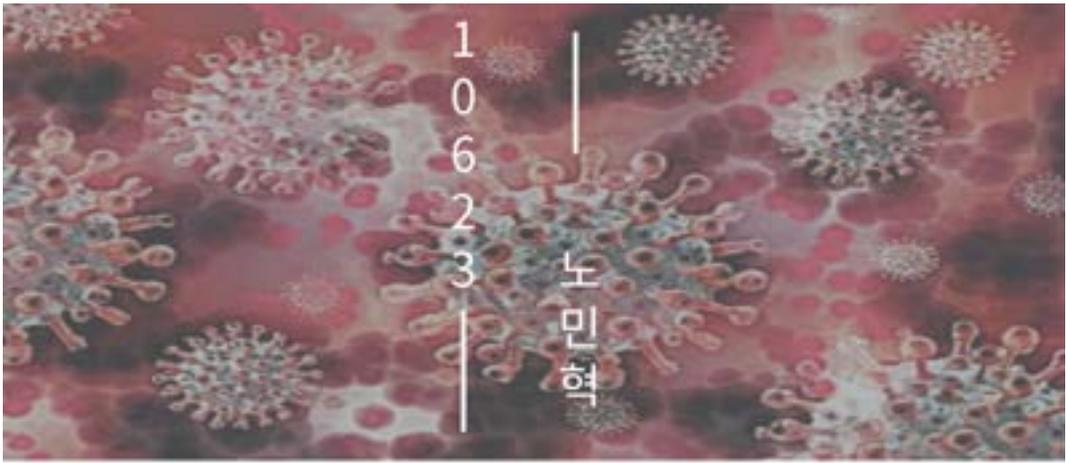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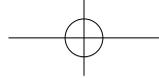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Once, the content of "Fake Man" had become a hot topic on YouTube. It was about broadcasters experiencing the Navy Special Fleet UDT program, they were pushed to the extreme situation and had to cooperate with their teammates to complete the mission. In a video, there were people who wanted to be comfortable only with themselves, whereas there were people who thought about their teammates first regardless of the situation. When pushed to the limit, people reveal their real feelings. Therefore I think when in difficult situations it is more valuable to put into practice the more consideration and dedication. Likewise, commitment students make in tough situations increases their character themselves and also school gains stature. In this sense, Hanul High School is faithful to its essence and helps students enter society with the right virtues. What is necessary for a school to become a prestigious high school? I think students should take pride in their school. When I hear that my seniors, who graduated from school first, are active in society, I envy them and feel proud of m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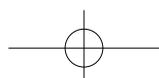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We respect our seniors, and when thinking about the respect we will later receive from our juniors we have a motivation to live hard. Even after graduation, if students have a lot of good memories and pride in school, I think the school is essentially qualified as a prestigious school. I thought about the reason why we study. Studying is also important for brain development to improve reading ability by simply improving computational ability, but I think the biggest reason for studying is accumulation of experience. Many years later, we may not remember each grades of test. However, we remember the moments when we worked hard. After graduation, you will experience many things in society,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lived a relatively short life may not easy to handle it. But I think that memories of living faithfully in the basics and experiencing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high school can become self-esteem and confidence as we live in the future. When the school was established, the goal was to get students back to the basic. Mission accomp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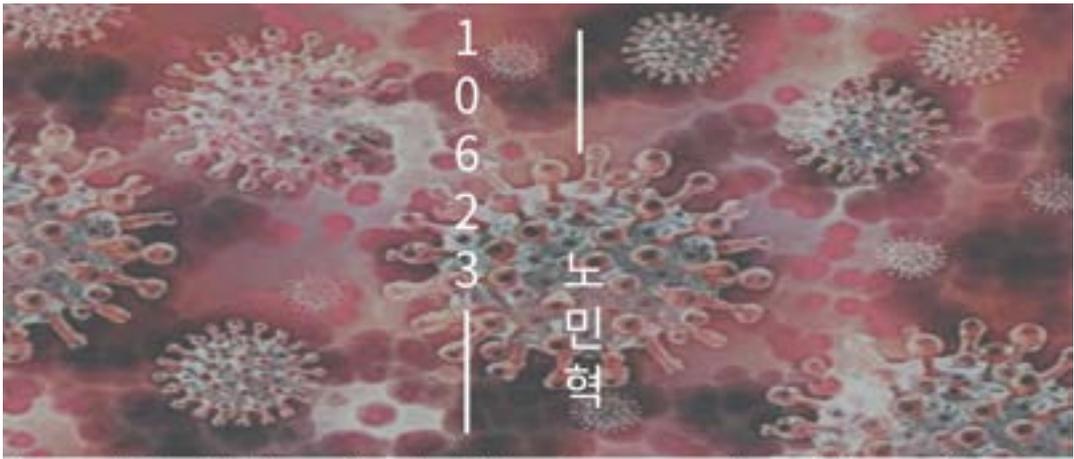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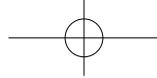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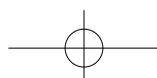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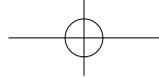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COVID-19 was first reported and spread in China to date. It is an infectious disease that continues all over the world. COVID-19 is China's biggest problem. It is a disease that shows pneumonia symptoms that first started in Wuhan. COVID-19 The main route of transmission is transmission by respiratory drool (smear) in infected people. Therefore, COVID-19 is transmitted very easily like a cold, so it's now and now. The same situation emerged. Major symptoms include fever (37.5°C or higher), Cough, shortness of breath, chills, muscle pain, headache, sore throat, olfactory and palate. Other symptoms include fatigue, decreased appetite, phlegm, digestive symptoms (wrongness, vomiting, diarrhea). confusion, dizziness, runny nose, stuffy nose, bleeding, chest pain, conjunctivitis, There are various skin symptoms and so on. COVID-19 does a lot of damage to individuals, but it does a lot of damage to groups. COVID-19 national average weekly confirmed cases in Korea. 800-1,000 or more people, doubling in 2.5 situations, etc. Elevate social distancing to three levels in the event of a sharp increase in patients Almost across the country, many facilities were shut down and people were working together. A terrible economic blow that limits gathering to an impossible level. It also affected schools with COVID-19. The start of school has been





delayed. Social distancing has led to the conversion of face-to-face classes to online classes. In the early days of COVID-19, all students had full online classes. I don't know if there's a proper education going on online, and I'm thinking about it. The level of school exams was also relatively low. Also, the CSAT was postponed. Currently, our Haneul Academy is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Our school had no 10th anniversary event with or without COVID-19. But other schools and workplaces have a meaningful day there. We're gonna have to do a follow-up event when we face it, probably COVID-19. Therefore, the event will not be able to proceed smoothly.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Korea was less than 500 until the day before yesterday. Suddenly, nearly 700 people are bothering us again. As such, COVID-19 is an epidemic that needs to be put to an end quickly. Now a vaccine has been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et vaccinated, wash your hands properly, and frequently surround your surroundings. It can prevent COVID-19 by disinfecting and ventilating. I hope the day comes when I take off this mask as soon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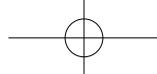
A Public Holiday of Korea and 10 Holidays of U.S

A public holiday is a holiday officially designated by a state or public institution. Usually in Korea, if it is written in red on the calendar, it is recognized as a holiday. We love to find that there are holidays on weekdays. Because it would be nice for anyone to be able to relax on a day not the weekend while living a busy life. Especially if there is a holiday on Wednesday, it is more convenient because you only have to go to school or work for two days between holidays.

In Korea, national holidays including Sunday, Samiljeol, Liberation Day, National Foundation Day, Hangeul Day,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are designated as public holidays, as well as presidential election day, parliamentary election day and local election day. In 2021, May was the month to enjoy the holiday. Children's Day on May 5 and Buddha's Day on May 19 were both located on Wednesday, making many people satisfied.

- Furthermore, our Incheon Sky Haneul Academy held a sports competition in the third week of May. Students could have had enough rest for three weeks.-

Then how about a foreign holiday? The U.S. designates holidays as Mondays and Fridays of a particular week, so that weekends and holidays don't overlap. Thanksgiving is due Thursday, but the very next Friday is also a hol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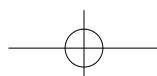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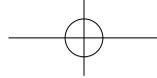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 It is a very enviable fact for Koreans who are sad when holidays overlap with weekends and have fewer days off.- Britain and Japan are tolerant of the application of holidays, such as allowing to rest the next day if voting days overlap with holidays or Sundays, and allowing days to rest in between if there is a stepping stone holiday.

Let's learn more about American holidays. There are a total of 10 holidays a yea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year of the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there are 11 days, and it is fewer than in Korea.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divided into the date-fixed days and the day-fixed days.

First of all, the date whose date is fixed. The holiday's own date is fixed, and if that day is the original holiday, it shall be observed the day before or after. There is New Year's Day on January 1st. It is the biggest holiday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anksgiving and Christmas, the two biggest holiday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every four years, Independence Day on July 4, Veterans Day on November 11, and Christmas on December 25. Christmas is America's biggest holiday with Thanksgiving, and is called the National Hol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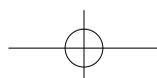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Next is a day-fixed day. It is usually designated on the X day of the month.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date changes every year, but it is usually designated as Monday, so the holiday is always guaranteed. There are Martin Luther King's Day on the third Monday in January, President's Day on the third Monday in February, Memorial Day on the last Monday in May, Labor Day on the first Monday in September, Columbus Day on the se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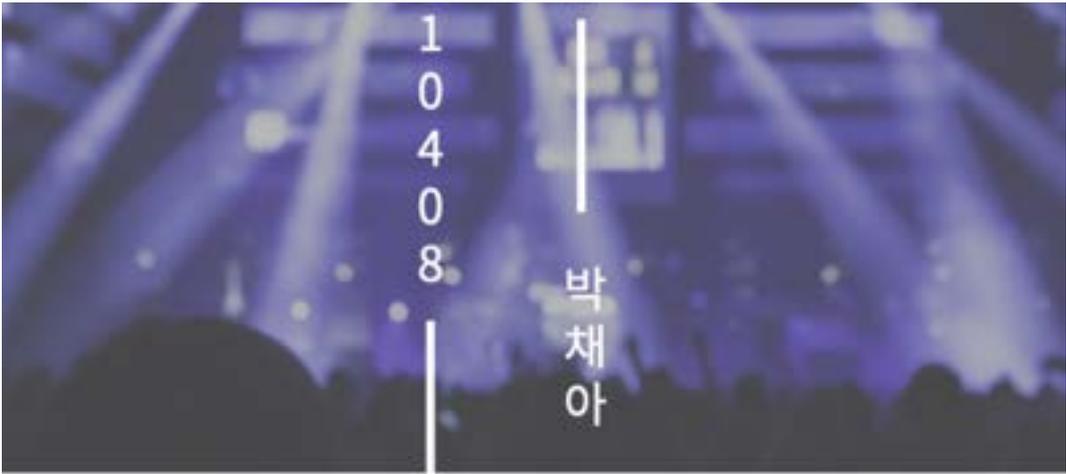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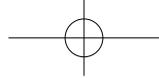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Monday in October, and Thanksgiving on the fourth Thursday in Nov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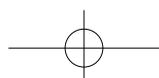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Like this, we recognized Korean and American holidays. It's good to be able to rest on a holiday, but it's also important to know the meaning of the day. Let's pay attention to why it's designated as a public hol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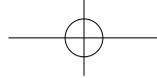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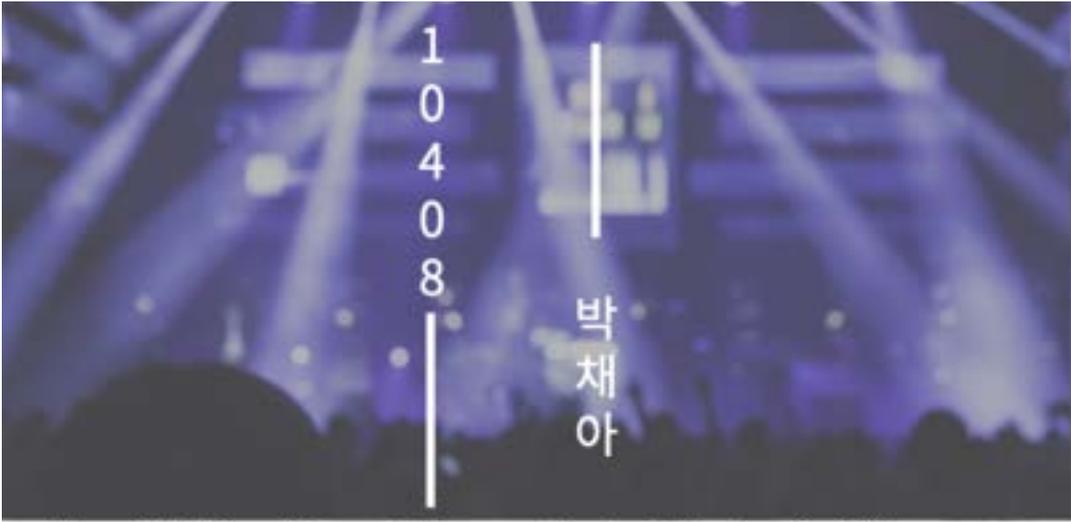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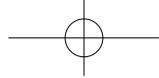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10 years of K-pop culture development

Incheon Haneul Academy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Our school has made a lot of progress for a better living environment for student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has increased so far. Over the past 10 years, not only our school but also our country's representative K-pop culture has become more popular.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K-pop, the pride of our country that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over the past 10 years. First of all, EXO, a nine-member boy group from SM Entertainment,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in 2021. In the beginning, the youth group was the main fandom, but in addition to popular music such as "CALL ME BABY" and "LOVE ME RIGHT" in 2015, the number of fans in their 30s and 40s is noticeable as well as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members since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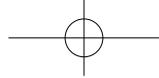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Also, B1A4 is a K-pop idol group that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It is a five-member boy group belonging to WM Entertainment, and it is considered to be an artist because it has not only excellent singing skills but also high-quality composing and writing skills. He succeeded in building a fan base based on his clean appearance and familiarity, and became the most recognized idol among his debut male idols in 2011. The representative female idol group Apink also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since its debut anniversary. Apink is a 6member group from PLAYM Entertainment. Like the name Apink, it has been a group of innocent girl images with songs, costumes, and choreography. Compared to girl groups that debuted around the same time, their fandom and recognition are quite high, which is one of the few successful idols who debuted in 2011. K-pop culture is currently developing in harmony with AI. One example is SM Entertainment's four-member girl group "aespa," which is making headlines by teaming up with members of the virtual world.



Also, B1A4 is a K-pop idol group that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It is a five-member boy group belonging to WM Entertainment, and it is considered to be an artist because it has not only excellent singing skills but also high-quality composing and writing skills. He succeeded in building a fan base based on his clean appearance and familiarity, and became the most recognized idol among his debut male idols in 2011. The representative female idol group Apink also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since its debut anniversary. Apink is a 6member group from PLAYM Entertainment. Like the name Apink, it has been a group of innocent girl images with songs, costumes, and choreography. Compared to girl groups that debuted around the same time, their fandom and recognition are quite high, which is one of the few successful idols who debuted in 2011. K-pop culture is currently developing in harmony with AI. One example is SM Entertainment's four-member girl group "aespa," which is making headlines by teaming up with members of the virtua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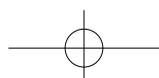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To celebrate our 10th anniversary

As I celebrated the 10th anniversary of Haneul Academy, I came to think about the history of Haneul Academy related with me. In 2014, when I was a senior in elementary school, I first came to the entrance examination briefing session of Haneul Academy. For me, who was less than 150cm tall, Haneul Academy was a very big space and school. Haneul Academy students dressed up in school uniforms looked like adults to me and looked cool. Looking at the students, I thought I would like such cool people to be my seniors. With that thought, my heart began to beat while looking at the navy school uniform. I was only 11 years old when my heart beat. After 3 years of middle school, I visited Haneul Academy's entrance examination briefing and decided to do my school life here. I went to the last entrance examination briefing in 2019 in the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and I talked with a school teacher with a nervous mind about whether I could do well. Then the day of the interview came. I was afraid that I, who was always nervous in front of others, would be able to interview well without shaking. But thinking that the future of my attending this school is right in front of me turned my nervousness into excitement. Sitting at my desk just before the interview, I began to look forward to the interview. With that anticipation and excitement, I finished answering without trembling,



without running out of time. I didn't give a perfect answer, but I was proud of myself because I thought I had an interview without regret. I screamed while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on the day of the announcement. Because I saw the sentence that I passed. I started making friends who became the 10th generation of Haneul High School and interacted with them and felt that I had become a real student of Haneul Academy. I got my school uniform, took pictures in my school uniform, packed my luggage, and entered Haneul Academy. It was not enough time to say that a year was enough, but I finished my first year of life, and I started my second year as a senior. Sometimes I think about how much I would have grown up as a child who first entered this school and now living in this school. I often think back about whether I've grown up to be someone who can make other young friends want to join this school. If you listen to other friends, there are friends who were interested in this school from the beginning, who accidentally ch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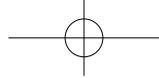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Incheon Haneul Academy

Incheon Haneul Academy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in 2021. I've only lived for three months here, but I want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is place, which will be my favorite place to spend the next three years.

I don't know much about Incheon Haneul Academy, but my sister, who is IHA 7th, still has a clear memory of here until now. She really loves the animals Here. She enjoyed following Sarang and the rabbits who wandered freely around the playground. I can't see Sarang now, but instead, the little cat 꼬맹이 and her family came here. Rabbits can't walk around the playground now, staying in the corner of it.

Spending two season here, I saw cherry blossom trees in the playground turning pink in spring and green in summer. My sister said that the playground here, covered with white in winter, is really beautiful. Not only just the playground but also every place here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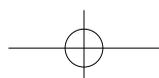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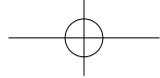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pretty and loving. I'll never forget the views I saw in the evening, walking all over the school at sunset. Everywhere the sun reaches shines red and is beautiful.

As you can see from winning the best award in the facility category, Incheon Haneul Academy has really good facilities. For me, everything I saw in this building after entering school was a fresh shock. It's cool that the main building's central stairway "주작대로" runs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floor. All classrooms' electronic blackboards, verandas, pretty playgrounds or Agora square, walking trails around dormitories, spacious gyms and fitness centers for students, table tennis tables, grasses and trees all over the school are all good.

The teachers here are all good college entrance leaders and warm seniors. Thanks to them, students endure their hard lives here and sometimes return to Haneul High School as teachers based on good memories with their teachers.

The school motto of Incheon Haneul Academy is 'Dream and Passion'. Accordingly, we live a life of emphasis on the 3Cs of Character, Commission and Competence. There are also var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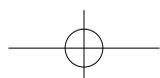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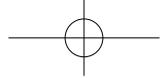
programs such as SpoArts and IIP for passionate students.

Incheon Haneul Academy also has an ideal environment to grow into a decent person. My older sister is really good at greeting, and it's also a habit that's hardened while living here. She also said that even if the school didn't intend to do, her mental strength was strengthen while living here. I also felt that I had grown up in this place where I always have to be with others.

Like this, three years at Incheon Haneul Academy was a good memory and will be a good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from the first generation to the present 11th. This means that Incheon Haneul Academy is so precious to students. The past 10 years that we have made will be a record of the sky high school and a stepping stone for future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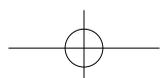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proud 10th anniversary of Haneul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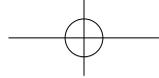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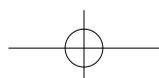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Biotechnolog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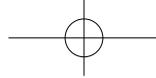
Biotechnology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inseparable. Due to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 lo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have been supplemented and newly created. In fact, there was also this kind of case. There was a man named 'A' who spent about 10 years in prison and was about to be released. But a day before his freedom, he confessed to police that criminal of one of the case that hadn't been solved in years is him. Why would he do that? This is because the DNA was collected from 'A' under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ct" which took effect since 2010. Thanks to biotechnology which can easily collect and compare DNA sequences, it was able to find the criminal in the case where the statute of limitations was just around the corner. First, what kind of techniques are there in forensic techniques? There are Fingerprint Identification, DNA Analysis, Blood Pattern Analysis, Microstructure Evidenc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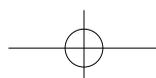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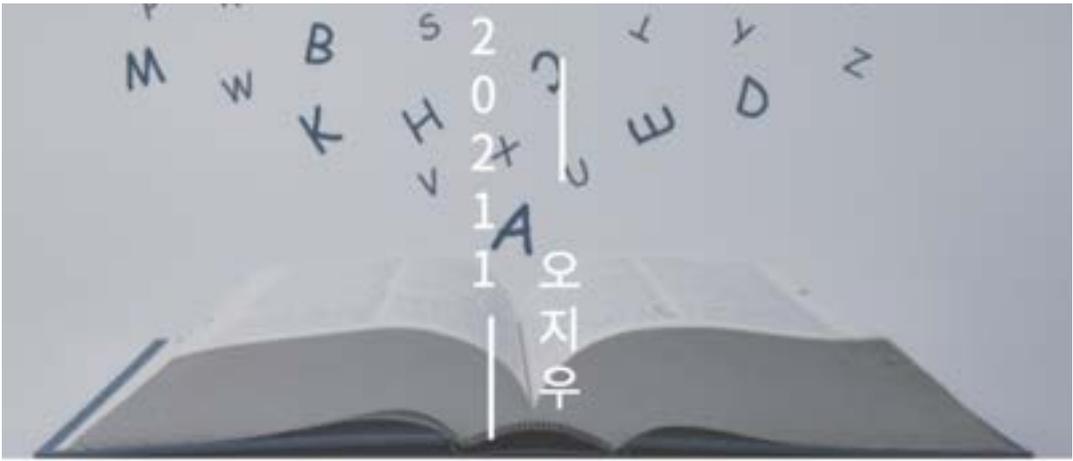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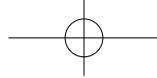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Longitudinal Analysis, Gait Analysis, Criminal Analysis (Profiling), and Underwater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One of the techniques that uses biotechnology a lot is DNA analysis. DNA analyzing is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ame base sequence repeated on each chromosome between people. This DNA analysis was invented in 1985 by Professor Geoffrey of the United Kingdom and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by Dr. Choi Sanggyu in 1991. This DNA analyzing technique continued to develop over time, like PCR and STR Automatic Alternative Analysis Techniques. These solved many cases that remained unsolved for more than 20~30 years. Let me talk more about DNA sequencing and PCR technique. First, DNA sequencing is a method used to determine the exact sequence of nucleotide in a DNA molecule. In other words, it determines the sequence of the four bases that make up the DNA strand, Thymine, Adenine, Cytosine, and Guanine, there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DNA sequence. Sequencing techniques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types, one of which is Maxam Gilbert sequenc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specifically modifying the DNA base and cutting the DNA skeleton adjacent to the modified base.





Another is Sanger sequencing, which is the foundation of many current sequencing methods. This method uses electrophoresis. The second is PCR technology, which selectively replicates only certain DNA fragments and amplifies them millions of times. Starting with saliva on cigarette butts, DNA can be collected with just a strand of hair or a small amount of blood. And it even can be successfully amplified and determined from the evidence from long time ago. Park Nam-kyu, director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said, "As of now, DNA can be determined with 1ng (1 billionth of a gram) of cells, and in some cases, DNA can be amplified and determined with 300pg (1 trillionth of a gram). Also, DNA accuracy is commonly referred to as 99.9999%, but the actual result so far is 100%." Here, biotechnology techniques used under a single theme of DNA analysis have been introduced, but many biotechnology technologies that have not been introduced are still being used in scientific investigations. One of the areas that has a bright future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is scientific investigation. I will try to be a person in this world who is striving for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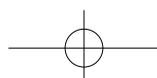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Ideal Age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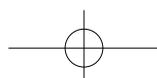
These days it is easy to find parents who are eager to make their children learn English in very early ages. This trend comes from the idea that the earlier the age, the faster a child learns a language. Do kids actually learn a foreign language faster than ad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it is actually true. This is because the children's language learning area of the brain isn't yet fully developed. Thus, every information of the language and the expressions they learn are directly put into the part of the brain. After the age of 10, that area is fully developed which results in what they learn being saved somewhere else other than where it used to be saved. So, when the children start learning at least before the age of 6 to 10 they can use the language in proficiency as they use their first-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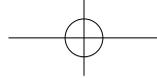
But you might have heard some education experts say that the early learning of a foreign language may slower th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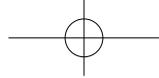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process of both the first language and second language. This may be true. Plus, a big difference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way they learn the two languages. For example, think of a case of a Korean-American family where there is a separation of the time and place that each of the languages are spoken. The child would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two and can separate the use of them. It is made very clear for the child and causes no problem.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both languages are spoken in the same time and place because of a child's parents' fluency in English. When there is no exact separation of the right language used, the child begins to be confused of the identity of the language and mixes up the systems of the two. This not only slows down the learning process but also makes the child stutter. Although they do eventually differentiate the two successfully, it is regarded inefficient on an academic point of view. There is one thing more you need to consider when teaching foreign language to a child in early time of their life. You have to be careful not to be forceful nor too boring. Our children don't passively take in what they are taught. You learned your first language naturally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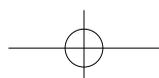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everyday life. If you want your child to use their second language in the same way, you got to present and teach it to them the same way. You have to brainstorm for the best way for them to learn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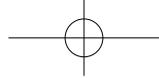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Here is one way to make the child's learning more voluntary. Who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your child's language acquiring? It is the attitude of that person that really matters. It is said that when people around the child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use language, the child naturally forms a good image of it and comes to wish to learn it. Whether it is their parents or friends, just by seeing them speak the language the child may be encouraged to learn it. Think of your attitude toward the language. Weren't you not forcing your child to speak English when you don't speak a word of it? If you really want them to get what they are taught, you got to think deeper. People do have the need to consider education in children's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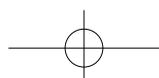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Let's burn our dreams and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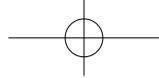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In March 2011, Incheon Sky High School was founded in Yeongjongdo. Over the past 10 years, Incheon Sky High School has rais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Yeongjongdo as it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helping students cultivate their right personality and achieve excellent grades. The most emphasized words of such schools in educating students is "dream and passion." This made students clearly remember that they can shine infinite dreams and passion anytime, anywhere. Meanwhile, students at Incheon Sky High School, which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are busy with their current assignments, reading, clubs, and mock and midterm exams. So there are many students who can't understand the lessons of Incheon Sky High School. Theref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literary works that arouse dreams and enthusiasm so that students can have "dream and passion" again.ader guess the psycholog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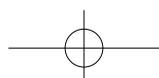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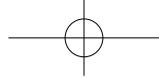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the main character. That feature, coupled with the theme consciousness of the work, which deals The first book is 'The Moon and the Six Pence' of Somerset Maugham. The protagonist of the book, "Styricland," is the head of a middle-class family in England. Suddenly, however, he ran away from home, leaving his wife and children behind, and the narrator of the novel, a friend of Styricland's wife, set out to find Styricland. The speaker finally found him in Paris, France, not England, but he says that he ran away from home to paint the picture he had hoped for 17 years. The speaker could not understand why Styricland, who had enjoyed a stable life in England, made such a choice, but he gave up persuasion and returned to England alone because he thought he could not break his resolution. Since then, Strickland has moved on, burning his passion for painting. At last, He dies in Katahiti after completing his last work. Uniquely, the speaker of the novel is set as a friend of the main character, which makes the reader guess the psychology of the main character. That feature, coupled with the theme consciousness of the work, which deals with the boundaries between passion to achieve dreams and re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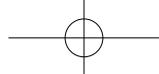
allows the reader to examine the boundaries himself. When you have to compromise between ideals and reality in your life, I hope you can harmonize with the appropriate reality with a passion like "Strik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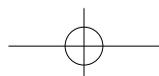


The Symbol of Number

Incheon Sky High School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When I say the 10th anniversary, I think a lot has passed, and I think it gives m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ast. As much as the 10th anniversary is meaningful, the numbers also symbolize something. What does the number 10 symbolize? 10 is the number of fullness and satisfaction. It also means the best or normal and fulfillment. Also, mathematically, 10 is the base number of the decimal system and is the number of the first four digits at the same time. For this reason, according to the Pythagorean school, ten was said to be the most sacred number symboliz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10 can be said to be the sum of all nine numbers and expressed as one again. In this way, it means that the totality of creation, including human consciousness, is gathered together or reappeared,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 of willingly accepting all the diversity of creation to become a multiple unity. The appearance of ten in a picture or dream represents the need or possibility to bring together all the different aspects of life. As a symbol of the holistic personification of the individual, the number 10 indic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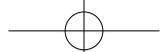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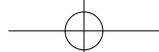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that there has been a reconciliation with the inner mode of totality. What do the other numbers represent? 0 means nothing, eternity, and perfect form, and 1 is the beginning of a number and symbolizes the beginning, origin, and uniqueness. 2 symbolizes difference and dependence, 3 symbolizes majority and creativity. 4 symbolizes completeness and wholeness, but in Korea, it is associated with the Chinese character 'death(死)' Because I think, there are places where the number 4 is not displayed on the elevator, but after the f in the four. 7 means good luck. In Christianity,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Western history, the number 7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because God created the world for 6 days and rested on the 7th day. The Hebrew word used by the Jews for the number 'seven' is 'sheba', which also signifies perfection and perfection. The number has a good meaning, such as there is a legend that a cowherd and a weaver woman on both banks of the Milky Way meet once a year on July 7th of the lunar calendar, when 7 overlaps twice. Because it is not a factor of a number, it has strong independence. Since 8 is mathematically doubled as 4, it symbolizes stability. It has similar properties to 4. 8 can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the necessity or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The number 9 is the number that come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number 8, indicating a new beginning. This aspect is evident in the very close association of the word for 9 in French or German with the word for nove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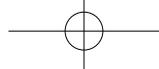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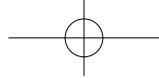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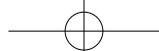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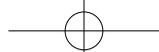


Seeing that 9 is derived from $3*3$ indicates the possibility or necessity of being more differentiated. In Western countries, the number 13 is avoided, but 13 people including 12 disciples and Jesus were taken to the Roman army while eating, so the number 13 came to be disliked. Apollo 13 was a spacecraft that was launched at 13:13, but due to a malfunction, it returned only orbiting the moon. People also argued that the reason Apollo 13 did not land on the moon was because Lake 13 was launched at 13:13 Central American time. When I listened to these stories, I found out that people can have feelings of antipathy or favoritism due to the symbolism of each number, and it was surprising that in each country, the number of people favored and the number of people hated were opposite in some cases.











하늘나래 Vol.9

발행일 2022년 1월 20일

펴낸이 김일형

펴낸곳 인천하늘고등학교

지도교사 김승우

편집부 하늘커넥터

디자인 세종디자인랩

하늘나래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매년 1회 발행하는 교지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236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117

전화 032 745 0400

